

# 현대과학과아나키즘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1930 년

# 차례

1. 아나키즘의기원	3
2. 18 세기의지적운동	5
3. 19 세기초의반동	7
4. 꽁트의실증철학	10
5. 1856 - 1862 년사이의각성	12
6. 스펜서의종합철학	15
7. 사회에있어서의법의역할	17
8. 근대과학에있어서의아나키즘의지위	20
9. 아나키스트의이상과선행의제혁명	22
10. 아나키즘	24
아나키즘의제이념 - 고대중세 - 푸르동 - 슈티르너 . . . . .	25
11. 아나키즘 (속)	28
인터내셔널내부에서의사회주의제이념 - 권위주의적공산주의자와상호주의자 . . . . .	28
인터내셔널에있어서의사회주의제이념 - 생시모니즘 . . . . .	30
12. 아나키즘 (속)	32
인터내셔널에서의사회주의제이념 - 푸리에주의 . . . . .	32
파리코뮌이준충격 - 바쿠닌 . . . . .	34
13. 아나키즘 (속)	37
현상에있어서의아나키즘의관념 . . . . .	37
국가의부정 . . . . .	39
개인주의적조류 . . . . .	40
14. 아나키즘의약간의결론	43
15. 행동의수단	47
16. 결론	52

# 1. 아나키즘의 기원

‘아나키’라는 관념은 어떤 과학적 연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 체계에서 나온 것도 또한 아니다. 사회 과학은 지금도 아직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정확성을 가지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풍토나 기후의 연구에 있어서 조차 1개월 또는 1주일 뒤에 어떤 날씨가 될지 미리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물며 사회학과 같은 미숙한 학문을 가지고 바람이나 비 따위보다 무한히 복잡한 사물을 다루어 장래에 일어날 사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하겠다. 우리는 과학자 역시 시보통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그들이 대부분 상류 계급에 속해 있다는 것, 따라서 그 계급의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그들이 대부분 국가의 봉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나키’란 관념이 대학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또다른 어느 사회 운동과도 마찬가지로 아나키즘은 민중 속에 기원起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중의 운동으로 전개되는 한에서만 그 것은 활력과 창조력을 발휘한다.

예로부터 인간 사회의 내부에는 사상과 행동의 두 개의 조류가 서로 싸워왔다. 한편으로 대중 또는 민중은 자기네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회적 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협력을 요하는 온갖 상황 아래 상호 부조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술한 제도를 만들어내었다. 미개인부락의 풍속, 습관, 존락 공동체, 그 후는 중세 기도시들의 산업길드, 이들의 도시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국제 제법의 기본 원리들과 기타 허다한 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대중의 창조적 정신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달하여왔다.

다른 한편, 어느 시대에나 마법사, 요술사, 기우사 祈雨師, 예언자, 승려, 신관 神官 등이 있었다. 그들은 자연에 대한 지식의 최초의 소유자였다. 또한 각종 종교적 예배 (태양승배, 자연력승배, 조상승배 등등) 를 처음으로 만들어내었다. 동시에 각종 족간의 연결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의식을 창조했다.

이 시대에는 자연 연구 (천문학, 천기 예보, 의학 등) 의 최초의 맹아 萌芽는 여러 가지 의식과 예배에 표현된 온갖 미신과 불가분하게 결부되고 있었다. 예술이나 기예 技藝도 또한 여기에 기원을 갖고 있으며, 연구와 함께 한미 신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신비적인 형식으로 정식화 定式化되어 비전 秘傳 전수자에게만 전하여지고 민중의 손에 닿지 않도록 신중히 보존되고 있었다.

이들의 과학 및 종교의 최초의 대표자들과 병행하여, 켈트족의 음유시인吟遊詩人이나 아일랜드의 브레흔 또는 스칸디나비아 제민족 간에 있던 법률 구술인들과 같은 의견 대립이나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 누구나 그 재결裁決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전통과 인습의 전승자로 간주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법을 자기의 기억 속에 보존했다 (때로는 기호 記號의 도움을 빌려 보존했으니, 그것이 본래 문학의 시초였다). 그리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끝으로 전투단의 임시 지휘자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마법의 비밀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들은 무기에 바르는 독약의 비방 秘方, 기타 군사적 비밀을 쥐고 있었다.

이 3종의 인간은 자고로 상호 간에 비밀 조직을 구성하여 그 전문 지식의 비법을 보존함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고통스런 습득에 의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했다. 가끔 그들 사이에 내분이 있을 때도 있으나 결국 서로 협력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대중을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통치하고, 그리고 자기네를 위하여 부려먹기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고, 결속하고, 지원해왔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아나키즘은 이러한 두 조류 중의 첫째에 속한다. 즉 소수 지배자에 대항하여 자기네를 옹호하기 위하여 관습법적 제도를 만들어낸 대중의 창조적, 건설적 힘을 대표한다. 다름 아닌 이 대중의 창조력과 현대 과학과 기술의 힘에 바탕을 둔 민중의 건설 활동에 의거하여 아나키즘은 오늘 날 사회의 자유로운 발달을 보증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제도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아나키즘이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가혹한 규율을 갖고 민중 위에 군림하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소수의 통치자에 의한 입법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아나키스트와 국가주의자가 대립하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느 시대에나 모든 제도가 본래는 평등, 평화 및 상호 부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최선의 제도 조차도 노화함에 따라 고정화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들의 제도는 그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소수 야심가의 지배 하에 귀속하여 점차 일층 더 사회가 발달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하고 만다. 그럴 적에 다소간에 고립한 개인들은 이러한 제도에 반역하게 된다. 불만을 품은 이런 사람들은 노화 老化하여 억압적인 것

으로되고만제도에반역하여그것을대중의이익에맞도록개혁하려고시도한다. 특히이러한제도위에군림하여그것을그지배하에거두어들인권력을타도하려고노력한다. 그런가하면다른자들은사회제도(부족, 촌락공동체, 길드등등)로부터이탈하여오로지그밖에, 그리고그위에서려고하며, 사회의다른성원을지배하여그희생을발판으로자기네의부富를구축하려고기도한다.

무릇정치적, 종교적, 경제적개혁자는이두가지카테고리중의전자에속하고있다. 이들의개혁자중에는언제나다음과같은형의인물이있었다. 즉그동포의모두가, 아니그소수자마저같은견해에물들기를기다리지않고자진하여압제에반역하고나서서, 다소라도많은군중을조직하기도하나따르는군중이없을때는단신으로싸우기조차주저하지않는다. 어느세상에나이러한형의혁명가가있었던것이다.

그렇지만혁명가자신들도두가지다른방향을대표하고있었다. 그한편은사회의내부에발생한권력에대하여반역하기는했으나이권력을근절하려하지않고그것을자기의수중에넣으려했을뿐이다. 노후화하여억압적으로된권력대신에그들은새로운권력을형성하려고노력하고그권력의소유자가되려고했다. 그들은종종선의로이새로운권력이민중의이익을희구하는것이고, 민중의진정한대표자라고약속했던것이다. 하지만이약속은얼마안가서반드시그들이망각하게되거나아니면파기되거나했다. 이리하여로마에있어서의황제들의권력, 그리스도교등장후최초의몇세기동안의교회의권력, 중세의도시공화제쇠망기에있어서의독재자들의권력등이탄생하였다. 같은조류는봉건시대말기에있어서의유럽의왕권의형성에이바지하는바컸다. ‘인민주의’의황제시저에대한신앙은오늘에이르기까지아직자취를감추지않고있는형편이다.

그러나이러한권위주의의조류와병행하여기성제도를재검토하려는시기에는다른하나의조류가대두하고있었다. 그리스의옛날로부터오늘에이르도록어느시대에나다음과같은개인과사상과행동의조류가있었다. 즉그것은한권력을다른권력으로바꿔놓는것이아니라민중적제도위에덮어씌워진권력을배제하고그런연후에그자리에다다른권력을창설하려고하지않는개인과사상과행동의조류가곧그것이다. 그들은개인과민중과의주권을선언하고민중적제도를이상異常비대한권력으로부터해방하려고했다. 그들이의도한것은대중의집단적정신에완전한자유를부여하는것이고, 또한새로운생활조건과생존의필요에따라서민중의재능이상호부조와상호보호의제도를다시한번자유로개조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고대그리스의제도시나, 특히중세의제도시(파렌체, 프스코프등)에서이러한투쟁의많은실례를발견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어느시대에있어서나개혁자와혁명가중에는한편으로자코뱅주의자와다른편으로아나키스트라는두종류의사람들이있었다고말할수있겠다.

아나키스트적성격의인상을띤강력한민중운동도과거에발생하고있었다. 촌락이나도시가강권强權의원리에반항하여봉기하고, 국가의제기관및재판소와그법률에저항하여인권의절대권을선언한것이다. 그들은일체의성문법을부인하고각인이자기의양심에바탕을두고스스로다스려야한다고주장했다. 그들은이와같이하여평등과완전한자유와노동의원칙에바탕을둔사회를건설코자했다. 아우구스투스제제의치세하에로마의법률, 로마의국가, 당시의도덕또는부도덕에반대하여유태에서시작된그리스도교도의운동에는확실히분명한아나키스트적요소가있었다. 그런데이운동은점차고대헤브라이교회와로마제국자체를모방하여구성된교회의운동으로타락해갔다. 그결과, 창립당시에간직했던그리스도교의아나키스트적요소는드디어질식하고그리스도교회에로마적형태가가하여져이윽고권력, 국가, 노예제및억압의지주로타락하고만것이다. 그리스도교에도입된‘기회주의’의최초의종자는복음서와사도행전속에벌써, 적어도신약성서를구성하는이들의문서의편찬속에명백히발견된다.

마찬가지로또, 종교개혁을발달시켜그것을도래케한저 16 세기의재세례파의운동에도극히많은아나키즘적요소가있었다. 허나이운동은제후諸侯와결탁하여농민의반란에대항한루터를지도자로한종교개혁자들에의해분쇄되고농민과도시의빈민들의피비린내나는대학살에의하여탄압되고말았다. 이리하여우익종교개혁자들은점점타락하여마침내자기의양심과국가와의타협을도모했으니, 이것이바로오늘의프로테스탄티즘인것이다.

요컨대이렇게해서일반적으로사회주의를낳은저비판적및혁명적인항의에서아나키즘도또한탄생한것이다. 헌데일부의사회주의자들은자본을부정하고또자본에의한노동의예속에바탕을둔사회기구를부인할뿐, 그이상으로나가지않았다. 그들은자본의진짜힘을구성하는것-즉무엇보다도우선, 권력과자본의존속을위하여만들어진국가와그주요한지주가되는권력의중앙집권화, (항상변함없이소수자에의하여제정되고소수자의이익에봉사하는) 법률및재판등에대하여반항하지않았다.

다른한편아나키스트는이들의제제도의비판만으로만족하는자가아니었다. 그것은단지자본에대해서뿐만아니라자본주의의지주支柱에대해서도감히신성神聖을모독하는칼날을세워항거했다.

## 2. 18 세기의 지적운동

그러나 비록 아나키즘이다른 모든 혁명적 조류와 같이 민중 속의 투쟁에서 발생한 것이 지학자의 연구실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날 존재하는 각종의 과학적 철학적 사조 想潮 속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를 아는 것은 역시 중요하다. 아나키즘은 이들 각 종 사조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들의 사조 중에 어떤 것에 아나키즘은 주로 의거하려고 하는가. 또한 아나키즘은 자기의 결론을 기초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연구 방법에의 존하려고 하는가. 바꿔 말하면 아나키즘은 어느 학파에 속하는가? 아나키즘은 근대 과학의 어떤 조류와 가장 접근해 있는가?

사회주의자들의 서클 안에서 최근 보이고 있는 경제학적 형이상학에의 몰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미상 불 흥미 있는 문제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 간결하게 어려운 용어는 피할 수 있는데 까지 피하면서 이 문제에 대답해 보겠다.

19 세기의 지적운동은 18 세기 중엽에서 말기에 걸친 영국 및 프랑스의 철학자들의 저작 著作에 기원을 갖고 있다.

그 당시 시작된 사상의 고조는 모든 인간 지식을 하나의 전반적 체계 - 자연의 체계 속에 포함시키려는 소망을 갖고 이들의 사상가를 고무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나 형이상학을 모두 포기하고 대담하게도 전자연 - 별의 세계, 태양계, 지구, 지구 표면의 식물, 동물 및 인간 사회의 발달 - 을 자연 과학의 일관된 방법에의 하여 연구해야 할 일련의 제사실로서 내다보려고 했다.

참된 과학적 방법 - 즉 귀납? 연역적 방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그들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일체의 현상 - 그것이 별의 세계에 속하거나 동물계에 속하거나 - 을 자연 과학이 물리학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처음에 먼저 사실을 신중히 수집했다. 다음으로 이것을 일반화하려고 할 때, 그들은 귀납법으로 이를 수행했다. 그들은 일정한 가설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 가설에 대하여 다윈이 생존 경쟁에의 한신 종의 기원에 관한 가설이나 멘데레프가 그 '주기율週期律'에 대하여 부여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가설을, 일시적 설명을 제공하고 사실을 수집하여 그 연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정假定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들의 가정이다수의 사실에 적용되는지 어떤지를 검토하고 또한 연역적 방법에의 하여 확인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들의 가설이 이러한 검증에 붙여져 그것들이 표현하는 상호간의 항상적 恒常 的 관계의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법칙' (증명된 일반화)이라 생각되는 일은 없었다.

18 세기의 철학 운동의 중심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프랑스로 옮겨진 때, 프랑스의 철학자들은 그들에 고유한 체계 구성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자연 과학도 역사 과학도 모든 인간 지식을 보편적 계획에의 하여 동일의 원리 위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편적 지식을 - 즉 전 우주와 그 생활의 철학을 엄밀히 과학적 형태로 구성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그럴 적에, 전시대의 철학자들이 구축한 일체의 형이상학적 구성을 포기하고 지구의 기원과 발달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 물리적 (즉 역학적) 제력 諸力 의 운동에의 하여 모든 현상을 해명하려고 했다.

나폴레옹 1세가 라프라스를 향하여 그의 「우주 체계론」에는 어디에도 신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을 때 라프라스는 "나는 그러한 가설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라프라스는 그것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표현상의 불가 해성 不可解 性, 또는 애매하고 어중간한 현상 파악 및 제사실을 계산할 수 있는 양으로 써 구체적 형식으로 고찰하는 능력의 결여를 배후에 숨기고 있는 저히 장성 세의 형이상학적 미사여구에 호소하려 하지를 않았다. 라프라스는 조물주라는 가설과 함께 형이상학도 폐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우주 체계론」은 조금도 수학적 계산을 포함하지 않고도 교육 받은 독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말로 쓰여 있었는데 수학자들은 후일 이 책에서 술된 개개의 사상을 정확히 수학 방정식으로, 즉 계산될 수 있는 양의 상호간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프라스는 그 만큼 정확히 생각하고 표현했던 것이다.

라프라스가 천체 역학에 관하여 수행한 것을 18 세기의 프랑스 철학자들은 당시의 과학의 한계 내에서 생명 현상의 연구에 대하여, 또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연구 (심리학)에 대하여 행하고자 했다. 그들은 그 선구자들이 나그 후의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저작에 전개된 형이상학적 사변 思辨 을 폐기했다.

사실주지하는바와같이,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감정을 증명코자 하여 그것이 '지상명령'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또 행위의 격률格率이 의무로 되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라고 논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에 사용된 용어는 어느 것이나 주지의 도덕적 사실을 설명하는 대신에 애매모호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 ('명령'이니 '지상'이니 '법칙'이니 '보편적'이니 하는) 을 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백과사전파는 이러한 '거창한 말'을 갖고 하는 '설명'에 만족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선배들 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인간이 어디로부터 선악의 관념을 얻어왔는가를 증명코자 할 적에 괴테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상의 공허함을 숨기기 위한 언어'를 삽입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인간을 연구했다. 그리고 이미 1725년에 하치슨이 한 것처럼, 또한 그 후 아담스미스가 명저 『도덕적 감정의 기원』에서 한 것처럼, 그들도 또한 인간의 도덕적 감정은 괴로워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느끼는 연민과 동정의 감정에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타인과 동화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능에서 발생했다는 것, 우리의 면전에서 아동이 매맞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생리적 고통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천성은 이러한 행위에 반향한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찰과 만인 주지의 사실에서 출발하여 백과전서파는 광범한 일 반화에도 달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복잡한 현상인 도덕적 감정을 보다 단순한 제사실에 의하여 실제로 설명한 것이다. 그들은 주지의 이해하기 쉬운 제사실 대신에 '지상명령'이니 '보편적 법칙'이니 하는 종류의, 아무 것도 전혀 설명하지 않는 불가해하고 애매한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백과전서파의 방법이 지니는 이 점의 장점은 명료하다. '천계 天界로부터의 영감'을 이러한 저술에 통달하는 대신에, 도덕적 감정에 관한 인간 계이의 초자연적 기원을 말하는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이 지상에 출현한 이래 인간 속에는 언제나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동포를 관찰하는 데서 확인되고 차차 사회 생활의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것으로 된 감정이다. 우리의 도덕 관념은 이 감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리하여 18세기의 사상가들은 그 연구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의 세계에서 화학적 반응의 세계로, 그리고 물리적 세계와 화학적 세계에서 동식물의 세계로, 다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형태의 발달로, 또한 종교 기타의 진화로 옮아갔다. 방법은 언제나 동일했다. 과학의 모든 부문에서 그들은 언제나 귀납법을 적용했다. 그들은 종교의 연구에 있어서, 도덕적 감정의 분석에 있어서, 또한 사유 일반의 해부에 있어서, 그들의 방법이 실패하여 다른 방법을 필요로 했다는 단 하나의 예에도 마주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형이상학적 개념 (초월적 존재에 의하여 고취된 신이니, 불사의 영혼이니, 생명력이니, 지상명령이니 하는)이나 변증법적 방법에 호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깊으로 그들은 동일한 자연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전우주와 그 전현상을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현저한 지적 발달이 성취된 이 시대에 백과전서파는 저기념비적인 가치가 있는 『백과전서』를 작성했다. 라프라스는 『우주체계론』을, 돌바흐는 『자연의 체계』를 발표했다. 라보아제는 물질의 불멸, 따라서 또한에너지와 운동의 불멸을 주장했다. 러시아의 로마노소프는 베이르의 자극을 받아이 무렵에 벌써 열에 관한 역학적 이론을 구성하고 있었다. 라마르크는 동식물의 무한한 변종의 출현을 상이한 환경에 의한 적응에 의하여 설명했다. 디도르는 천상계 天上界로부터의 영감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도덕적 감정과 습속, 원시적 제제도와 종교를 설명하려고 했다. 루소는 정치 제도의 탄생을 설명코자 사회 계약에, 즉 인간의 의지적 행위에 의거하려고 노력했다. 요컨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사실의 관찰과 경험에 의하여 검증된 자연 과학적 귀납과 연역이란 동일의 방법에 의하여 기도되지 않은 연구 영역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거대하고 대담한 시도에 오류를 범한 예가 없는 바 아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지식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때로는 앞질러나간, 때로는 전혀 그릇된 가정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법이 인지의 전부문에 적용되었으며 이 방법의 덕택으로 오류 자체도 뒷날에 손쉽게 발견되고 정정되었다. 19세기는 이리하여 강력한 연구 방법을 계승했다. 그리고 이 방법이야 말로 우리의 세계관을 과학적 기초 위에 구성할 수 있게끔 했으며, 그것은 또 난관을 회피하려고 하는 악습의 결과로 도입된 우리의 세계관을 흐리게 하는 편견이나 또는 무의미하고 애매모호한 용어의 일소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 3. 19 세기초의반동

주지하는바와같이프랑스대혁명의패배이후유럽은정치의영역에서나과학과철학의영역에서나일반적반동의시기를맞이했다. 부르봉왕가의백색테러, 자유주의이념과싸우기위하여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의황제들간에 1815년에맺어진신성동맹, 유럽의상류사회층에유행하기시작한신비주의와경건주의, 도처에출현한국가경찰등이모든방면에서개가를올렸다.

그러나다른한편, 혁명의근본원리는사멸하지않았다. 지금까지반노예적상태에얽매어왔던농민과도시노동자의해방, 법의앞에서의평등, 대의정치 - 이들의세가지원리는프랑스혁명에의하여선언되고혁명군에의하여멀리폴란드에이르기까지전유럽에전파되어프랑스에서와마찬가지로전유럽에진출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대원칙을최초에선양한혁명뒤에점차적근대화 - 즉제도의점차적변화의과정이시작되었다. 다시말하면 1789년에서 1793년까지의동안에선언된일반적원칙이일상생활속에적용되는과정이시작된것이다. 혁명의소용돌이속에서천명된원리가그후진화의길을따라실현을보게됨은사회발전의일반법칙이라고봐서무방할것이다.

비록사회와국가및과학마저혁명이‘자유? 평등? 우애’라는자기의부르짖음을써넣은깃발을짓밟고있었다할지라도, 또설사현존질서에의적합이당시는철학에서마저일반적슬로건으로되었다할지라도, 자유의대원칙은그럼에도불구하고생활속에침투해갔다. 허기야이탈리아와스페인에있어서프랑스혁명군이일찍이폐지한농노제와이단규문異端? 問제도가이제다시재건되기는했지마는, 그러나이미이들의제도에치명상이가해져있어거기에서회복할수는없었던것이다.

해방의물결은우선최초에서부독일에미쳤고, 계속해서프로이센과오스트리아에밀어닥쳤고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반도에번져갔다. 다시동방으로흘러가 1861년에는러시아에다다랐고, 1878년에는발칸제국諸國에까지흘러갔다. 북아메리카에서는 1863년에노예제도가자취를감추었다. 동시에법앞에서의만인의평등과대의정치의이념도또한서방에서동방으로확대하여 19세기말에는러시아와터키만이전제專制의굴레를쓴채남게되었다 - 물론그나마극히취약화한전제에지나지않았지만.

그뿐이아니다. 18,19 양세기의경계에경제적해방이란이념이소리높이선언되고있다. 1792년 8월 10일파리의민중이왕권을무너뜨린직후, 특히 1793년 6월 2일에지롱드당을타도한후에파리를비롯하여전국의대도시에서의혁명지부支部나지방소도시의공청公廳의대부분도이방향으로행동했다.

프랑스지식인들은평등이단순한구호에그칠것이아니라사실로되지않으면안된다고선언했다. 그리고혁명이‘음모자 - 국왕들’에대하여수행되지않으면아니되었던전쟁의과정에서그중압이무엇보다도먼저빈민층위에덮어씌워진결과, 민중은국민공회의위원회들에게약간의공산주의적, 즉평등주의적정책을취하게끔강요했던것이다.

국민공회자신도공산주의의방향으로나가도록강제되어‘빈곤의근절’과‘재산의평등’을목적으로하는일련의조치를채택했다. 1793년 5월 31일에서 6월 2일간의봉기에의하여지롱드파가정부에서축출된후, 공회는토지뿐만아니라상업의, 적어도생활필수품의교역의국유화를기도하는일련의조치를취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뿌리깊은이운동은 1794년 7월까지계속되었는데이때에지론드당의부르주아반동파가왕당파와결탁하여테르미도르 9일에다시권력을잡았다. 이리하여이운동은단기간밖에계속하지못했다고는하지만그것은 19세기에자기의명백한각인을 - 즉가장진보적인형태의공산주의적및사회주의적경향성을부여했다.

1793년?94년의운동이계속되고있는동안에민중출신의변사辯士가나타나이운동의이념을표현했다. 그러나이시기의프랑스의문필가들중에는이들의이념 [당시그것은‘마라를넘어서’라불리고있었다] 에다이론적표현을부여하여사람들의마음속에영속적영향을미칠수있는사람은하나도없었다.

겨우영국에서 1793년에고드윈이등장하여참으로주목할만한저작勞作『정치적정의및그사회도덕에대한영향에관한고찰』을공간公刊했다. 고드윈은이책에서‘자주인적’사회주의즉아나키즘의최초의이론가가되었다. 다른한편으로바부프 [아마도보나로티의영향을받고는] 1795년에중앙집권적사회주의, 즉국가사회주의의최초의이론가로서나타났다.

다음으로 19 세기가 되어 앞서 말한 것처럼, 18 세기 말에 선양된 원리를 발전시키면서 현대 사회주의의 3 인의 시조始祖가 중요한 3 학파를 대표하고 출현했다. 푸리에, 생시몽, 로버트 오언이 곤이 들이다. 다시 40 년 대로 내려가면 푸르동이 등장하여 고드윈의 노작을 아는 바 없이 새로 아나키즘을 기초해 놓았다.

이리하여 강권적 및 반강권적 쌍방의 사회주의의 과학적 기초는 19 세기 초경에 벌써 풍부하게 개척되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금일의 사람들에게 등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인터내셔널의 창립에 비롯한 근대 사회주의는 두 가지 점에서만 - 그것은 극히 중요한 점인데 - 이들의 사회주의 창시자들보다 전진하고 있다. 그 하나는 근대 사회주의가 혁명적으로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848 년까지 즐겨 말해온 '사회주의자? 혁명가로서의 크리스트'라는 관념을 씻어 없앤 점이다.

근대 사회주의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혁명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 이경우 사회 혁명이란 것은 '산업 혁명'이니 '과학 혁명'이니 말할 때 쓰이는 의미에서의 혁명이 아니라 용어의 정확하고 명료한 의미에서의 혁명, 즉 사회의 기초 자체의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근대 사회주의는 약간의 그리스도교적 개혁자들이 제창한 천박하기 짜이 없는 센티멘탈한 개혁에 자기의 견해를 혼동시키기를 그만 두었다. 물론 이 점은 이미 고드윈, 푸리에, 로버트 오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행정, 중앙 집권, 권력과 규율에 의궤배? 拜와 같은 것은 인류가 신정주의 神政主義 와로 마제국의 법률에서 배운 것인데, 라브로프가 분명히 지적한 이들의 어두운 과거의 '유물'은 여태껏 많은 사회주의자를 완전히 얹어매고 있다. 그들은 이 점에서 프랑스나 영국의 선구자들의 수준에도 미달한 형편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후에 기승을 부리던 반동이 과학의 발달에 끼친 영향에 관하여 여기에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두면 좋겠다. 즉 현대 과학이 금일 자랑하는 성과의 전부가 벌써 18 세기 말에 시사되고 있었다는 것, 아니 시사뿐 아니라 때로는 정확한 과학적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역학적 열이론, 운동 불멸설 [에너지 항존恒存], 환경의 직접적 영향 하에서의 종종의 변화, 생리학적 심리학, 역사? 종교? 법의 인류학적 고찰, 사상의 발전 법칙 -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의 과학적 세계관과 종합 철학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및 사회적인 전현상을 전체적,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철학]은 18 세기에 벌써 소묘 素描 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완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프랑스 혁명이 끝난 후 반동이 승리함과 동시에 반세기에 걸쳐 이들의 발견을 억압하려는 경향이 시작되었다. 반동적 학자들은 이들의 발견을 '비과학적'이라 불렀다. 처음에 먼저 '사실'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는 구실을 앞세워 그들은 학계에서 단순한 측정에 불과한 연구마저 배척하려고 했다. 이를 테면 형제 세 구안에 의하여, 그 후 쥬르에 의하여 수행된 열熱의 작업 당량 作業當量의 결정법 [일정의 열량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적 마찰양] 도 배척되었던 것이다. 금일의 영국 과학아카데미에 해당한 '왕립 협회' 마저 쥬르의 연구를 '비과학적'이라 하여 출판을 거절했다. 더욱이 힘의 통일에 관한 글로브의 주목할 만한 저작은 1843 년에 쓰였는데 1856 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등한시되고 있었다.

19 세기 전반의 과학사를 읽으면 프랑스 혁명 패퇴 후 유럽에 얼마나 깊이 암운 이 덩이 있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구름의 막은 돌연 50 년 대말에 걷히기 시작했다. 이 때서 방에서는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 가르바르디의 웰기, 이탈리아의 해방, 아메리카에서의 노예 제 폐지, 영국에서의 자유주의 적개혁 등이 나타났다. 러시아에서는 동일한 이 운동의 결과 가능 노제와 태형笞刑의 폐지로서 나타났고 철학에서는 쇠링과 헤겔의 권위 실추를 일으키고 니힐리즘이란 이름으로 불린 정신적 예속과 일체의 권위에 의궤배에 대한 대담한 부정을 산출했다.

오늘날 우리가 당시의 지적 발달을 회고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된다. 즉 과학을 짓누르고 있던 속박을 타파하기를 도운 것은 30?40 년대에 행하여 진공화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이념의 선전이고 또한 1848 년의 혁명이었던 것이다.

사실이 점은 상술할 것까지도 없어다만 다음의 사실을 주목하는 것으로서 충분할 것이다. 즉 앞서 말한 세 구안도, 오귀스탄티에리 [중세에 있어서의 코뮌의 민중적 기구와 연합주의적 이념의 연구의 창시자] 도시스 몬디 [이탈리아 자유 도시에 관한 역사가] 도 모두 19 세기 전반의 3 인의 사회주의의 시조 중의 한 사람인 생시몽의 제자였다는 사실이다. 또 한 번 과 때를 같이 하여 자연 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의 이론에도 달한 알프레드 R 월레스는 청년 시대에 로버트 오언의 열렬한 귀의자 归依 者였다.

오귀스트 꽁트는 생시몽주의자였고 리카도도 벤담도 또한 오언주의자였다. 다른 편으로 유물론자 칼 포크트와 G. 루이스는 글로브, 밀, 허버트 스펜서, 기타 여러 사람들과 같이 30 년대와 40 년대의 영국의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운동에서 그들은 각기 과학적 작업에 있어서의 용기를 길러오고 있었던 것이다.

1856 년에서 1862 년에 이르는 불과 5,6 년의 단기간에 글로브, 쥬르, 베르트로, 헤름 호르츠, 멘데레프 등 의업적, 다원, 끄로드 베르나르, 스펜서 모레쇼트, 포크트 등의 여러 저작, 인류의 기원에 관한 라이에르, 베인,

밀, 뷔르노프의여러저작, 이러한업적이한꺼번에꽃핀결과, 당시의학자들의기본적견해에일대변혁이생기고과학은일제히새로운길로매진하게되었다. 인지人知의전부문은놀라운속도로정비되었다.

생명의과학 [생물학], 인류의제제도의과학 [인류학과민족학], 이성, 의지및감정의과학 [생리심리학], 법과종교의역사등은우리의안전眼前에급속히성장하고그일반화의대답성으로말미암아, 또한그결론의혁명적성격으로말미암아, 우리의마음에충격을주었다. 전세기에서는단지막연한가정에불과하고가끔추측에불과했던것이이제야저울과현미경으로증명되어수천회의관찰과실험에의하여검증된것으로되었다. 저술방식자체도아주달라졌다. 앞서말한학자들은한사람의예외도없이귀납법의특징으로되고있는문체의간결함과정확함과아름다움으로되돌아갔다. 그리고이러한문체는형이상학을폐기한 18 세기의문필가들의것이기도했던것이다.

금후과학이어떠한방향으로추이해갈것인지는예언할수없다. 학자들이오늘과같이부자와정부에의존하고있는한, 그들의과학은불가피하게그영향을받지않을수없겠고, 19 세기전반에보던바와같은과학의침체기가재현하지않으리라는법도없다. 그러나단한가지확실한것이있다. 즉오늘보는바와같은과학에대해서는라프라스가그것없이도해나갈수있던저가설이라든지괴테가조소嘲笑한그런형이상학적'잠꼬대'같은것은무용의사족에불과하다는것이다. 우리는유기적생과인류의생의발달을포함해서저대자연이란서적을읽을수있는것이다. 이서적을이해하기위하여우리는조물주라든지신비적'생명력'이라든지불사의영혼따위에의뢰할필요도없거니와, 또한헤겔의 3 부작을참조할것도, 우리자신의실재를부여하고있는어떤형이상학적상징의배후에우리의무지를숨길것도필요치않다. 기계적현상 - 그것은물리학에서인생의제사실로나아감에따라점점복잡하게되나여전히항상기계적현상이다 - 만으로자연의전모를설명하고다시이지상에존재하는일체의유기적지적사회적생활을설명할수있는것이다.

확실히, 이우주에는아직여러가지가알려지지않아애매하고불가해한채로남아있다. 그리고우리가지식의공백을메워감에따라언제나새로운공백이다시금입을벌린다는것도의심할수없는사실이다. 하지만두개의당구의공이부딪칠때라든지, 돌멩이가구를때일어나는단순한물리적사실과, 또한우리의주변에나타나는화학적사실에눈을돌릴때, 우리가이들의현상을설명못할영역은하나도없다. 자연의전생활을해명하는데에이러한기계적사실에만주목하면그것으로족한것이다. 이들의사실이우리를기만한일은없으며, 기계적사실만가지고는불충분한그런영역이있을것으로생각되지도않는다. 여태껏그런영역의존재를추측케하는것은아무것도없었다.

## 4. 꽁트의 실증철학

과학이 이상과 같은 결론에도 달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모든 성과를 포섭하는 종합 철학을 구성하려는 기도가 시험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철학자들은 우리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를 대접하는데 사용해 온 공상의 산물, 즉 '실체'니 '우주의 이념'이니 '생의 목표'니 하는 따위의 상징적 표현에 헛된 시간을 낭비할 것 없이, 또 한의 인관 擬人觀 - 즉 자연과 물리적 재력 諸力에 대한 간접자질이나 의도를 부여하는 따위의 작품으로 귀중하기 짹이 없는 시간을 허송할 것 없이, 우리의 전지식의 종합적, 통일적인 또 한이 성적인 종괄을 제시하는 그런 철학을 구성하려고 시도함은 참으로 당연한 일 이었다. 이 철학은 단순한 것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점차 상승함으로써 우주적 생의 근본 원리를 해명하고 자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려고 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이 철학은 사물 상호간의 새로운 관계를 - 즉 새로운 자연 법칙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연구 수단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동시에 또한, 설사 그 것이 아무리 시대의 통설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의 정당성을 신뢰하도록 무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많은 기도가 19 세기에 실제로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오귀스트 꽁트와 허버트 스펜서의 기도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확실히 종합 철학의 필요성은 이미 18 세기에 백과 전서파에 의하여, 또금 일까지 여전히 기념비적 노작 勞作 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저작 연하빛나는 『철학사전』에 있어서의 볼테르에 의하여, 그리고 튀르고에 의하여, 내려와서는 생시몽에 의하여 일총명료하게 각각되어 왔다. 그러나 19 세기 전반에 이르러 오귀스트 꽁트는 같은 모양의 저술을 자연 과학의 최근의 진보에 적응하는 엄격히 과학적인 형태로 계획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수학과 정밀 과학에 관해서는 꽁트가 그 과제를 훌륭히 성취했다 하겠다. 또한 그가 실증 과학의 영역 안에 생명의 과학 [생물학] 과 인간 사회의 과학 [사회학] 을 도입한 것이 완전히 옳았음은 일반의 승인을 얻고 있는 바라하겠다. 그리고 꽁트의 실증 철학이 19 세기 후반의 여러 사상가와 학자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쳤음도 주지하는 바다.

그렇지만 이 위대한 철학자의 찬미자들은 이렇게 묻는다. - 도대체 무슨 깊이로 꽁트는 그 『실증 정치학』에서 근대의 제제도의 연구, 특히 윤리, 즉 도덕관념의 연구를 시도함에 있어서 저토록 유약한 태도 밖에 취하지 못했을까.

어찌하여 꽁트와 같이 광대하고 또 실증적인지 성이, 만년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종교와 어떤 종류의 예배의 창시자가 되고 말았을까.

그의 제자 중의 혹자는 꽁트의 만년의 단계와 이전의 노작과를 조화시키려고 이 철학자가 『실증 철학』과 『실증 정치학』 이란 두 저작에 있어서 동일한 방법에 의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옳지 않다. 때문에 꽁트 철학의 두 사람의 정통적 제자 리토레와 존스튜어드 밀은 다 같이 실증 정치학을 꽁트 철학의 일부라고 조차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이 저작을 지성이 쇠퇴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꽁트의 두 저작 - 『실증 철학』과 『실증 정치학』 -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은 극히 특징적인 것으로 그 것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몇 가지에 빛을 던져 주고 있다.

꽁트가 그의 『실증 철학 강의』를 완성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즉 인간의 도덕적 감정의 기원 및 이 감정이 인간과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가 아직 자기의 철학 속에 논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났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감정의 기원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꽁트가 생의 전체를 설명하는데 쓴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설명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다. 어째서 인간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 없이 이 감정에 복종하고 혹은 적어도 그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가를 그는 설명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꽁트가 여기에 바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은 극히 주목할 만하다. 후년에 영국의 위대한 박물학자 다윈이 『인류의 기원』에서 인간의 도덕적 감정의 발생을 설명코자 했을 때, 꽁트가 걸은 이 길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사실 꽁트는 『실증 정치학』에서 탄복할 만한 여러 절절을 쓰고 있는 바, 이 대목은 동물계에 있어서의 사회성과 상호 부조 및 이려한 사실들의 윤리적 의의를 그가 결코 간과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실에서 그럴 법한 실증주의적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그것이 저술된 당시 아직 생물학의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꽁트 자신도 거기에 필요한 대답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신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도덕적이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드리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기성 종교의 신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대문자로 쓴 인

류로 바꿔놓았다. 이 새로운 우상앞에 무릎꿇고 절하기를,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도덕적 감정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그 것 앞에 기도드리기를, 그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다. 일단 이렇게 되어 인간이 자기 밖에, 또는 자기 위에 자리하는 어떤 것을 우러러 절해야 한다고 승인됨으로써 인간적 동물이의 무의 길을 밟도록 밖으로부터 시켜지고 보면, 이에 따라나머지 것은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의 종교적의식 도동방에서 발생한 옛 종교들을 본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감정이 그 사회성이나 사회 자체와 똑같이 인간이 전의 기원을 갖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연계의 관찰과 인간의 사회 생활의 체험의 축적에 의하여 인간 속에 보강된 동물적 사회성의 일층 진화하고 발달한 것임을 꽁트가 인식하지 못한 결과 그려 한 결론에도 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꽁트는 인간의 도덕적 감정이 그 육체적 조직과 같은 정도로 인간의 본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양자가 다 대단히 긴 세월의, 과거의 수만년간 계속된 진화의 과정에서 생긴 유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꽁트는 동물계에 사회성이 있고 상호간에 동정의 감정이 있다는 생각은 했으나 당시 대권위자로 인정되고 있던 동물학자 큐비에의 영향때문에 뷔퐁과 라마르크가 이미 밝히고 있던 것 - 즉 종종의 변이 성變異性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부단히 계속되는 진화 과정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다윈이 해 한 바를, 즉 인간의 도덕적 감정은 최초의 유인적 類人的 동물이 이지상에 출현하기보다 훨씬 이전에 동물 사회 속에 발달한 상호부조 본능의 일층의 진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꽁트는 우리가 오늘 날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즉 개개인은 아무리 비도덕적 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인류가 멸망기에 들어 가지 않은 이상 인간 성 속에는 도덕적 원리가 본능으로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것, 이 인간 성에서 나오는 도덕적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불가피하게 타인 속에 반동을 일으키리라는 것, 그것은 흡사히 물리적 세계에 있어서 역학적 움직임이 반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것 등이다. 개개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의 능력 속에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도덕적 감정과 사회성의 습속을 필연적으로 버티어 주는 자연적인 힘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물의 사회에 있어서 그것들을 일체의 밖으로부터의 개입 없이 지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더욱이 이 힘은 여하한 종교나 여하한 입법자의 명령보다도 무한히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꽁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꽁트가 이 것을 승인하지 못한 결과 그는 새로운 신성神性인 인류와 새로운 운의식 및 새로운 예배를 발명하고, 이 신종교가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 생활의 길을 걷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꽁트는 생시몽과 같이, 또한 푸리에와도 같이,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공세貢稅를 바쳤다. 평등한 힘을 가진 악의 원리와 선의 원리와의 투쟁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또한 인간이 악의 대표자에 대한 싸움에서 자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의 대표자에 의거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적이념으로 침투된 꽁트는 도덕과 이 도덕을 인간의 감정 및 관념 속에 강화해야 할 수단에 관한 문제에 마주치자 마자 단박에 이 그리스도교적이념으로 도피하고 말았다. 인류교는 그에 대하여 인간을 악의 파멸적 영향으로부터 구출할 수 단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 5. 1856 - 1862 년사이의각성

꽁뜨는인간의제제도의연구 - 특히도덕관념의연구 -에성공하지못했지만, 그러나그가 『실증철학』과 『실증정치학』을쓴것은앞서말한바와같이갑자기과학의지평선이활짝열리고교양있는인사의세계관의수준이높아진저 1856?1862 년보다훨씬전이었음을잊어서는안된다.

이 5,6 년의짧은기간에과학의각종분야에나타난노작은우리의자연관과생명관, 특히인간의사회생활에관한우리의견해에완벽한변혁을초래했는바, 이와같은변혁에필적할것으로는과거 20 세기간의전과학사의어디에서도발견할수없을만한것이었다.

백과전서가가단지예견만했던것, 오히려예감한데불과했던것, 또한 19 세기의최고의지성들이그때까지간신히해명한것이, 이제문득일반적지식의성과에편입되게끔되었다. 그리고그것은자연과학의귀납? 연역적방법의덕택으로완벽하고도전면적으로성취되었기때문에그이외의모든연구방법은별써불완전하고허위적이고무효과적인것으로생각하여지도록되었을정도다.

여기서잠깐머물러서서이시기에과학이달성한성과를조망해보자. 아마도그렇게함으로써다음에허버트스펜서에의하여착수된종합철학구성의기도를좀더잘평가할수있겠기때문이다.

이 6 년간에글로브, 크라우쥬스, 헤름호르츠, 쥐르등등일군一群의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이중에는화학적스펙토르분석의발견에의하여우리들로부터멀리떨어진천체인별의화학적구성을알수있도록한키르히호프도포함되겠다] 19 세기전반기에는물리학의영역에있어서의대답하고광범한일반화작업을학자들에게허락하지않았던한계를드디어돌파했다. 그들은수년간에모든무기적無機의세계에있어서의자연의통일을증명하고확립했다. 이때이후무슨신비적인‘유체流體’에대하여 - 일찍이물리학자들이각종의힘을해명하기위하여호소해왔던열소熱素나, 자기나, 전기기타의유체에대하여말한다는것은전혀불가능한것으로되었다. 이제야광열, 전기, 자기등을포함한모든물리학적현상은바다의파랑이나베르또는음우음又의진동이생기게하는것과똑같은분자의역학적진동의결과라는것이명료하게되었다.

뿐더러, 우리는낙하는돌이나진행중의열차의운동의에너지를측정하는것과마찬가지로저불가시적인운동을, 분자의진동을측정하기를 - 다시말하면그에너지를계산하기를 - 배워서알게되었다. 물리학은이리하여역학의한부문으로되었다.

나아가서는또, 동일한이수년간에, 우리들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천체 - 은하계속에무수히발견되는태양조차 - 가지구상의모든물체가구성되어있는것과똑같은단순한물체또는요소로구성되어있다는것, 또한지구상에발견되는것과절대로같은분자의진동이같은물리적화학적결과를수반하여거기서도행하여지고있다는것이증명되었다. 만유인력의법칙에따라공간을운행하고있는저천체운동자체도아마대우주의별들사이의공간을몇 10 억, 몇조킬로라는거리에걸쳐전파하는진동의결과에불과할것이다.

화학적현상을설명할적에도이것과동일한열과전기의진동만으로족할것이다. 화학은분자역학의일장一章에불과하다. 그리고온갖형태로표현되는동식물의생명마저도모든생물의생명조직이성립하고있는복잡한, 그런까닭으로또한, 해체하기쉬운화학적물체의광범한계열에있어서의분자 [또는분자속의원자] 의교환에불과하다. 생명이란요컨대극히복잡한분자들의일련의화학적분해와재결합 - 즉화학적, 무기적발효의영향아래생기는발효작용의계열에불과한것이다.

다시같은이연간年間에, 신경계통의세포의생활과정과자극을하나에서타他로전달하는능력이식물및동물의신경생활에있어서의자극전달의기계적설명을제공하는것임이이해되고, 계속해서 1890?1900 년사이에승인되고증명되도록되었다. 이들의연구의결과우리는이제순전히생리학적관찰의영역에머물러그테두리안에서어떻게해서심상心像이나일반적으로인상이우리의뇌수腦髓에심어지며, 어떻게해서그것들이서로작용하고, 그리고어떻게해서그것들에서개념이나관념이생기게되는가를이해할수있는것이다.

우리는이리하여지금은‘연상聯想’이라는것을, 다시말하면어떻게해서새로운인상이묵은인상을재생시켜가는지를이해할수있다. 그결과우리는사유思惟의메커니즘자체를또한파악하고있는것이다.

물론우리는이방면에서‘모든것’을다알기까지에는아직도저히이르지못했다. 우리는겨우최초의일보를내디뎠을뿐이고아직무한히많은것을밝혀나가야하겠다. 과학은오랫동안자기를질식시키고있던형이상학으로부터간신히해방되었을뿐이고, 생리학적심리학이란이광대한영역의연구에막착수했을뿐이다. 그러나

금후의 연구를 위한 공고한 기초는 벌써 닦아진 셈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확립하려고 노력한, 두 개의 별개로 독립한 영역으로 갈라놓는 케케묵은 구분 - 즉 그의 '시간, 공간내'에서 연구해야 할 현상계 [물리적 영역] 와 '시간내'에서만 연구되는 또 하나의 영역 [정신현상의 영역] 이란 구분은 이제 소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일찍이 러시아의 유물론자 세초노프 교수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 - '심리학은 어디에 귀속하며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답은 이미 주어지고 있다. 즉 '심리학'은 생리학에 속하고 생리학적 방법으로 '배워야 한다'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최근의 생리학자들의 연구는 사유의 메커니즘과 인상의 발생과 기억에로 인상이고 정해가는 과정 및 그 전달 등에 관하여 지금까지 형이상학이 우리에게 제공해온 번쇄煩? 한 고찰보다 훨씬 많은 광명을 던져주고 있다.

이리하여 형이상학은 일찍이 는 의심 할 바 없이 자기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던 아성에 있어서 조차 패퇴한 것이다. 심리학의 영토는 자연과학과 유물론 철학에 의하여 점령되고 말았다. 이분야에 속하는 사유의 메커니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일찍이 보지 못한 스파드로 전진 시킨 것은 이들의 자연과학과 유물론 철학이었다.

그러나 이 5,6년간에 나타난 노작 중에서 여타의 모든 명성을 압도한 발군의 저작이 있으니 그것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다.

이미 전세기 [18세기]에는 뷔퐁이,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이르는 경계선에서는 라마르크가, 이지구상에 생존하는 동물은 식물의 다양한 종은 영구 불변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 즉 종은 가변적이어서 환경의 영향 아래 부단히 변화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려고 했다. 일정한 군집에 속하는 상이한 종 사이에 발견되는 동과 적同科의 유사성은 이들의 종이 공통한 선조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리하여 우리가 초원이나 소지沼地에서 보는 각종의 모간毛? 은 동일 종의 선조들의 자손이 아닐 수 없다. -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서로 다른 생존의 제조건 속에서 마주치게 된 변화와 적응의 결과로서 변종해온 자손인 것이다. 또한 낭狼, 견犬, 산견山犬, 호狐와 같은 금일의 종은 기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들 대신에 몇 세 기간에 금일의 낭, 견, 호, 산견을 발생시킨 일종의 동물이 있었던 것이다. 말, 당나귀, 노새 등에 관해서는 그것들에 공통한 선조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고 그 뼈의 화석이고 대의 지질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와 같은 이단적 견해를 토로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었다. 이보다 훨씬 경미한 이설異說을 말한 탓으로 뷔퐁은 교회 재판소의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결국 그는 그의 『박물지』에서 자기의 설을 철회하도록 강제되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아직도 강력했으니 승려들에게 불유쾌하기 짝이 없는 이단적 언설을 주장하려고 결심한 박물학자는 감옥이나 고문이나 정신 병원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이단자들은 극히 신중히 조심조심 말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1848년의 혁명 후에는 다윈과 월레스가 동일한 이단설을 과감히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윈은 용감히 부언하여 이렇게 주장했다. 즉 인간도 또한 완만한 생리학적 진화의 길을 따라 발달한 것이고 인간은 유인원類人猿에서 유래했으며 인간의 '불사의 영혼'과 '도덕적 정신'은 침팬지나 개미의 지혜 및 사회적 습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달해왔을 뿐이다, 라고.

당시 교회의 장로들 의 다윈과 그의 용감하고 유식하고 총명한 학도 헉슬리의 머리 위에 얼마나 무서운 벼락을 떨어뜨렸던가는 주지하는 바다. 헉슬리는 다윈주의의 결론에서 모든 종교의 승려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린 것을 끄집어내서 이를 강조했던 것이다.

투쟁은 격렬했다. 헉슬리는 헉슬리의 머리 위에 얼마나 무서운 벼락을 떨어뜨렸던가는 주지하는 바다. 헉슬리는 다윈주의의 결론에서 모든 종교의 승려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린 것을 끄집어내서 이를 강조했던 것이다.

다윈의 노작은 다른 한 편으로 물리적 물질의 활동, 유기체의 생활, 사회 생활 등 모든 종류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또한 제공하게 되었다. '계속적 발달' 즉 '진화'란 이념과 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개체와 사회가 새로운 조건에 점차 적응을 해나간다는 이념 - 이사상은 새로운 종의 기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다 광대한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이사상이 자연 일반의, 나아가 인간과 그 능력이나 사회 제제도의 연구에도 입된 때, 그것은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인지人知의 전부문에 걸쳐 가장 어려운 사실로 보이던 것을 해명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처럼 많은 성과를 내포한 이원리에 의거함으로써 단일 유기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제제도의 역사까지도 재구성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스펜서를 매개해서 생물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했다. 즉 지구상에 생식生息하는 모든 종류의 동식물이 당초 지상에 존재했던 약간의 훨씬 단순한 유기체에서 출발하면서 어떻게 해서 발달해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헨켈은 인간을 포함한 각종에 걸쳐 가능한 계보의 약도를 그렸다.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훌륭한 성과였다. 그러나 다시 그 위에 인간의 습속, 관습, 신앙, 제도에 관한 역사에 약간의 최초의 과학적 기초를 닦아놓을 수 있게 되었다 - 19세기의 오귀스트 꽁트에게 전혀 결여되었던 것은 바로 이 지식이었던 것이다. 금일 우리 가이역사를 쓸 적에 벌써 헤겔의 형이상학적 정식定式에 호소할 필요도 없고 '생득관념生得觀念'에도, 칸트의 '실체'에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감에도 의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식에 의뢰함이 없이 이 과제를 수행

할수있는데다름아닌이정식이야말로탐구정신을질식시키고그배후에흡사히구름이덮고있듯이매양한결같은무지와구태의연한미신을감추어덮고있었던것이다.

한편으로박물학자들의저작과다른편으로원시사회의제제도와그것에수반하는법률의연구에동일한귀납적방법을적용한헨리메엔및그후계자들의저작덕택으로인류제제도의발달사는최근50년간에동식물의발달사와마찬가지로확고한기초위에놓일수있도록되었다.

물론19세기30년대프랑스의오귀스탄티에리의학파와독일의마우러및‘게르마니스트들’의학파-러시아에서의그계승자는코스토마로프와베리야에프등등이었다-에의한저작들을잊어서는부당할것이다.진화론적방법은,물론훨씬이전부터백과전서파의시대이래습속과제도,나아가서는언어의연구에도적용되어왔다.그렇지만참으로과학적인결과가얻어지도록된것은,수집된역사적사실에대하여박물학자들이식물또는새로운종의기관기관의점차적발달을바라보는것과똑같은방식으로관찰하는태도가학습된이후의일이었다.

물론형이상학적정식도그런대로당시는대체의일반화를하는데유용하기도했다.그것은잠자는사상을일깨워서자연의통일과그영원한생명에대한모호한암시를줌으로써사상을자극했다.19세기의최초의10년대에지배했던것과같은반동의시대에백과전서파와그영국및스코틀랜드의선구자들의귀납적일반화는망각되고더욱이신비주의개개가를올리고있는앞에서물질계와‘정신계’와의통일에대하여감히논술하는데는도덕적용기가요구된때-그런데철학자들에게는바로이용기가결여되고있었던것이다-독일인의잠꼬대같은형이상학마저확실히일반화에의경향을육성하고있었다.

그러나당시의일반화는혹은변증법적방법에의하여,혹은반의식적인귀납법에의하여행하여진것으로그결과는절망적으로막연한것이었다.그중의전자,즉변증법적방법이란본질적으로극히단순하고소박한단정斷定에바탕하고있어그것은꼭고대그리스인들이유성遊星은우주공간을원형으로운행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논증함에있어서원은가장완전한곡선이기때문이라는따위의근거에기초하여있었던것과동곡이음同曲異音에불과하다.이와같은단정의소박한정도와,그리고또증명이전연없음을엄폐하고있던것은막연한의론과애매모호한용어및불명료하고그로테스크할정도로무겁고따분한문체였을따름이다.다른한편으로반의식적인귀납법에의하여얻어진일반화에관하여말할것같으면,그것은언제나관찰사례의극도의부족에기인하는것이었다.-그좋은예를제공하고있는것은최근한바탕파란을일으킨,극히한정된사실에바탕을두고행하여진와이즈만의거창한일반화일것이다.이경우귀납은반의식적인것에불과했는데그의심스러운결론의가치는경솔하게도과장되어,그것이마치다들여지도없는법칙인것처럼받아들여지는결과가되었다.허나그것은사실인즉단순한가정-가설,일반화의맹아에불과한것으로서그결과를실지로관찰된사실과비교함으로써기초적인검증에붙여질필요가있었던것이다.

끝으로이들의일반화는-헤겔의‘정?반?합?’이그예이거니와-너무도추상적이고애매모호한형식으로표현되고있었다.그때문에사상가가실천적귀결을끄집어내려고할때어떠한귀결이라도이끌어내기를허용한것이다.이래서이정식에서[실제로하여진바와같이]바쿠닌의혁명정신과그도레스렌봉기도도출될수있었고마르크스의혁명적자코뱅주의도,그리고또많은사람들을‘현실과의화해’로,다시말하면전제專制와의화해로이끌어간헤겔의이론바‘존재하는것의용인’도,어느것이나이끌어낼수있었던것이다.오늘날도우리의면전에서사회주의자들이빠지고있는여러가지경제학적오류를상기한다면충분할것이다.이들의사회주의자는변증법적방법과경제학적형이상학에집념하는나머지모든국민의경제생활에대한현실적제사실의연구를계을리하고있는것이다.

## 6. 스펜서의 종합철학

인류학 [즉 인간의 생리학적 발달과 종교 및 제제도의 역사적 연구] 이 다른 자연과학의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되도록 된 이래 인류사의 주요한 근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드디어 가능케 되었다. 동시에 또한, 일찍이 지질학의 연구를 방해해 온 성서의 전승과 같이, 역사 연구를 방해하여 온 형 이상학을 최종적으로 일소하는 것도 가능케 되었다.

따라서 허버트 스펜서가 19 세기 후반에 자기의 '종합철학'의 구성을 착수했을 때, 꽁트의 『실증정치학』에 보였던 그러한 오류에는 벌써 빠질리 없을 터이라 생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펜서의 '종합철학'은 일보전진을 의미하는 것이긴 했으나 [이 철학 속에는 종교나 종교의식을 용납할 여지는 없었다] 그 사회학적 부분에는 꽁트의 노작에 못지 않은 큰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는 다음 점에 있었다. 즉 스펜서가 사회 심리학에도 달했을 때, 그는 이 분야를 연구할 적에 자기의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고, 이 방법이 도출해야 할 귀결을 승인하려 하지도 않았다. 예컨대 스펜서는 토지가 사유재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승인했다. 지주는 자기 마음대로 소작료를 인상한 권리 가지기 위하여 토지에서 실제로 일하는 소작인들이 집약集約 경작으로 토지에서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혹은 또, 지주는 토지를 개간하지 않고 놀려두면서도 자기 토지의 주위에서 다른 농민들이 악착같이 일한 결과 자기의 지가가 오르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으니 말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 스펜서는 당장 승인한다 - 사회에 대하여 해롭고 위험하기 짜이 없다고. 토지에 관하여 이러한 폐단을 인정하는 한편, 이것과 같은 결론을 기타의 축적된 부에 대하여 - 공장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광산이나 도크에 대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또한, 그는 사회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엄격히 비판하여 그의 저작의 하나에다 혁명적 강령을 표시하는 '개인대국가'라는 표제를 붙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차차 국가의 방위적 활동을 보전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결국 혼형태 그대로 국가를 완전히 복권하고 다만 근소한 제한을 그것에다 붙여 놓았을 뿐이다.

이런 종류의 모순을 초래한 이유의 절반은 확실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스펜서가 자기의 철학의 사회학적 부분을 구성한 것은 그가 자연과학의 부문을 집필하기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고, 당시 그는 영국의 철학적 급진주의 운동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그는 1851년에 『사회정학 社會靜學』을 썼는데 그 당시 인간의 제제도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는 아직 맹아상태에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하튼 결국 스펜서도 꽁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제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과학이 외의 영역에서 채용한 선입견에 의하지 않고 대상을 그 자체로서 고찰하지를 않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스펜서는 사회 철학에 착수하는 대목에 이르자마자, 물리학적 제사실의 연구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극히 기만적인 방법 - 즉 유사類似 [유추類推]의 방법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그는 술한 선입관념을 정당화 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금일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과 사회학이란 두 부문에 걸쳐 동일의 방법에 의하여 구성된 참다운 종합철학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스펜서는 미개발인의 원시적 제도를 연구하는데는 가장 부적당한 인물이었다는 것도 부언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그는 태반의 영국인에 공통한 결함 - 즉 타국민의 습속 또는 관습에 대한 물 이해를 일축 확대하고 있다. 제임스 르즈와 같이 극히 충명하고 날카로운 영국인도 일찍이나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로마법적인 인간인 데아일랜드인은 관습법의 인간이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의 상호 이해는 가로막혀 있다."고. 그런 데 이 절의 문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특성은 일단 영국인이 '열등인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이르면, 다시 더 육명 백한 것으로 된다. 스펜서의 경우가 바로그렇다. 자기의 부족에 대하여 품는 미개인의 존중 尊崇의 염念이나 아이슬란드의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이 의무로 본 '혈수 血讐'를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 종세제도 시에 있어서의 투쟁으로 장식된 파란 만장의 진보적인 생활을 또한 그는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이들의 시대에 존재했던 권리의 관념은 스펜서에게 전혀 불가 해한 것이었다. 그러한 것 속에 그는 야만, 미개, 잔인성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 점에서 그는 오귀스트 꽁트에 비해서도 완전히 후퇴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꽁트는 제제도의 진보적 발전 중에서 중세가 수행한 중요 한 역할 - 그것은 당시 프랑스에서 너무도 등한시된 관념이었다 - 을 이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 더욱이 이 점은 가장 중대한 오류였지만 - 스펠서는 헉슬리와 기타의 여러 사람들과 같은 식으로 '생존 경쟁'의 의미를 전혀 부당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즉 그는 이 종의 동물 간의 싸움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고, 많은 조류가 곤충을 먹으며 살고 있다는 등의] 뿐만 아니라 각각의 종의 내부에서 동일 종에 속하는 개체간에 있어서의 생존 수단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으로서 생존 경쟁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스펠서나 기타의 다윈주의자들이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격렬한 투쟁은 물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부당한 생존 경쟁 관에 다윈 자신이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가를 여기서 논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확실하다. 즉 『종의 기원』이나 오고서 12년이 지나 다윈이 『인류의 기원』을 썼을 때 그는 생존 경쟁이란 개념을 각각의 종의 내부에 있어서의 격렬한 투쟁이라기보다 훨씬 광범위의, 좀 더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는, 이제 2의 저작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상호 적동정과 사회성의 감정이 가장 잘 발달하고 있는 동물의 종은 자기의 생존을 보존하고 또 많은 자손을 남기고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진다."고.

그리고 그는 각 개개체가 지닌 사회적 본능이 자기 보존의 본능보다 훨씬 강력하고 항상적 일뿐더러 훨씬 활발하다고 하는 생각을 전개하기 조차 했다. 이러한 견해는 몇 사람의 '다윈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다.

『인류의 기원』에서 다윈이 이 문제를 다룬 여려 장은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의 성질과 발달에 관한 극히 사사로운 관념을 만들어 낼 기초로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과테는 근소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것을 벌써 예견하고 있다]. 그런 데이여 여려 장은 주의를 끌지 않고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겨우 1879년에 이르러 서아시아의 동물학자 케스레르가 행한 강연에서 생존 경쟁과 상호 부조와의 사이에 자연 속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발견한다.

'종의 진보적 진화를 위해서는'- 그는 약간의 예를 들면서 말한다 - '상호 부조의 법칙은 상호 투쟁의 법칙보다 훨씬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그로부터 1년 지나 러스산은 「생존 경쟁과 투쟁을 위한 결합」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때를 같이 해서 뷔히네르는 『사랑』이란 저작을 간행했는데 거기서 그는 최초의 도덕적 관념의 발달에 대하여 동물 간의 동정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그럴 적에 그는, 오로지 친자간의 사랑과 보살핌의 정에 만주목한 결과 자기의 범위를 공연스레 좁히게 되고 말았다.

나는 1890년에 졸저 『상호 부조론』에서 케스레르의 이념을 논증, 발전 시켜 정확한 자연 관찰과 인간의 제도사 制度 史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의거하면서 이 이념을 인간에 까지 확대했는데 그 것은 손쉬운 과제였다. 상호 부조는 실제로 동물의 개개의 종이 그들에 적대적인 자연력에 대하여, 또한 다른 적대적인 종에 대항하여 자기의 생존 경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였을 뿐더러 동시에 진보적 진화의 주요한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상호 부조는 가장 약한 동물에 대해서 조차 오래 사는 기회를 [따라서 또 한 경험의 축적을] 주고 그들에게 자손과 지적 발달을 보증한다. 그 결과 상호 부조를 보다 많이 실행하는 동물의 종이다른 종보다도 살아남을 뿐더러 그것들이 육체적 구조와 지적 발달의 우월성의 덕택으로 - 각기의 강纲 [곤충류, 조류, 포유류] 중에서 - 제 1 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소이연所以然이다.

스펠서는 자연의 이 근본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각기의 조이 내부에 있어서의 생존 경쟁, 한 조각의 식물 음식물을 둘러싼 '이빨과 발톱을 갖고 서하는' 사정 없는 싸움을, 스펠서는 아무런 증명도 요하지 않는 원리로서, 공리 公理로서 승인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 '검사 기사의 피로 더럽혀진' 자연이라 묘사한 것이 동물 세계에 관한 스펠서의 관념이었다. 겨우 1890년이 되고서야 그는 『19세기』 지상誌 上에 발표한 논문에서 어느 정도 까지 동물의 세계에서의 상호 부조 [오히려 동정의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방면에서의 사실의 수집과 관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스펠서는 마침내 죽을 때까지 원시인을 '이빨과 발톱에 의한' 이웃 사람의 수중에서 먹이의 최후의 한 조각까지 탈취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하는 야수와 같은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릇된 전제를, 결론을 도출하는 기초로서 승인한 스펠서가, 일련의 오류와 미망에 빠짐이 없이 자기의 종합 철학을 구성할 수 없었음은 명백한 일이라 하겠다.

## 7. 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역할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것은 스펜서만이 아니었다. 흉스에 충실한 19 세기의 전철학은 원시인을 금수의 무리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들은 소가족으로 분립하여 살며 상호간에 식물과 여자를 구하여 싸우고 있어 자비로운 권력이나 타나서 애비로 소그들 사이에 평화가 도입되는 것으로 보기로 고집해 왔다. 혁슬리와 같은 박물학자 마저이 러한 흉스의 터무니 없는 견해를 반복하여 [1885년에]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즉 소수의 우수한 개인들에 의하여 '최초의 사회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인간은 당초 '만인에 대한 각인의' 싸움을 하며 살고 있었다고 [그의 논문 「생존 경쟁·자연의 법칙」 참조]. 이처럼 혁슬리와 같이 학식 있는 다원주의자 마저 사회가 인간의 손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동물계에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선입견의 뿌리 깊은은 이처럼 강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선입견의 역사를 더듬어 간다면 그 근원이 종교 속에 있다는 것은 쉽게 발견될 것이다. 요술자 妖術者, 기우사 祈雨師, 샤만교의 주사 呪師, 내려와서는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승려, 그 후는 그리스도교의 목사 등 의비 밀결 사는 항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끔 하려고 노력해 왔다. 즉 '세계는 죄 속에 매몰되어' 있어 주사나 요술사나 성자나 목사들에 의한 인자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악의 힘이 인간을 사로잡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들만이 인간이 범한 죄를 벌하기 위하여 온갖 불행을 인간의 머리 위에 퍼붓는 일이 없도록 마신 魔神을 달랠 수 있다고.

원시 그리스도교는 확실히 승직자 僧職者에 관한 한 선입견을 약화하려고 했다. 헌데 그리스도교회는 '영원의 불'에 대한 복음서 자체의 말씀에 의거함으로써 도리어 그 것을 강화하고 말았다.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 여가사자 可死者로서 이 세상에 강림했다는 신의 아들 예수라는 관념 자체도 역시 이러한 견해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후 '성스러운 종교재판소'에 대하여 그 희생자들에게 극히 잔인한 고문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천천히 회개할 시간의 여유를 줌으로써 저 세상에서의 영겁의 고통을 면하게 한다는 구실 아래 희생자들을 화형에 처하여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더욱이 가톨릭 교회만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같은 원리에 충실한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죄' 투성이로 된 인간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새로운 고문과 공포를 발명했다. 지금도 천사람 중의 구백구십구명 까지가 한 발 虐魅, 지진, 역병, 유행病 따위의 자연 재해는 죄 많은 인류를 정도 정道로 바로 잡기 위하여 모종의 신이 하늘에서 내리신 업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는 그 대학에서 태고난 사악한 성질이란 신앙을 지지해 왔고, 지금도 역시 지지하고 있다. 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필요성과 '도덕법' [그것은 교묘한 바꿔치기로 성문법과 동일시되게끔 만들어진다.] 의 침범에 대하여 과하여 지는 형벌에 의하여 사회 속에서도 덕적 요소를 고취하기 위하여 작용하여야 할 권력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것, 그리고 이 권력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것, 그것은 국가의 사활에 관한 중대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강권의 힘으로 도덕적 원리를 부식할 필요성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당장 지배자들의 고매한 사명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말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전 교육 - 종교적, 역사적, 법률적, 사회적인 전 교육은 인간이 만약에 그들이 이제 멋대로 방치될 것 같으면 야수로 타락하고 만다고 하는 사상으로 침투되어 있다. 강권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서로 물어뜯을 것이다. '군중'에게서 기대되는 것으로서는 단한 가지 야수성과 만인에 대한 각인의 싸움이 있을 뿐이다. 이들의 군중은 만약 그들 위에 선정된 사람들 - 승려, 입법자, 재판관 및 그들의 조수인 경관과 사형 집행인이 없었던들 반드시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반적 전투를 못하게 제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야말로 사람들을 교화하여 법률을 존중케 하고, 규율을 학습케 하고, 사람들의 '고집센 마음 속에' 고상한 관념이 발달하여 언젠가는 형태刑答와 감옥과 교수대가 금일보다 그 필요성을 감소하게 되는 날까지 사람들을 엄격히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1848년에 추방된 어린 왕이 '가련한 나의 신민들이여! 짐이 없으면 너희들은 멸망하리라'고 말한 것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또 자기네 영국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일족의 자손이고, 그런 까닭으로 '열등인 종' 위에 군림하여 선정을 베풀어 줄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던 영국의 한 상인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다.

헌데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과대 망상적 자부심을, 어느 국민이 진대다수의 잘난 체하는 치들 속에서 발견하는 일이 없을 것인지.

이와반대로인간사회와제도의발달에관한과학적연구는이상과는전혀다른결론으로우리를이끌어간다. 그것은다음과같은것을보여주고있다. 즉상호부조와방위및평화를일반적으로확보할목적으로인류가창조한습관이나풍속은대개이름도없는군중에의하여산출되었다는것이곧그결론이다. 그리고이습관이야말로금일생존하고있는동물들과마찬가지로인간에대해서도또한생존경쟁에서살아남기를가능케한바의것이다. 소위인류의지도자, 영웅, 입법자들은사회속에관습법에의하여만들어져온것이외에아무것도역사에첨가하지않았음을과학은우리에게명시하고있다. 그들중의최량의지도자, 영웅, 입법자라일컬어지는사람들조차이들의관습법적제도에다형태를부여하고그것을인가했음에불과하다. 그러나이들의자칭비호자庇護者들의태반은그들의개인적권력의형성을방해하는그런관습법적제도를타파하거나아니면자기의개인적이익또는자기의계급의이익에합치하게끔그것을개악하려고어느시대에나노력했던것이다.

빙하시대의어둠속에파묻혀있는아득히면태고시대에도사람들은사회를이루어생활하고있었다. 그리고이들의사회속에서소중히준수되어온일련의습관과제도들이만들어져공동생활이가능케되고있었다. 그후도인류발달의전과정을통하여새로운조건들이발생함에따라새로운형태의사회생활, 상호부조, 평화의보장이이들의이름도없는군중의창조력에의하여형성된것이다.

다른한편으로근대과학은다음과같은것을아주명료하게보여주고있다. 즉일체의법률은, 그상상의기원이어떠한것이건간에 - 그것이신으로부터나왔다고주장되건, 혹은또그것이현명한입법자의손으로만들어진것이라논하여지건 - 여하튼, 일체의법률은기존의관습을고정하여항상적恒常의형태로결정結晶시키거나아니면그것을확대하거나했음에불과하다는것이다. 무릇고대법전은후세에전하기위하여문자로기록되거나혹은돌에새겨넣어진관습과전승傳承의수집에불과했다. 다만이경우법전은이미만인에의하여받아들여지고있는관습외에무장한호전적소수의부자들의이익에봉사하는약간의새로운규칙을부가하는것이상례였다. 이들의소수자에게유리한불평등과예종隸從의새로운관습은이러한법규에의하여강화되도록되는것이었다.

이를테면모세의법은이렇게말하고있다. ‘너희들죽이지말라, 너희들품치지말라, 너희들거짓증언을하지말라’고.

그런데이들의훌륭한행동의규칙에다그는이렇게부가했던것이다. ‘너희들이웃사람의처, 그의노예, 그의당나귀를취하지말라’고.

이리하여그결과모세의입법은오래도록노예제를합법화함과함께부인을노예나태마? 馬와같이다루기 를허락한것이다. 그후그리스도교는‘너희의이웃을사랑하라’고말했다. 헌데여기서도당장사도바울의입을 통하여이렇게부가되었다. ‘노예는자기의주인에게복종해야한다’, ‘신으로부터나오지않은권력은없다’고. - 이와같이해서주인과노예와의구별을합법화하고, 신성화하고, 당시로마를지배하고있던악당들의권력을성화聖化한것이었다.

그리스도교의진수라할만한용서라는지고의이념을가르치는복음서조차다른편으로는언제나복수하는 신에관하여말하고그것에의하여복수를설교하고있다.

로마제국몰락후의이른바만족蠻族들 - 고르인, 론고바르도인, 게르만인, 색손인, 슬라브인 -의법전에 있어서도사정은마찬가지다. 그들의법전은일찍이행하여지고있던복수의법칙 [눈에는눈을, 이에는이를, 상해에는상해를, 죽음에는죽음을] 대신에당시일반으로보급되어있던의심할여지없이좋은관습, 즉상해나 살해에대하여배상금을지불한다는관습을입법화했다. 이와같이만족의법전은씨족시대에지배한혈수제血讐制와비교하면진보한것이기는했다. 허나동시에그것은이시대에희미하게나타난자유인의계급분화를확립하게된것이다.

노예에대해서는얼마만큼의배상금을지불해야하고 [이경우배상금은노예의주인이받는다], 자유인의경우는얼마, 수장首長의경우는얼마의금액을, 이런식으로이들의부족법전은규정했다. 후자의경우배상금은가해자에대하여필생의노예를의미할만큼고액이었다. 이와같은배상액의차이가규정되도록된애당초의사상은틀림없이싸움에서살해된수장의가족은가장을살해당한보통자유인의가족의경우보다훨씬많은것을잃었다고하는데있었다. 그런까닭에전자는후자보다더많은배상금을받을권리가있다고생각된것이다.

그러나이러한관습이법률로전화轉化함과함께인간의계급분화는그후오래합법화하게되고금일까지우리는이러한분화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을만큼견고하게법제화하는결과로되었다.

이것과같은것이금일에이르기까지모든시대의입법에서도또한발견된다. 말하자면전시대에행하여진억압이입법화되어항상그뒷시대에전해지는것이다. 이리하여페르시아제국의부정은그리스에전해졌다. 마케도니아의부정은로마로이행했다. 로마제국과동방의참주제僭主制의압제와잔학은갓생긴어린만족의여러나라와그리스도교회에전송傳送되었다. 이와같이해서과거는법률에의하여미래를얽어매는것이다.

사회생활에필요불가결한보장의전부, 민족적생활양식이나농촌공동체나중세제도시에서의사회생활형태등의전부, 또한부족간의, 내려와서는그후국제법의기초로된공화제도시간의, 관계의전형태 - 한마디로 말해서배심원의재판제를포함한상호부조와평화옹호의형태의전부는무명의민중의창조적천재가산출한것이다. 이에반하여고대의법전에서금일에이르는모든법률은언제나다음과같은두가지요소에서구성되고있다.

즉그하나는만인에의하여유익한것으로승인된일정한관습적생활형태를확인, 고정시킨것이다. 다른편으로, 둘째요소는기준관습에다붙인부가물 - 그것은종종단순한부가물이긴하나음험한방식으로기준관습을정식화定式化한것으로서, 그의도하는바는주인, 전사, 왕후王侯, 승려등의발생도상의권력을착안시켜 굳혀놓는데에, 즉그들의권력을강화하고신성화하는데에있다.

과거 40 년간에행한사회발전에관한양심적인많은학자들의과학적연구는이상과같은결론으로우리들을 이끌어준다. 앞에서말한그러한이단적결론을학자들자신이대담하게정식화한것은물론아니다. 그러나주의 깊은독자라면그들의노작을읽고이러한결론에도달할것은필연적이다.

## 8. 근대과학에 있어서의 아나키즘의 지위

아나키즘은 19 세기의 위대한 지적 운동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앞에 나온 여러 장에 논술한 바에서 시사되고 있다. 아나키즘은 인간의 사회 생활을 포함시켜 전자연을 포함하는 현상의 역학적 해명에 바탕을 둔 우주관이다. 그 연구 방법은 자연 과학의 방법이니 방법에 의하여 일체의 과학적 결론이 검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경향은, 자연은 온갖 현상 - 인간의 사회 생활과 그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포함 시켜 - 을 포섭하는 종합 철학을 기초 닦음, 그럴적에 전술한 바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꽁트나스펜서가 범한 오류에 빠지지 않고서 그것을 수행함에 있다.

그런 까닭에 아나키즘은 분명코 근대 생활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여태껏 낡은 형이상학적 신앙에서 해방되지 못한 정치적 당파나,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로는 사회주의 적당파가 제공하는 해답과는 다른 해답을 주고 또한 이들의 당파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자연과 인간 사회의 완전히 역학적인 관념의 구성은, 사회 생활과 그 발달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학적 부문에서는 이제 막 착수했을 뿐이다.

허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확립된 몇 가지 성과는 -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었음에 불과하다 - 전술한 성과를 벌써 뒤고 있다. 법 철학에서도, 도덕 이론에서도, 경제학에서도, 또한 제국민과 제제도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아나키스트들은 형이상학적 결론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결론의 자연 과학적 기초 붙임을 탐구하는 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헤겔, 셀링, 칸트 등의 형이상학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로마 법이나 교회 법의 주석자 註釋者들, 학식 있는 국가 법의 교수들, 형이상학적 정치 경제학자들의 영향 아래서 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연 과학자의 견지에서 최근 4,50 년간에 수행된 일련의 업적에 입각하면서 이들의 학문 영역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주려고 노력한다.

각 종 형이상학적 관념, 이를테면 '세계 정신', '창조적인 자연력', '물질의 사랑의 흡인력', '이념의 화신', '자연의 목적과 그 존재 이유', '불가지적 不可知 的 인 것', '정신의 영기 靈氣'에 고취된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된 '인류' 따위의 관념이 이제야 유물론적인 [역학적 내지 동력학적] 철학에 의하여 포기되고 이들의 용어의 배후에 감추어 진 일반화의 맹아가 구체적인 사실의 언어로 번역되었듯이, 우리는 사회 생활의 사실에 대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 가려고 한다.

형이상학자는 인간의 지적 생활과 감정 생활이 '정신의 내재적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라고 자연 과학자에게 설득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연 과학자는 이와 같은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명? 지식? 감정의 제 현상에 대한 자기네의 연구를 참을 성 있게 추진하여 이것들이 모두 물리적, 화학적 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들의 자연 법칙을 해명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똑같이 헤겔의 학설에 따라 일체의 진화는 '정? 반? 합?'을 표현한다느니 '법의 목적은 정의의 확립이고, 그것은 지고의 이념의 물적 실체화'라느니 하는 따위의 설교를 아나키스트에게 들려줄 때, 혹은 또 '생의 목적이라 무엇인가?'라고 아나키스트에게 질문할 때, 그는 마찬가지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즉 '자연과 학이 현대처럼 발달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케케묵은 것'을 믿고 있는 낡아빠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은, 또한 자연을 '의인화 擬人化'하여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물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으로 자연을 본원 시적 미개인의 말투로 여태껏 지껄이고 있는 뒤떨어진 인사가 현재도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라고.

아나키스트는 이러한 '듣기 좋은 말'에 승복하는 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은 언제고 반드시 단지 무지 無知 를 - 즉 불완전한 연구를 - 감추는 것이거나 아니면 더욱 나쁘지만 미신을 감추는데에 유용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아나키스트가 이런 종류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을 마이동 풍 馬耳 東風 으로 흘려버린다. 그들은 자연 과학적 방법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사회 관념 및 제도의 연구를 계속한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발전은 이들의 형이상학적 정식을 갖고 판단할 때 생각하기보다 사실 인증 훨씬 무한히 복잡한 [또한 실천적 목적이 대하여 일층 흥미로운] 것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최근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이상을 구성함에 있어서 추종하는 변증법적 방법이란 것에 대하여 다변 多辯 을 놓고 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어느 자연 과학에 의해서도 이것이 승인되지 않듯이, 우리도 이 방법을 승인하지 않는다. 금일의 자연 과학자에 대하여 이 '변증법적 방법'이란 것은 오래전에 이미 사멸한 것, 다행

히 과학의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것을 상기시킨다. 19 세기에 있어서의 여하한 발견도, - 역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리학, 인류학에 있어서의 어느 발견도 변증법적 방법에 의하여 성취된 것은 아니다. 무릇 이들의 발견은 유일의 과학적 방법인 귀납법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은 꽃의 피어남과 같이, 또한 개미나 벌의 사회 생활의 발전과도 같이, 자연적 현상이니까 우리 가 꽃에 서 인간으로, 또한 해리 해狸의 정주지 定住地에서 인간의 도시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때,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에 극히 유효했던 방법을 저버리고 형이상학의 영토에서 다른 방법을 빌려 올까닭은 조금도 없는 것이다.

자연 과학의 연구에 사용된 귀납법은 그 효능이 입증되었고, 19 세기 백년간에 그이 전의 과거 이천년에 걸친 기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과학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리고 19 세기 후반에 인간 사회의 연구에 이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버리고 헤겔이 부활시킨 중세 스콜라 철학으로 되돌아가도록 요구되는 어느 대목에도 마주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자기의 부르주아적 교육을 신봉한 자연 과학자들이다원주의의 과학적 방법에의 거한 답시고 우리에게 설교하기를 '너희보다 약한 자를 모두 절멸하라. 이야말로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말할 때에 도 이들의 학자가 사도 邪道에 빠지고 있다는 것, 그 따위 법칙은 있지 않다는 것, 자연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결론은 전면적으로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동일한 과학적 방법에의 하여 손쉽게 논증할 수 있었다.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끔 만들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을 할 수 있다. 즉 부의 불평등은 '자연의 법칙'이고 자본주의적 착취는 훨씬 유리한 사회 조직의 형태라고 하는 명제 말이다. 다른 아님 자연 과학의 방법을 경제적 사실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부르주아 사회 과학 - 정치 경제학을 포함해서 - 의 이른바 '법칙'이란 것은 법칙 근처에도 못 간 것이고, 단순한 주장 또는 가설에 불과 할 뿐 더러 아직 실제로 검증된 일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두서너 가지 더 부언하겠다. 과학적 연구가 풍부한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어서다. 즉 연구가 일정한 목적을 갖고 또 그리고 특정의 정확히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코자 하는 의도를 갖고 서 계획된 때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연구는, 해결을 위하여 제기된 문제와 우리의 세계관의 기본 선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명료하게 이해되면 될 수록 더욱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문제가 우리의 세계관의 일반적 테두리 속에 확고히 편입될 수록 그 해결도 보다 용이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아나키즘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겠다. 즉 '여하한 사회 형태가 소여 所與의 사회에 있어서, 따라서 또한 인류 일반에 있어서 행복의 최대량을, 그런 까닭으로 또 생활력의 최대량을 가장 잘 보증할 것인가?' - 나아가 '여하한 사회 형태가 가장 잘이 행복의 총계를 양적으로 나질적으로 성장 발달 시킬 것인가, 즉 행복을 보다 완전하고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되게 할 것인가?'라고.

이것은 또 겸하여 진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진화를 이러한 방향으로 촉진시키고자 하는 소망이 아나키스트의 사회적, 과학적, 예술적 등등의 활동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 9. 아나키스트의 이상과 선행의 제혁명

아나키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 생활의 지시하는 바에서 나온 것이다.

1789년?93년의 프랑스 대혁명의 동시대인인 고드윈은 혁명기에 혁명의 제력 諸力에 의하여 탄생한 정부 권력이 이번에는 역으로 혁명 운동의 발달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된 사정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다. 그는 또 영국의 회의 그늘에 숨어서 영국에서 무엇이 행하여지고 있었던가를 알았다. 그것은 공유지의 강탈이고, 유리한 정부 관직의 매매이고, 빈자의 아이들이 영국 전국에 파견된 특별 계원에 의하여 모집되어 작업장에 몰아세워지 고랑 카시아의 공장에 보내어지고, 거기서 폐를 지어 죽어갔다는 것 등이었다. 고드윈은 또 다음 사실을 이해했다. 즉 정부는, 가령 그것이자 코뱅당의 '유일불가분의 공화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혁명을 - 사회적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 혁명 정부라 할지라도 모든 정부가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의 수호자이고 특권의 보존자라는 이유만에 의해서도 머지 않아 혁명의 장애물로 전화 轉化 한다는 것이다. 혁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법률, 권력, 질서, 재산권 기타 노예적 과거로부터 계승한 각종의 미신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나키즘의 사상을 고드윈은 이해하고 표명했던 것이다.

고드윈 뒤에 나타난 제 2의 아나키즘이론가 푸르동은 1848년의 좌절한 혁명을 체험했다. 그도 역시 그의 눈으로 공화국 정부가 범한 범죄를 바라보고 동시에 루이 브랑의 국가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확신했다. 1848년의 운동기간에 얻은 체험의 생생한 인상 아래 그는 『(19세기에 있어서의) 혁명의 일반적이념』을 쓰고 여기서 대담하게 국가의 폐지와 아나키를 선언했다.

끝으로 인터내셔널에 있어서도 아나키즘의 이념은 마찬가지로 혁명 직후 즉 1871년의 파리 코뮌 뒤에 성숙했다. 코뮌의 평의회 - 그것은 당시의 전 혁명 당파의 대표 [자코뱅주의자, 블랑키스트, 국제주의자 등]를 매우 적절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었는데 - 의 완벽한 혁명적 무력, 런던에 설치된 인터내셔널 총무위원회의 마찬가지 무능 및 영국에서 발송하는 지령에 의하여 파리의 운동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도유해한 요구권 - 이와 같은 두 가지 교훈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바쿠닌을 포함한 인터내셔널의 여러 성원들은 일체의 권력의 이해 독에 대하여 - 비록 그것이 코뮌이나 노동자의 인터내셔널에 있어서처럼 자유로 선출된 것이라 할지라도 -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 매년 개최하도록 된 대회 대신에 1871년에 런던에서 가만히 소집된 비밀 협의회 석상에서 채택된 인터내셔널 총무위원회의 결정은 노동자의 국제 결사에 구축된 정치 권력이 얼마나 뾰렷한 것인가를 백일 하에 폭로했다. 이 불행한 결의의 결과, 그때까지 경제적 혁명적 투쟁, 즉 고용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 조합의 직접 투쟁에 기울여 왔던 인터내셔널의 힘은 정치 운동과 선거와의 회 운동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힘이 헛되이 낭비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 결의는 런던의 총무위원회에 대한 라틴 연합 - 스페인, 이탈리아, 쥬라 및 베르기의 일부에 의한 공공연한 반항을 일으켰다. [프랑스에서는 인터내셔널은 엄중히 금지되고 있었다.] 아나키즘 운동은 이 반항에서 발생하여 금일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아나키즘 운동은 언제나 어떤 거대한 실천적 교훈의 인상을 받고 발생했다. 그것은 생활 자체의 훈계에 서나온 것이다. 허나 일단 발생하고 보면, 그것은 즉시 자기의 이론적, 과학적 표현과 기초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과학적이라 함은 불가해한 은어 隱語로 가장 하지도 않거나 와케 케묵은 형이상학과 결부하는 것도 아니라 그 시대의 자연 과학 속에 자기의 기초를 발견하고 스스로도 자연 과학의 한 부문 部門으로 전화하려고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아나키즘은 자기의 이상의 전개를 위하여 꾸준히 일했다.

어떠한 투쟁도, 만약 그것이 무자각한 것이라 한다면 - 만약 그것이 자기의 목적의 구체적, 현실적 파악을 결하여 있다면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파괴와 파괴로 이끌어 가는 투쟁의 시기에, 파괴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출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 관념을 마음 속에 갖고 있을 것, 이것이 긴요하다. 현재 존재하는 것 대신에 새로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에 관한 소나 마명확한 이미지를 머릿 속에 그리지 않고서는 지금 존재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기 조차 불가능 할 것이다. 현존제도의 비판자라면 누구나 그 심중에 의식적으로 선무의식적으로 건 이상 - 즉 보다 나은 것에 대한 관념 - 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자본주의를, 또는 전제주의를 파괴하자. 그런 뒤에 무엇이 그 뒤에 올 것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만에 의하여 힘이 산출된 예는 없다. 사실인즉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가 공격하는 것 대신에 새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 열마쯤의 관념을 품고는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러시아에서 전제주의를 파괴하기 위하여 몸을 바친 투사들의 어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영국형 또는 독일형의 헌법의 수립을 마음 속에 품고 있다. 다른 이는 아마도 자기네의 당의 강력한 독재 아래 종속하는 공화국을, 또는 프랑스형의 군주주의 적 공화국을, 혹은 또 북미 합중국형의 연방 공화제를 꿈꾸고 있다. 끝으로 제 3 의사람들은 국가 권력을 일층 제한할 것을 - 즉 서로 연합의 메뉴대로 결합된 각 도시, 코뮌, 노동 조합 및 기타 모든 집단에 다 보다 큰 자유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나, 현재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에 대체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의 명료한 또는 막연한 무언인지의 관념을 갖고 있다. 즉 국가 자본주의가 아니면 국가 공산주의를, 그것도 아니라면 끝으로 농업 생산물과 공업 생산물과의 생산, 교환, 소비를 위한 소간에 공산주의적 결사의 관념을 마음 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다.

각 당파는 이와 같이 미래에 관한 자기의 관념을 갖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정치? 경제 생활의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각 당파가 제각기 판정을 하는데도 움이 되는 이상이고 그것은 또 각 당파가 그 이상에 접근하고 각자의 목적을 향하여 좀 더 잘 전진하기 위한 행동 수단을 발견케 한 것이다.

아나키즘은 일상 투쟁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나키즘도 또한 애써 자기 자신의 이상을 구상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아나키즘의 이 이상, 이 목적, 이 희구는 그것을 달성하는 행동 수단의 면에서 아나키스트들을 마침내 다른 일체의 정치적 당파로부터, 마찬가지로 또 대개의 경우 사회주의적 당파로부터도 분리시키게 되었다. 왜냐하면 후자의 제당파는 구래舊來의로마적? 교회 법적 국가의 이상을 보유하고 이것을 그들이 꿈꾸는 미래 사회로 전하여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 말이다.

## 10. 아나키즘

각종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고찰에 이끌려, 그리고 또 최근의 역사의 교훈에 유의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나키스트는 국가 권력을 수중에 넣으려고 노력하는 일체의 정치적 당파와는 전혀 다른 사회관을 구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마음 속에 그리는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거기서는 각 성원 간의 관계가 과거의 억압과 횡포의 유산인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지를 않고 또한 일체의 권력자 [그 권력이 선거에 의하여 얻어졌건 상속권에 의하여 얻어졌건 간에]에 의해서 규제되는 일이 없이, 오로지 자유로 성립한 상호의 합의에 의하여,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유로승인된 습관이나 풍습에 의하여 규제되는 그런 사회이다. 이들의 습관은 법률이나 미신의 영향 아래 경화되거나 고정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생활의 새로운 제요구와 과학 및 발명의 진보에 부응하고 또 한 점 한 점 합리적으로 되고 점점 숭고한 것으로 되어가는 사회 이상의 발달에 일치하여 부단히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하여 - 여기에는 남에게 자기의 의지를 강제하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통치도 없고, 생활에 있어서의 일체의 정체도 없다. 거기에는 자연의 생활 자체에 보이는 바와 같은,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느리게 진행하는 끊임 없는 진진이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각 개인에게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고 각자 타고난 천분을 그리고 그 개성을 - 요컨대 각자 자기 속에 갖고 있는 독자적 개성적인 것을 피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여하한 행위도 사회적 형벌의 공포나 초자연적인 신비적 보복의 두려움에 의하여 개인 위에 과제하여지는 일은 없다. 사회는 개인에 대하여 이 개인이 소여 시점에 수행하기를 자발적으로 승낙 아니하는 일을 일체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만인에 대하여 완전한 평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강제도 없는 평등인의 사회를 승인한다. 더욱이 이러한 일체의 강제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평등인의 사회에서는 성원의 반사회적 행위가 사회에 대하여 중대한 위협으로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자유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현대의 우리들의 사회보다도 훨씬 잘이들의 반사회적 행위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금일의 사회는 사회도덕의 옹호를 경찰, 스파이, 감옥 - 요컨대 그것은 범죄의 대학인 바 - 간수, 사형집행인 및 재판관들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반면, 자유인의 사회는 무엇보다도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일까지 이들의 기본 원칙을 실제로 실현한 사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희구는 어느 시대에나 인류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일류의 어떤 부분이, 비록 일시적이거나 미종래에 그들을 억압해온 권력을 전복시키는데 성공했을 때, 혹은 또 뿌리를 내린 불평등 [노예제, 농노제, 전제, 일정한 카스트 또는 계급의 지배권]을 배제하는데 성공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운동 자유와 평등의 빛이 사회에 침투했을 때, 이런 때에는 언제나 민중이, 억압된 사람들�이, 전술한 기본 원칙을 비록 그 일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실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키즘은 하나의 사회 이상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법률을 규정해 주기를 바라왔던 거의 모든 철학자, 정치가들이 고취해온 것과는 본질적으로 질이 다른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아나키즘은 일찍이 한번도 특권 계급의 이상이었던 일은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때에 따라 소간자각한 대중의 이상이었다.

그렇지만 아나키즘의 사회 이상을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왜냐하면 금일의 용어 법으로 말하면 '유토피아'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란 의미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유토피아'란 말은 저술가가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관념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회 속에 성취되고 있는 사물의 관찰에 기반한 관념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토피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플라톤의 공화국, 법왕들이 몽상한 보편적 교회, 나폴레옹의 제국, 비スマ르크의 몽상, 신생이란 위대한 이념을 초래해야 할 구세주의 출현을 대망하는 시인들의 메시아니즘 등이 곧 그것이다. 그렇지만 아나키즘과 같이 사회의 진화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제 경향의 연구에 기초를 둔 미래상에다 '유토피아'란 말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여기서 유토피아적 공상의 영역을 벗어나 과학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유토피아 운운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경향이 재삼 인류사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니만큼 더욱 더 그릇된 견해라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이 야말로 이른 바 관습법 - 즉 유럽에서 5 세기에서 16 세기까지의 기간에 통용해온 법의 원천이 되어 왔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3 세기 간 국가적

생활형태의실체를견문한후, 이제야다시금문명사회속에대두하게되었다. 문명사를연구한사람이라면누구라고그중요성을간과하는일은없을것이다. 이러한관념에바탕을두고우리는아나키즘이가능한이상, 실현될수있는이상이라고확신한다.

물론사람들은이렇게말할것이다 - 이상이실현되는것은먼미래의일이다, 라고. 하지만이말에대하여우리는잠깐 18 세기말의일을상기해보자. 북미합중국이건국된일말이다. 군주제이외의방식으로상당히광범위한영토에걸친사회를구축코자하는희구는어리석은생각이라고보였던것이다. 헌데이제는남북양아메리카의여러공화국들이, 다음으로는프랑스공화국이엄연히존재하고있음은, 공화주의자쪽이아니라군주주의자쪽이바로‘유토피안’이라는것을증명하고있다. ‘유토피안’이란자기의개인적소원에지배되어서이미얼굴을보여주고있는새로운경향을주시하지않는사람이다. 또는벌써과거의것으로되어버린사물에다지나친안정성을부여하고그것이과거적, 일시적인역사적조건의소산에불과하다는것을생각해보지도않는사람을두고하는말이다.

이연구의첫대목에서말했듯이, 아나키즘적사조의기원을더듬어보면, 우리는언제나그주요한원천으로서다음두가지에마주친다. 즉한편으로는계급적조직과권력관일반에관한비판이고, 다른한편은과거의그리고특히현재에있어서의인류의전진적운동속에발견되는경향의분석이다.

아득히먼석기시대로부터이제까지인간이자기네의동료중의어떤자에게 - 비록그가가장지식이있고대답하고현명한자라할지라도 - 일단권력의보유를허락하고보면얼마나비참한결과를초래하게되는가생각이났을것임에틀림없다. 그렇기때문에우리의선조들은자고로이러한권력의학립을막기위하여싸울수있는제도를만들어내려고애썼던것이다. 그들의부족이나민족, 내려와서는농촌의공동체와중세의길드 [인접주민의길드, 수공업이나기예技藝의길드, 상인의길드, 사냥꾼들의길드등등], 그리고끝으로 12 세기에서 16 세기까지의각자유도시 - 이것들은모두민중속에서일어난제도였다. 그것들은외래의정복자들이나혹은또그들자신의씨족, 부족도시의개개성원들이자기의수중에권력을휘어잡는데대항하기위하여민중자신에의하여 - 지도자에의해서가아니라 - 수립된제도들이다.

마찬가지의민중의경향은전유럽의민중적종교적운동속에, 종교개혁의선구가된보헤미아의후스일파의봉기나아나뱁티스트 [재세례파] 의운동속에나타나있었다.

그후 1793 년?94 년에는프랑스에서다시금마찬가지사조와행동이파리의각‘구區’와기타대도시및술한소코뮌의자못독립적이고건설적인활동속에보인다. 다시그후영국과프랑스에근대공업이발달하기시작한때, 가혹한탄압법을물리치고이두나라에서형성된노동조합속에같은경향이나타났다. 여기서도우리는자본가들에대항하여자기를방위하려고하는똑같은민중적정신작용을발견하는것이다.

## 아나키즘의제이념 - 고대중세 - 푸르동 - 슈티르너

아나키스트적성질을띤민중의운동은문헌속에도나타나지않는바아니다. 사실우리는고대철학자들중에벌써, 즉중국의노자와고대그리스의아리스티포스와견유犬儒학파및제논과스토아학파중에아나키스트적제이념을발견할수있다. 하지만아나키즘의정신은본질적으로민중가운데서나온것이지소수귀족의학자들가운데서싹튼것은아니었다. 뿐더러이들의학자는민중의운동에는별로동정을보내지않았다. 따라서사상가들은대개민중의운동을언제나고무해온이깊은이념을해명하려하지도않았던것이다. 어느시대에나철학자또는학자들은강권적경향과계급제도적규율의정신편에서기를택하는것이었다. 과학의여명기에도그들이즐겨종사한연구대상은통치의기술이었다. 따라서아나키스트적경향을띤철학자들의수가정말얼마안된다는것은별로이상할것도없다.

그러나이중의한사람의철학자는그리스의스토아주의자제논이다. 그는 (전제적) 정부가없는자유로운공동체를역설하여그것을플라톤의‘공화국’에나타난국가주의적유토피아에대립시켰다. 제논은벌써인간에있어서의사회성의본능을지적하고있다. 그에따르면이본능은이기주의적자기보존의본능에대항하는것으로서자연이발달시킨것이었다. 그는인간이국경을넘어결합함으로써전세계적‘코스모스’를수립하여법률도, 재판소도, 사원도필요치않고상호의노력勞力を교환하기위한화폐도필요치않게될시대를예견했다. 그의용어자체도금일아나키스트들이쓰는표현과놀랄만큼유사하다고생각되는것이다.

아르바의사교司敎마르코지로라모비다도 1553 년에국가에대한그리고국가의법률과국가의‘최고의부정의’에대한마찬가지의반대론을역설했다. 같은사상은후스주의자들 [특히 15 세기의고에기] 과초기의재세례파들, 그리고 9 세기에있어서의그들의선구자인아르메니아의합리주의자들에게서발견할수있다.

16 세기 전반의 라브레, 17 세기 말의 페느론, 특히 18 세기 후반의 백과 전서파디도로도 같은 사상을 전개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 기간에 약간의 실천적 적용을 봤던 것이다.

그러나 아나키즘의 정치? 경제적 원리를 처음 서술한 것은 1793년의 『정치적 정의에 관한 고찰』의 저자 영국인 윌리엄 고드윈이었다. 그는 아나키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 근본 원리를 아주 훌륭히 밝혀 법률을 공격하고 국가가 필요치 않은 까닭을 논하고 재판소의 폐지에 의하여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 즉 모든 사회의 유일의 진정한 기초가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산권에 관해서 그는 뚜렷이 공유共有주의를 요구했다.

푸르동은 처음으로 [무지배자라는 의미에서의] '아나키'란 말을 사용했고, 그리고 또 부자에 의한 빈자의 억압을 방어함과 함께 피지배자들을 통제 아래 놓으려는 그런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무의한 노력을 사정 없이 비판한 최초의 인물이다.

푸르동은 국가 사회주의의 모든 형태에 대한 적대자였다. 당시 [19세기의 30년대 및 40년대] 의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국가 사회주의의 일당一黨파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래서 푸르동은 이와 같은 혁명의 전계획을 맹렬히 비판했다. 로버트 오언에 의하여 제안된 '노동권労動券'의 제도를 기초로 해서 그는 '상호주의'의 관념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바로 일체의 통치적 정부를 무용의 사족이 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푸르동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는 사회에 있어서 당시 각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서만 계산되는 것이므로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의 전교환은 노동권의 지불을 맡는 국민은 행을 매개로 행하여 질 수 있다. 그리고 청산소는 각은행이 금일 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은 행의 전지점의 수지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온갖 사람들에 의하여 교환되는 노동은 등가等價로 될 것이다. 뿐더러 국민은 행은 생산자의 조합에 대하여 그 생산에 필요한 상당액을 화폐로서 가 아니라 노동권으로 대부貸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부분은 무이자로 된다. 왜냐하면 은행의 경비를 마련하는데는 1년에 대부총액의 1퍼센트 또는 그 이하로 서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이자 대부라는 제도에 의하여 자본은 그 유해한 성격을 상실하고 착취의 수단이 되기를 그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푸르동의 자기의 상호주의의 제도를 상세히 전개하여 국가와 (통치적) 정부가 불필요하고 유해하다는 사상을 사실로 써논증했다. 그럴 적에 그는 영국인의 선구자들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인즉 그의 강령의 경제학적 부분은 이미 1824년에 영국에서 저명한 경제학자 윌리엄 톰슨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었다 [톰슨은 공산주의자로 되기 전에 상호주의자였다]. 또한 같은 사상은 그 후 영국의 톰슨 문하들 - 존 그레이 (1825?1831), 호지스킨 (1825?1832) 및 J.T. 블레이 (1839)에 의해서도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저자는 푸르동과 그의 문하들처럼 아나키즘을 정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 영국의 포크스웰 교수가 안톤 멘가의 주목할 만한 책 『노동 전수익 권労動全收益權』 [비엔나, 1886]의 영역에 붙인 서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사실 아나키즘의 사조는 이 시대의 영국 사회주의의 전체 속에 분명히 맥박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합중국에서는 조사이워렌이 같은 경향을 대표했다. 그는 처음에 오언의 콜로니 '뉴하모니'의 일원이었는데 그 후 공산주의의 반대자로 되고 1827년에 신시티에서 생산물을 노동 시간으로 계산원 가치를 기초로 해서 '노동권'에 의하여 교환하는 '상점'을 열었다. 이러한 제도는 1865년에 이르기까지 '공평상점', '공평점', '공평가'라는 명칭으로 존속했다.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에 의하여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교환이란이념은 독일에서도 1843년과 1845년에 모제스 헤스 및 칼 그륀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 스위스에서는 빌헬름 마르에 의하여 주창되었다. 그들은 바이트링의 국가 공산주의적 교설의 주장자들 [그것은 프랑스의 바브프주의자들의 문하였다]에 반대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동조자를 모으고 있던 바이트링의 국가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독일에서는 한 사람의 독일인 헤겔리안 막스 슈티르너 [본명 요한 카스파슈미트] 가나타나 1845년에 『유일자와 그 소유』를 냈다. 이 책은 그 뒤에 J.H. 막케이의 손으로, 말하자면 재발견되어 아나키스트 서클에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의 일종의 선언문으로 간주되어 큰 혼란을 일으켰다.

슈티르너의 저작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또 한 만약권 위주의 적 공산주의가 승리를 거둔다면 수립되어 질 터인 새로운 폭정에 대한 반역이다. 슈티르너는 분명한 헤겔학파의 형 이상학적 사상가로서 사색하여 '자아'의 복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아모랄리즘 [무도덕주의]'과 '이기주의자의 조합'을 논설한다.

그러나 이미 아나키스트 저작가들, 최근에는 프랑스의 V. 바시교수가 그 흥미로운 노작 『아나키스트 적개인주의, 막스 슈티르너』 [파리, 1904]에서 지적했듯이, 이 종류의 개인주의는 '완전한 발달'을 사회의 전성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장 유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이어서 만인의 발달에는 무관심하

다. 따라서 그것은 금일 국가의 비호 아래 소수 '귀족'이나 부르주아를 위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교육 독점의 가면을 쓰고 복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특권적 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밸 달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점은 그것에 상응하는 독점적 입법에 의한 보호와 국가로 조직된 강제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개인주의자의 요구는 그들 자신이 강하게 비판하는 국가와 권력이란 이념으로 불가피하게 후퇴한다. 그들의 입장은 스펠서나 맨체스터 학파라 불린 경제학자들의 입장과 유사하다. 그들 역시 국가에 대한 맹렬한 비판으로 시작하여 항상 국가를 최선의 보호자로 삼는 재산 독점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국가의 전기능을 승인하는데서 끝나고 있는 것이다.

## 11. 아나키즘 (속)

### 인터내셔널내부에서의 사회주의제이념 - 권위주의적공산주의자와 상호주의자

이상에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과 고드윈에서 시작하여 푸르동에 이르는 아나키즘이념의 발전을 살펴봤다. 그 후의 발전은 국제 노동자 협회 - 즉 보불普佛전쟁 발발 직전의 1866?70년간에 노동자에게는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고 부르주아에게는 크나큰 공포를 일으킨 이 협회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협회가 -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즐겨 주장하듯이 마르크스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 주지하듯이 그것은 1862년 런던에서 열린 제 2 회 만국 박람회를 방문하려온 프랑스 노동자 대표들과 그들을 영접한 영국 노동 조합 대표 및 약간의 영국 급진파들과의 회견의 결과였다. 이 방문으로 생긴 유대는 1863년의 폴란드 반란에 즈음하여 열린 동정의 집회를 기회로 일층 강화되고 익년에 드디어 협회가 설립된 것이다.

이미 1830년에 영국에 전국적 대 노동 조합이 창립되었을 때, 로버트 오언은 '국제적 전 노동 조합'을 수립하려고 계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전국 조합에 대하여 야만적 박해를 가하는 폭거로 나갔기 때문에 이 생각은 포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인터내셔널의 이념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국에서는 미적지근히 그을리고 만있었지만 프랑스에서 지지자를 얻게 되었다. 1847년의 혁명이 패퇴한 후 프랑스 인망 명자는 이사상을 갖고 합중국으로 건너가 거기서 『인터내셔널』 지지를 통하여 전파했다.

1862년에 런던을 방문한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거의 모두 푸르동주의자 즉 상호주의자였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노동 조합원들은 주로 로버트 오언의 학파에 속하고 있었다. 영국의 '오언주의'는 이리하여 프랑스의 '상호주의'와 손을 잡았고, 그 결과 노동자의 유력한 국제 조직의 창조를 보게 되었고, 주로 경제적 지반 위에서 고용주와 싸웠으니 순수 정치적인 급진적 당파와는 일체 절연하려고 노력했다.

사회주의적 노동자들 간의 이들의 두 주요 경향의 결합은, 마르크스 기타의 사람들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들의 비밀적 정치 결사의 잔당에 의한 지지를 발견했다. 이 비밀 정치 조직은 바르베스와 블랑키의 비밀 결사의 잔존 분자들을 규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것은 독일에서의 바이트링의 비밀 공산주의적 결사와 같이 그 원류가 바부프의 음모단에서 나오고 있었다.

전출의장 [제 5 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1856?62년은 자연 과학과 철학의 비상한 고조高潮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또 유럽과 아메리카에서의 급진 사상의 거의 전반적인 정치적 부흥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들 두 가지 운동은 노동자 대중을 각성시켰으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어깨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과업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1862년의 만국 박람회는 세계 산업의 위대한 축제로 보였고 노동자의 자기 이해 방 투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국제 노동자 협회가 일체 구식의 제정당과의 절연 絶緣을 소리 높이 선언하고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해방을 쟁취할 결의를 표명했을 때, 그것은 도처에서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

실제로 인터내셔널은 라틴계 제국에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 전투력은 얼마 안 가서 위협적인 규모로까지도 달했다. 다른 한편으로 각 연합 조직의 대회나 전 인터내셔널의 연차 대회는 사회 혁명이란 어떤 것이 아니면 안되는가, 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성취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노동자 자신들이 스스로 토의 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그 것은 노동 대중의 창조력을 자극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과 소비를 위한 새로운 결합 형태를 탐구케 했다.

당시는 어디서나 머지 않아 유럽에 대 혁명이 일어나리라고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혁명이 취해야 할 정치적 형태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한 혁명의 제 1 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다소나마 명료한 관념은 아직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인터내셔널 내부에서 전혀 대립하는 사회주의의 여러 사조가 한당에 모여서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협회의지배적사상은경제적지반에서행해져야할자본에대한노동의직접투쟁 - 즉부르주아지가 합의하는입법에의하지않고노동자자신이힘으로자본가로부터양보를뺏어내어서마침내그들을완전히항복 시킨다는그런방식으로수행하는노동의해방이었다.

그러나자본가의굴레에서노동자를해방하는사업은어떻게해서달성될것인가. 생산과교환의신조직은어 떤형태를취할것인가. 이문제에관하여 1864?70 년의사회주의자들은의견의일치를보지못했다. 그것은꼭 1848 년의파리에설치된공화국의헌법제정의회에참집한각종사회주의적학파의대표들의경우와같았다.

1848 년의프랑스의선구자들 - 그들의다양한희구는콘시데란에의하여『구세계에직면한사회주의』에 서보기좋게요약되고있다 - 과마찬가지로인터내셔널의사회주의자들도하나의깃발아래규합되지는못했다. 그들은가지각색의해결책사이를동요하고있었는데그중의어느것도지성을하나로통일할수있을만큼정당하 지도명확하지도않았다. 뿐더러진보적지성의소유자인사회주의자자신들에있어서조차자본과국가권력을 존경하는관념이아직완전히가시지는못했기때문에통일은더욱어려웠다.

이들의각종경향을훑어보기로하자.

거기에는우선프랑스공산주의자 [블랑키스트들] 의비밀결사의형태로프랑스대혁명의자코뱅주의의직 계 - 즉바부프의음모단후계자들및독일의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동맹] 이있었다. 이들양파는어느것이 나 1793 년의의심할바없는자코뱅주의의전통속에생명을잇고있다. 주지하다시피그들은 1848 년에는언젠 가운이돌아오는날이면음모에의하여 - 또한아마도독재자의조력을얻어 - 국가의정치권력을수중에넣고, 1793 년의자코뱅의결사를모범으로해서 [물론이번은노동자의이익을위하여] '프롤레타리아의독재'를수립 하려고꿈꾸고있었다. 이독재야말로 - 라고그들은생각했다 - 입법에의하여공산주의를강제할수있을것이 라고.

온갖종류의억제적법률과과세에의하여재산소유의상태는극히곤란하게되어이윽고소유자는재산소유 의고통을면하고자이것을수제국가에인도하는편이도리어행복하게느껴지도록될것이다. 다음으로‘농민군’ 이파견되어전답의경작을하게될것이다. 공업생산도같은반군대적방식으로조직되어똑같이국가의손으로 운전될것이다.

이와같은견해는인터내셔널창립당시도여전히사회주의자간에퍼지고있었다. 그리고그후도프랑스에서 는블랑키스트간에, 독일에서는라사르파와사회민주주의자들간에지지되고있었던것이다.

다른한편으로로버트오언의학파에속하는영국노동자들은이러한자코뱅적견해에정면으로대립하는견 해를지니고있었다. 그들은혁명을달성하기위해서나사회주의사회의건설사업을위해서도또한, 국가권력에 의거할것을단연코인정하지않고주로노동조합의활동에의거하려했다. 영국의오언주의자들은공산주의를 바라지않았다. 반면프랑스의푸리에주의자들과마찬가지로, 자유로조직되고상호결합한공동체나집단에그 들은큰의의를부여했다. 이들의공동체나집단이야말로토지와공장을공동으로소유하고, 그리하여그것을이 용함과동시에그들의생산을공동으로저장할것이다.

그들은생산의필요에따라혹은집단적으로혹은단독으로일할것이다. 공동체와집단에서의노동의보수및 공동체상호간의교환은노동권에의하여행하여질것이다. 이노동권은공동체의경지와공장또는작업장에서 의활동에소비된노동시간의양을표시한다. 그리고각공동체는개인적으로제조하여교환을위하여공동창고 에인도된생산물에대하여노동권으로지불할것이다.

노동권에의한보수報酬라는이사상은전술한바와같이푸르동과상호주의자의사회개혁안에서도채용되 고있었다. 그들도또한혁명에의하여탄생되어야할사회에있어서의국가권력의간섭을부인했다. 금일경제적 사항에관하여국가의기능을구성하고있는것은무용한것으로되고말것이다. 왜냐하면일체의교환은민중은 행과청산소에의하여행하여지고다른한편으로교육, 위생상의조치, 필요한기업활동, 교통수단등은각기독립한공동체의손으로운영될것이니까 - 그들은이렇게말했다.

교환에있어서화폐대신에노동권을발행한다고하는이동일한사상이, 단이경우일체의토지, 광산, 철도및 공장의국유화란이념과결합되어주장되고있었는데, 이사상은 1848 년에페쿠르와비다르라는두사람의주 목할만한저작가에의하여제창되었다 [양인의존재는금일사회주의자에의하여편협하게무시되고있다]. 그들은이체제를콜렉티비즘 (집산주의) 란이름으로불렀던것이다. 비다르는뤽산부르위원회의비서였다. 그리고페쿠르는 1848 년의헌법제정의회의일원이고, 당시이문제에대하여주목할만한논문을썼다. 그는여기서그자신의말을빌려말한다면, 사회혁명을완수하기위해서는헌법제정의회가실시로옮겨놓기만하면될충분한법률의형식으로자기의체계를상세히전개했다는것이었다.

인터내셔널창립당시페쿠르와비다르양인의이름은그들의동시대인간에서조차전혀잊히고있었던것같다. 그러나양인의사회조직의사상‘콜렉티비즘’이란이름으로마치새로운발견물처럼야단스럽게널리전해지 게되었다.

## 인터내셔널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이념 - 생시모니즘

앞에서 말한 각종 사회주의 학파와 나란히 생시모니즘의 이념도 있었다. 이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것은 1848년이 전이었으나 그 후도 여전히 인터내셔널의 성원의 사회주의 적 견해에 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재능 풍부한 다수의 저작가들과 사상가, 정치가, 역사가, 나아가서는 산업인들이 30년대와 40년대에 생시모니즘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다. 여기서는 철학에서의 오귀스트 꽁트, 역사가로서는 오귀스탄티에리, 경제학자 중에서는 시스몬디의 이름을 드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무릇 이 시기의 사회 개혁자들은 이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생시모니스트들은 이렇게 말했다 - 인류의 진보는 지금까지는 노예·가농 노로, 그리고 농노가 임금 노동자로 전환한 데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암금제 까지도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전 생산 시설에 대한 사유제 까지도 소멸 시켜야 할 때가 가까워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변화를 불가능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부언한다. 왜냐하면 사유제도 권력도 이미 역사의 과정에서 적잖이 변화를 겪어온 것이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사유재산의 폐지는 일련의 조치에 의하여 점차 행하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시모니스트들은 말한다 [이들의 조치에 대하여 프랑스 혁명이 이미 선례를 보였음을 상기하자]. 이들의 조치는 예컨대, 국가가 상속에 다중 세를 과함으로써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겨주는 사유재산을 점점 많이 수탈함을 허락할 것이다. 이리하여 사인私人的 수중으로 넘어가는 사유재산의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사유재산은 차차 자취를 감출 것이다. 어째서 그려나하면 부자 자신도 문명의 사멸기에 속하는 특권을 버리는 편이 유리하다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에 의한 자발적 재산 포기와 입법적 방책에 의한 상속 폐지는 생시모니스트의 국가로 하여금 토지와 산업의 유일의 소유자로, 노동의 최고 규제자로 전환케 하고 예술, 과학, 산업이란 3 기능의 절대적 수장, 즉 지휘자가 되게 할 것이다.

사회의 각 성원은 이들 3 부문 중의 하나에서 일하고 생시모니스트의 국가의 역군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 정부는 '최량最良의 인사' - 즉 과학, 예술, 산업이란 3 계三界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의 계층에 의하여 구성된다는 것이다.

생산물의 분배는 다음과 같은 정식에 따라 행하여질 것이다. 즉 능력에 따라 각인에게, 일에 따라 각 능력에게.

이와 같은 미래의 계획 외에도 생시모니스트 학파와 이 학파에서 나온 실증 철학은 19세기에 일련의 주목할 만한 역사적 노작을 출하여 권력,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참으로 과학적인 견지에서 검토했다. 이들의 노작은 금일까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생시모니스트들은 이른바 고전 학파, 즉 아담스미스와 리카도의 경제학을 냉엄하게 비판했다. 이 경제학파는 후년 '맨체스터 학파'란 이름으로 유명하게 되고 소위 '국가의 무간섭'을 주창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생시모니스트들이 산업적 개인주의와 사유 경쟁이란 원리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처음에 군사 국가와 그 계층적 구별에 대하여 싸웠을 때 비판했던 그 동일한 오류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즉 그들은 결국 국가의 전능을 승인하게 되고, 자기의 질서를 - 콘시데란이 이미지 적했듯이 - 불평등과 권력 위에, 또한 행정적 계층 질서 위에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계층 질서에 다제 사적 祭司의 성격 마저 부여 하려고 했다.

생시모니스트들은 이처럼 전 사회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를 각인에게 제각기 순개인적인 부분을 귀속 시킨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자와 옷소매를 나누었다. 그들의 많이는 경제학상의 우수한 노작을 내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 행위 - 전 세계적 인 행위라는 관념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 점이 생각났던 들 생산된 재화의 총량에서 각 생산자에게 넘겨줘야 할 부분을 정확히 결정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을.

이 점에 관하여 공산주의자와 생시모니스트와의 사이엔 뿐만 아니라 그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그 대신 양편이다 같은 개인과 그 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다. 공산주의자와 개인들에게 허용한 것은 겨우 그들이 자기네의 관리와 통치자를 선출하는 권리에 지나지 않았다. 생시모니스트들도 한 가지로 이 권리를 마지 못해서 승인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들은 이 선거권 마저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나 생시모니스트에 대해서나 매일반으로 각 개인은 국가의 관리에 불과하다. 『이카리아 항해기』를 쓰고 아메리카에서 공산주의의 콜로니를 건설한 카베에 있어서 자코뱅적 공산주의와 개인의 압박은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었던 것이다.

사실 카베의 『이카리아 항해기』에는 도처에 권력, 즉 국가를 - 각 세대 世帶의 부역에 이르기까지 발견할 수 있다. '조리 調理의 지침'을 각각 정에 다 배부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이카리아 공화국은 다시 나아가 국가

가시인하는식물食物의일람표를작성하여농민과노동자에게그식료품을생산시켜이것을배급한다. 카베는 이렇게쓰고있다.

“누구라도국가가배급하는이외의식물을가질수없으니까국가에의하여승인안된식품을누구도먹을수없음을명백하다고하겠다.”[『이카리아항해기』제5판, 1848년, 52면]

다시나아가위원회는식사의회수, 시간, 그길이, 그릇의수와식물의종류, 식사의순서까지규제한다고하는형편이다. 의복에관해서는위원회가일정한형을지정하여각인은그의사회적지위와상태를표시하는제복을착용한다. 항상같은것의생산활동에종사하는노동자가태반이다.

“이만큼이나질서와규율이지배하고있다”고카베는환성을올리고있다.

누구든지공화국의허가없이는아무것도출판하지못한다는것은말할것도없겠다. 게다가저작자가되기위해서는시험을쳐정식으로면허를얻은뒤가아니면안된다.

카베의유토피아가꼭그대로의형태로인터내셔널내에서다수의신봉자를갖고있었다고는생각될수없을것이다. 허나그정신은잔존하고있었다. 다음과같은것은아주확실하다 - 그리고우리는권위주의자, 특히독일의공산주의자들과행한논쟁에서이것을분명히느꼈던것이다 - 즉금일에와서는어림도없는어리석은일이라생각되고있는, 앞에서말한그런엄격한규제가당시는슬기로움의표현으로받아들여지고있었던것이다. 우리의비판에대하여사람들은카베의말로이렇게대답한것이다.

“확실히공산체는부자유와속박을강요할것이다. 하지만이것은그주요한임무가부와행복을산출하는데있기때문이다. 이중의번거로움이나낭비를피하기위하여, 그리고또한농업생산과공업생산을절약함과함께그생산력을10배나올리기위하여, 사회가일체를집중하고처리하고지휘하는것이절대로필요하다. 사회는일체의의욕, 일체의행동을, 자기의규칙, 자기의질서, 자기의규율에복종시키지않으면안된다. 좋은시민은명령되지않은일체의일을자발적으로삼가지않으면안된다.”(『이카리아항해기』제5판, 403면)

가장난처한일은, 권위주의자들이다음과같은신조를여태껏지니고있다는것이다. 즉카베가말한것처럼결국‘공산체제는공화국의대통령아래서와마찬가지로군주아래서도실현가능하다’고하는신조말이다. 이이념이바로나폴레옹3세의쿠데타에길을열어준것이고, 또한그후권위주의적사회주의자가부르주아적반동에직면하여대수롭지않게‘방임’의태도를취하는것을허락한이념이기도했다.

끝으로인터내셔널창립당시에프랑스와독일에다수의신봉자를거느리고있던루이블랑의학파에대하여한마디해야겠다. 이학파는독일에서는라사르파라는마무리진집단으로규합하고있었다. 이들의사회주의자는국가신봉적경향의지지자도, 그이전의사회주의자들과마찬가지로다음과같이보고있었다. 즉만약에혁명에의하여탄생하고사회주의적견해에의하여고취된정부가노동자를원조하여광범한노동자의생산협동조합을조직하게하고그것에다필요한자본을정부가대부한다면, 산업시설을자본가의손에서노동자의수중으로옮아가도록할수있으리라고. 이들의협동조합은국민생산의광범한일대조직으로결합될것이다. 만인에게평등한보수제도가과도적조치로서승인될것이다. 그러나각생산자의필요에따라행하여지는생산물의분배가언젠가는달성되어야할최종목적일것이다.

그것은콘시데란이아주정당하게도지적한바와같이민주주의국가에의하여통치된‘공산주의적생시모니즘’이었다.

광범한국가신용제도에의거하여극히저리低利로국가로부터대부를받아자본가적생산과경쟁할수있게끔국가의명령으로알뜰히원조된이들의노동자의조합조직은머지않아산업에서자본가를몰아내고자신이그자리를차지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의조합조직은농업에도확대할수있을것이다. 노동자들이잊어서는안될것은그러한경제적, 사회주의적목표다. 그것은부르주아정치가의단순한민주주의적이상인것은아니다.

무릇이들의제이념은1848년이전의사회주의적선전에의하여, 그리고또1848년의2월혁명및6월사건에의하여탄생한것이었는데그것들은세목에있어서여러가지변용을가지면서인터내셔널내부에널리보급되고있었다. 상호간견해의거리는컸다. 그러나이미앞에서도보았듯이이들의학파의신봉자들은다음의한가지점에서의견을같이하고있었다. 즉그들은모두장래의혁명의기초에강력한정부가놓이지않으면안되고이정부는나라의경제생활을그수중에거두어들이지않으면안된다고하는점이곧그것이다. 그들은모두중앙집권적계층적인국가조직을승인했다.

다행히도이들의자코뱅적제이념과병립하여그것과대항하는형태로푸리에주의자의이념이또한존재했다. 다음에이이념의검토로옮아가자.

## 12. 아나키즘 (속)

### 인터내셔널에서의 사회주의 제이념 - 푸리에주의

프랑스 혁명의 동시대인 푸리에는 인터내셔널이 설립되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문인門人们 - 특히 푸리에의 사상에다 과학적 성격을 붙여 준 콘시데란 -에 의하여 널리 보급되고 있었으므로 인터내셔널의 가장 교육 있는 성원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푸리에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푸리에의 영향력을 이해하는데는 다음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주의의 역사를 서술하는 서적에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푸리에의 지배적이념은 부의 생산을 위한 자본과 노동 및 재능의 결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주요한 목적은 이윤 추구를 위하여 여행하여 저필연적으로 성실치 못한 대규모의 투기로 이끌어가는 일체의 생산물의 교환을 행하는 자유로운 국민적 조직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같이 그의 이념은 저파리의 민중이 지롱드 당원을 국민 공회에서 추방하고 생활 필수 품에 대한 최고 가격 법이 가결된 후, 1793? 94년의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실현코자 한 이념을 부활시킨 것이다.

콘시데란이 그의 저작 『구세계에 직면한 사회주의』 [이 책을 금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크게 추천하고 싶다] 가운데서 말하고 있듯이, 푸리에는 금일의 착취의 온갖 추악한 형태를 제거하는 수단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 관계의 수립'에, 다시 말하면 생산지에서 직접 받아서 직접 소비자한테 전네주는 생산물의 보관자 - 그 소유자가 아니라 -의 역할을 다해야 할 공동체의 중개적 대리자를 설치하는데서 발견했다.

이러한 조건 아래 상품의 가격은 투기의 대상이 되기를 그칠 것이다. 가격에는 운송 저장 및 집무에 소요된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비가 가산될 뿐일 것이다.

푸리에는 어릴 때 일찍부터 양친을 도와 상점에서 일하면서 장사의 나쁜 측면을 실컷 경험했고 상업에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상업과 싸우기로 맹서하고 있었다. 장성 해서 프랑스 혁명의 시대에 그는 저투기 - 처음에는 교회나 귀족한테서 몰수된 국유 재산의 매매에 즐음하여, 나중에는 전쟁의 시대에 발생한 온갖 물자의 가격 폭등에 즐음하여, 끔찍한 투기를 소상히 목격한 것이다. 그는 또 자코뱅당의 국민 공회도 테러도 이들의 투기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는 사회화된 교환제도가 없는 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승려와 귀족에게서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달성된 경제적 혁명의 성과도 헛된 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는 상업의 공유화의 필요를 이해했고 이 방향에서 생퀴로트가 1793년과 94년에 시험한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 그는 이 이념의 사도로 되었다.

푸리에의 의견에 의하면 생산 품의 보관자인 자유 코뮌은 생활 필수 물자의 교환 및 분배라는 대문제의 해결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코뮌은 금일의 상인이나 협동 조합처럼 그 소유자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고 생산 품을 분배하기 위하여 창고에 수납하는 한편, 소지자로부터 일체 공세를 징수하지 않고, 또한 물자의 변동을 틈타 투기를 하는 일도 없다.

소비와 분배를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 코자 하는 이기도는 푸리에를 가장 심원한 사회주의적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서 만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농업 코뮌 또는 공업 코뮌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합체한 농? 공업 코뮌의 전성원이 파란지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이들의 코뮌은 토지, 가축, 농구, 기계를 하나로 결합하여 토지를 경작하고 혹은 공장에서 일함으로써 토지, 기계, 공장 등이 성원 전체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자본에 대하여 각인이 공헌한 액수를 엄밀히 계상할 것이다.

두 가지 주요 원칙이 파란지에서 준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푸리에는 주장한다. 첫째로, 그것은 불유쾌한 노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체의 노동은 항상 사람들을 유혹하게끔 조직되고 배분되어 다채다양한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자유로운 결합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에는 여하한 강제도 용납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강제가 필요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파란지의 각 성원의 개인적 필요에 대한다 소신 중한 주의와 각종 성격의 특수성에 대한 약간의 관용이 있다. 그리고 농업, 공업, 지적? 예술적인 각종의 노동을 하나로 결합한다. 그 결과 현대의 사회제도 아래서는 종종 해악이 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인간적 격정 - 그리고 항상 그것이 강제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는 이러한

격정마저 진보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파란지의 성원은 머지 않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격정의 본질을 인식하여 그 사회적 적용의 방도를 찾아내면 축한 것이다. 새로운 사업, 위험한 모험, 사회적 태동, 혁신의 갈망 등은 이들의 격정에 필요한 배출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기는 아직 푸리에가 국가적이념에 집착을 남기고 있긴 하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공동체 조직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정한 조화'의 선구자로 되어야 할 '단순한 조화'를 우선 시험해보자고 '군주의 참가'를 약정해 양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프랑스 국왕에게 인류를 사회적 혼란에서 구출하는 명예를 위탁하여 전 세계의 조화의 창설자, 해방자가 되게 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초기의 저작 중의 하나에서 말했다. 그는 이동일의 이념을 1808년의 『네가지 운동의 이론』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다. 그 후 도그는 루이 필립 왕에게 이 목적의 실현을 위탁했던 것이다 [페라랑, 『푸리에, 그 생애와 교설』 4판 114면].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최초의 준비의 시도에 관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조화' 또는 '보편적 조화'라 붙여 진 사회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는 여기서는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조화는 '부분적으로' 도입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혁신은 사회? 정치? 경제? 도덕 등 일체의 관계에 있어서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푸리에가 국가의 비판에 착수했을 때, 그는 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철저한 비판을 했다.

"정치적 무질서는 사회적 무질서의 결과이고 그 표현이다. 불평등은 부정의로 전화하고 있다. 권력이 그 이름 아래 행동하는 국가란 것은, 그 기원에 있어서나 그 원리에 있어서나 특권 계급의 봉사자이고 잔여 계급에 대립하여 자기네의 이익을 지키는 옹호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어조로 비판이 전개되고 있다.

푸리에의 제원칙이 완전히 적용된 결과 출현해야 할 '조화적 사회'에서는 도무지 강제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푸리에는 프랑스 혁명의 패배 직후에 문필 활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자본과 노동 및 재능 간의 결합이란 원칙을 승인할 필요를 역설했다. 그 결과 파란지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는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제 1 [총액의 반내지 12 분의 7] 은 노동의 보수에, 제 2 [12 분의 3] 는 자본에, 제 3 [12 분의 2 내지 3] 은 재능에 충당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내부의 푸리에 문하들의 태반은 그의 체계의 일부분에는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일부분에는 푸리에가 글 쓰고 있던 당시의 영향이 보이고 있다고 그들은 보고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푸리에의 교설의 근본적 특징에 유의하고 있었다. 즉,

1) 자유 코뮌 즉 독립 한 작은 지역이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고 단위로 된다.

2) 코뮌은 그 내부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관리자이고, 일체의 교환의 중개자이다. 그것은 동시에 소비자와 결합체이고, 대개의 경우 동시에 또, 생산의 단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위에 그것은 직업 집단 또는 생산자 그룹의 연합이기도 할 것이다].

3) 이들의 코뮌은 상호간에 자유로 결합하여 연합, 지방, 국민을 형성한다.

4) 노동은 매력적인 것이 될 것을 요한다. 그것이 없고 보면 노동은 언제나 고역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달성되지 않는 한 여하한 사회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 이것을 달성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노동은 금일에 있어서보다 훨씬 생산적인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

5) 이런 종류의 코뮌에 있어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하한 강제도 필요치 않다. 세론의 영향만으로 충분하다.

생산물의 분배 및 소비에 관해서는 극히 다양한 의견이 표명되고 있다. 인터내셔널 창설 후 사회주의 제이념은 점점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1868년의 브뤼셀 대회, 1869년의 바젤 대회에서 인터내셔널은 절대 다수로 경지, 임야, 철도, 운하, 전신 등, 나아가서는 광산과 기계에 대한 집산제를 선언했다. 집산제와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수탈을 승인함으로써, 인터내셔널의 반권력주의 적 성원들은 콜렉티비스트 [집산주의자] 라칭하여, 마르크스, 엥겔스 및 양인의 신봉자들의 국가주의적 중앙 집권적 공산주의에 대하여, 그리고 바부프와 카베의 권위주의적 전통을 지닌 프랑스의 공산주의에 대하여 명확한 일선을 그었다.

1867년에 J. 기욤 - 그 자신도 콜렉티비즘의 선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에 의하여 공간 공刊된 『사회주의론』, 마찬가지로 그의 주저인 『인터내셔널 - 기록과 회상』 [1905?10년에 파리에서 4권본으로 공간되었음], 끝으로 기욤이 『생디칼리즘의 배과전서』에 최근 기고한 「인터내셔널에 있어서의 콜렉티비즘」에서, 인터내셔널에 있어서의 가장 활발한 연합주의적 성원들 - 바르랑, 기욤, 도페프, 바쿠닌 및 기타의 동지들 -에 의하여 '콜렉티비즘'이란 말에 붙여 진정 확한 의미의 상세한 설명이 논술되고 있다. 그들의 언명에 의하면,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그들은 콜렉티비즘이란 말 아래서 비권위주의적 연합주의적 또는 아나키스트적 공산주의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들은 콜렉티비스트라고 자칭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우선 그들이 비권위주의자라는 것을 역설했다. 그들은 수탈을 완료한 사회에서 소비가 취해야 할 형태를 사전에 결정하려고 아니 했다. 그들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사회를 엄격한 틀 안에 다诩지로 가두어 넣는 짓을 하지 않겠다는 희구이고, 이 점에서 그들은 진보적 그룹에 대하여 가장 광범한 자유를 보류하려고 했다.

불행히도 인터내셔널 내부에 씨 뿐 려진 집산제라는 이념은 바젤 대회 후 10 개월이 지나서 보불 전쟁이 일어난 당시, 노동자 대중간에 널리 알려지기기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 결과 파리 코뮌 때에도 이러한 집산제 실현의 방향으로의 진지한 기도는 전혀 없었다. 코뮌이 괴멸한 후도 연합주의적인 인터내셔널은 그 주요한 이념 - 즉 사회 혁명을 실현 코자자본에 대한 노동의 직접 투쟁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세력을 반권위주의적 조직으로 결집한다고 하는 이념의 존속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이리하여 미래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배경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아나르코 코뮤니즘이란 의미로 해석될 콜렉티비즘의 이념은 약간의 신봉자에 의하여 계속 선전되고 있었으나 그 것은 한편으로 「공산당선언」의 제이념을 포기하기 시작한 후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개한 국가 집산주의의 관념과 충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블랑키스트의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와 충돌했다. 그것은 또 푸르동에 의한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의 가혹한 비판의 영향 아래 1848년 이후 라틴 제국諸國의 노동자 대중간에 착근着根하기 시작한 공산주의 일반에 대한 널리 퍼져 있는 편견에 맞닥뜨렸다.

이 저항은 극히 강력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스페인 - 여기서는 연합주의적인 인터내셔널이 노동 조합의 광범한 연합체와 밀접히 연결되고 있었다 - 에서 당시 나흘 씬 그 뒤나 콜렉티비즘이라 하면 단지 집산제의 주장으로 만 받아들여졌고, 반국가적이념을 강조하려면 콜레티비즘이란 말에 다른 도로 '밀아나기'란 말이첨가되었다 [anarquia colectivismo]. 그런데다가 그럴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개의 집단이여하한 - 공산주의적인, 그렇지 않으면 그이외의 - 분배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짓지 않고 남겨두었다.

끝으로 금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방도에 관해서는 인터내셔널의 활동가들은 푸리에가이에 관하여 말한 것에다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럽에 혁명적 상황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느꼈고 더욱이 1848년의 혁명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전반적인 혁명이 박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노동자들은 정부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들 자신의 힘을 통하여 자본으로부터 그 수중에 쥐고 있는 독점을 탈취할 것이라고 보았다.

## 파리 코뮌이 준 충격 - 바쿠닌

이상 각장에서 행한 개관에서 인터내셔널에서의 아나키즘의 이념이 어떠한 터전 위에서 발전하고 있었는지 밝혀졌을 것이다.

그것은 중앙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코뱅주의와 지방적 독립 및 연합이란 이념과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같이 - 방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하고 있다. 중앙 집권적 이념이 1793년의 자코뱅주의의 직계라 한다면, 지방의 독립적 행동이란 이념은 1793?94년의 파리의 제지구 및 제코뮌의 건설적이고 혁명적인 강력한 활동의 유산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두 조류 중에서 전자 즉 자코뱅주의 편이 우세했다. 인터내셔널에가입한 부르주아지식인의 태반이 자코뱅 적정신의 소유자이고 노동자는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노동자 대중간에서 혁명 사상에 새로운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파리 코뮌과 같은 거대한 중요성을 가진 사건이 필요했다.

1870년 7월에 가공의 전쟁이 일어났다. 나폴레옹 3세와 그 조언자들은 필연적으로 닥쳐올 것이다 예측되고 있던 공화주의 혁명에서 제국제국을 구출코자 이전쟁에 돌입했다. 전쟁은 프랑스의 소멸과 제정의 파멸, 티에르와 간 베다의 임시 정부 및 파리 코뮌을 초래했고, 계속해서 마찬 가지의 기도가 상에 티엔느, 나르본느 기타의 남프랑스 제도시에서, 그 후는 스페인의 바르세로나와 카르타제나에서 발생했다.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 적어도 발생한 사건에서 교훈을 끌어내어 생각할 줄 아는 성원들에 대하여 - 이들의 코뮌의 봉기는 하나의 계시였다. 파리의 노동자들이 바리케이드 위에서 사수한 사회 혁명의붉은 깃발 아래 이들의 봉기는 라틴 제국민 속에 일어날 장래의 혁명의 정치적 형태가 어떠한 것이 아니면 안되며 또 한 아마도 어떠한 것이라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1848년에 생각되었던 그러한 민주주의 적공화국이 아니라 코뮌 - 자유롭고 독립한, 그리고 아마도 공산주의적인 코뮌인 것이다.

민중 혁명의 시기에 그 성공을 확보하려면 어떠한 정치적 및 경제적 방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시의 지성을 지배한 혼란이 파리 코뮌에도 감돌고 있었음을 확실하다. 인터내셔널 내부에 나타난 이러한 지적 혼란은 코뮌에도 지배하고 있었다.

자코뱅주의자도 코뮌주의자 [자치주의자] 도 - 말하자면 강권적 중앙집권주의자도, 연합주의자도 파리의 봉기에도 같이 등장하여, 더욱 고 코뮌 내에서 양파간에 충돌을 빚어 냈다. 가장 전투적인 분자는 자코뱅주의자와 블랑키스트 중에 있었다. 그러나 블랑키는 투옥되고 있었으며 블랑키스트지도자들 - 태반이 부르주아였던 - 간에 그 선구자인 바부프주의자들의 공산주의적이념이 거의 소실되고 있었다. 그들에 대하여 경제 문제는 코뮌이 승리를 거둔 뒤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였다. 이런 견해가 당초부터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민중적인 공산주의적 견해는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다. 뿐더러 파리 코뮌이 단명으로 끝난 결과 이러한 견해는 확립되기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조건 아래 패배는 순식간에 닥쳐왔다. 공포의 밑바닥에 떨어졌던 부르주아지의 사납게 설치는 복수를 볼 때, 코뮌의 승리는 경제적 지반에서의 정복과 병행하는 발전으로써 민중이 코뮌 수호에 험기하지 않고 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정치적 혁명을 달성하려면 이것과 병행하여 경제적 혁명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파리 코뮌은 또 하나의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라틴계 제국 민간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념을 선명히 했다.

자유 코뮌 - 이것이 바로 사회 혁명이 취해야 할 정치적 형태인 것이다. 설사 전국이, 설사 모든 이웃 나라가 이러한 행동 양식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일단 어떤 코뮌의, 어떤 지역의 주민이 그 생활 필수 품의 소비의 사회화를 결의하고 또 이들의 물자의 교환과 생산의 사회화를 바란다면, 그들은 이것을 그들 자신, 그들의 손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한다면, 만일 그들이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인다면, 그들이 뒤떨어진 적대적인 또는 무관심한 부분을 포함한 전국토의 사태 진전에 정신을 쓰고 있을 때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힘을 자기 자신의 코뮌 속에 발견할 것이다. 혁명의 발목에 감겨붙은 무거운 짐과 같은 이들의 뒤떨어진 분자를 질질 끌고 걷기보다는 이들과 공공연한 일전을 감행하는 편이 좋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본다. 만약 자유? 독립의 코뮌을 지배하는 중앙집권적 정부가 필요치 않다면, 만약 전국민적 정부가 타도되고 국토의 통일이 코뮌의 자유 연합으로 달성된다면, 마찬가지로 중앙의 시정市政도 또한 유해무익한 것으로 될 것이라고. 개개의 코뮌 내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국가 전체에 있어서보다 훨씬 간단한 것이라고, 시민의 이해 관계도 훨씬 단순하고 모순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코뮌에 있어서의 생산자, 소비자, 기타 각종 그룹 간에 일치를 보기 위해서는 연합주의의 원리로 죽할 것이다.

파리 코뮌은 다시 진정한 혁명가들을 괴롭힐 어떤 문제에도 또한 해답을 주었다. 프랑스는 두 번에 걸쳐 사회 혁명을 실시하려고 꾀했다. - 더욱이 두 번째 중앙 정부를 개재시켜서 했던 것이다. 즉 1793년?94년에는 지롱드 당원 추방 후 '사실상 평등'을, 말하자면 참된 경제적 평등을 염격한 입법 조치로 써도 입코자 했다. 다음으로 1848년에는 헌법 제정의회를 통하여 '사회 민주주의적 공화국'을 실현코자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번째 프랑스는 실패했다. 헌데 이제야 생활 자체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자유 코뮌이 곧 그것이다. 코뮌 자신이 자기의 영역에서 혁명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그것은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이념은 '아나키'라는 이상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때 우리는 푸르동의 저작 『19세기에 있어서의 혁명의 일반이념』 속에 깊이 실천적이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나키의 이념이었다. 라틴계 국민들의 진보적인 사의 사상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라틴계 나라들의 사이에서만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라틴계 스위스 및 와론 계 주민의 사이에서만이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프랑스에 대한 승리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끌어냈다. 그들은 국가의 중앙집권주의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로베스피에르적 단계 속에 파묻혀 있어 자코뱅주의자의 역사가들이 [실정과는 정반대로] 논술하고 있듯이, 자코뱅 글라브를 숭배하고 있었다.

견고하게 집중한 권력을 갖추어 여하한 국민의 독립에 의한 경향에 대해서도 적의를 갖고 대하는 국가, 관료진의 견고한 계층적 중앙집권 및 강대한 정부 권력 - 독일의 사회주의자와 급진파가 도달한 것은 이러한 결론이었다.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승리는 사실인즉 1870년의 프랑스가 갖고 있던 모집병제도에 대한 독일의 일반 징병제도에 의하여 가능케 된 거대한 군대의 승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승리는 혁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제2제정의 부패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려하지 않았다. 미상불 프랑스 제정을 위협하고 있던 혁명이 독일의 침략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았던 그들은 전인류에 이익을 주는 바였을 것이다.

이리하여 파리 코뮌은 라틴계 제국에 아나키즘이념의 발달을 촉진했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내셔널 총무 위원회의 권위주의적 경향이 점점 강하게 전인تر내셔널을 위협하게 된 결과,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적 경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파리 코뮌이 무너진 후에 런던으로 망명한 프랑스의 블랑키스트들의 도움을 얻고 총무 위원회에 부여한 권력을 이용했다. 총무 위원회는 협회의 행동 강령 속에 정해진 자본에 대한 노동의 직접 투쟁을 부르주아의 회에서의 선동으로 바꿔치기 해버렸다.

이쿠데타는 인터내셔널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열게 했다. 어떤 맹신가라도 자기 자신의 일을 정부의 손에 위임하는 결과가 - 가령 그 정부가 인터내셔널 총무위원회의 선임의 경우처럼 민주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 선출된 정부라 할지라도 -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으로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쥐라, 와론계 벨기에 및 영국 일부의 각연합이 자치론자들이 총무위원회의 권력에 대항하여 궐기했던 것이다.

이제 야미하일 바쿠닌의 모습 속에 인터내셔널에서 발전하고 있던 아나키스트적 경향은 강력하고 정열적인 용호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쿠닌과 쥐라연합의 우인들의 주위에 스위스와 스페인의 젊은 이들로 된 작은 서클이 결집했고, 그들은 바쿠닌의 사상의 폭넓은 전개에 기여했다.

바쿠닌은 역사와 철학상의 광범한 지식을 종횡으로 구사하여 힘찬 일련의 펌플릿, 논문, 서한 속에 근대 아나키즘의 제원리를 확립했다.

그는 대담하게 국가를 그 전 조직, 전 이념, 전 경향에 걸쳐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는 이념을 천하에 천명했다. 일찍이 국가는 역사적 필연이었다. 그것은 종교적 카스트 가장악한 권위에서 발전해 나온 제도였다. 그러나 금일은 국가의 완벽한 배제야 말로 역사적 필연이 되었다. 왜냐? 국가란 자유와 평등의 부정否定에 불과하고, 만인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것을 실현코자 할 때 조차 착수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말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 모든 지방, 모든 코뮌은 이웃에 대한 위협으로 되지 않는 한, 하 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을 조직함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가 아니면 안 된다. 이른바 '연방'이니 '자치'니 하는 원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것들은 단지 중앙집권 국가의 권력을 은폐하기 위한 말에 불과하다. 코뮌의 완전한 독립, 자유 코뮌의 연합 및 코뮌 내부의 사회 혁명 즉 현존 사회의 국가적 조직에 대체되어야 할 생산을 위한 협동 조합적 결합 - 이것이야 말로 바쿠닌이 논한 바와 같이 과거의 암흑에서 현대 문명의 면전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상이다.

개인은 그의 주위의 만인이 자유롭게 되는 한에서 만자기도 자유롭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념을 품는 한편 바쿠닌은 동시에 사회 혁명의 열렬한 선전자였다. 당시 사회주의자의 태반은 사회 혁명의 박두를 예견하고 있었으나 바쿠닌은 바로 이 혁명을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격렬한 말로그 서한이나 저작에서 주장했던 것이다.

# 13. 아나키즘 (속)

## 현상에 있어서의 아나키즘의 관념

1848년의 전야에, 또한 그 후 인터내셔널에 이르는 기간에, 국가에 대한 반역이 사회와 그 위선적 도덕에 대한 개인의 반역이란 성격을 띠고, 더욱이 주로 부르주아의 젊은 세대가 운운데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야 노동자들 간에서 의이 반역은 일총 심각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것은 금일 국가가 밀어주는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새로운 사회 형태의 텁구로 변화하고 있다.

인터내셔널도 그것을 창립한 노동자들의 자각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 혁명에 의하여 생신된 사회가 취해야 할 미래상의 맹아를 비춰주는 노동자의 제집단의 광범한 연합이 아니면 아니되었다. 말하자면 그 미래의 사회란 금일의 통치 기구와 자본주의적 착취를 감추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에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 아나키스트의 이상은 개인적인 것이기를 그쳐야 했다. 그것은 사회적인 이상으로 된 것이다.

양세계의 노동자들이 그들을 갈라놓는 국경에 상관 없이 직접 관계를 맺고 서로 상대편을 잘 알게 됨에 따라 그들은 사회 문제를 훨씬 잘 연구, 해명하게 되고 자기네의 힘에 대하여 일총 자신을 갖게 되어 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내다보았다. 즉, 가령 민중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공업 노동자가 공장이나 작업장을 소유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산업을 관리하고 국민 생활의 필수 품의 생산에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면 사회의 기본적 필요를 빠짐 없이 광범하게 공급하기가 용이 할 것이다. 최근의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그 성공을 보증한다. 그럴 때 제국민의 생산자는 바른 기초 위에서 국제적 교환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장과 공장, 광산, 농업, 상업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이것은 아무런 의문 없이 아주 명료하다.

동시에 국가가 그 관료적 계층제도와 역사적 전통의 중압과 함께 독점이나 착취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새 사회의 도래를 방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깨달은 노동자의 수는 점점 불어날 뿐이다.

역사상 국가는 토지의 사유권을 한계급을 위하여 확립하고, 그 독점권을 유지시킴으로써 발달해 왔으며, 이리하여 누구보다도 지주 계급은 지배 계급으로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 자신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자기네의 결합 가운데서 이 독점을 타파하는 수단을 찾지 않고 서어찌하여 이러한 수단을 국가가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19세기의 과정에서는 국가는 공업 소유권, 상업, 은행을 부유한 계급의 수중에 독점시키고 농촌의 공동체에서 토지를 수탈하여 농민을 중세로 얹는다. 그리고 이들의 부유 계급을 위하여 값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강대화한 것이다. 이 특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가는 과연 여하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통치 기구는 이들의 특권을 창조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발달해 왔는데도 대체다름아닌 이들의 특권을 배제하는 역할을 그것이 맡을 수 있겠느냐 말이다. 이 새로운 기능은 그것에 알맞은 새로운 기관을 과연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이 새로운 기관은 이제야 노동자 자신에 의하여 국가와는 아무 상관 없이 노동자 자신의 조합, 노동자 자신의 연합 속에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국가에 의하여 출생하고 강화되어 온 특권이 소실할 때 국가도 또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일단 인간 관계가 착취자 대피 착취자의 관계이기를 그친다면, 전혀 새로운 사회 집단 형태가 생길 것이다. 부자가 빙자의 노동을 착취함에 의하여 일총 부유하게 되게끔 짜여 있는 현존 기구가 무용화 하자 마자 생활은 단순화 할 것이다.

지역적 결합을 위한 독립한 코뮌 및 사회적 기능별로 결합한 노동 조합의 광범한 연합 - 그럴적에 양자는 서로 연결하여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주를 제공한 것임 - 이라는 이념은 아나키스트가 해방된 미래 사회의 있을 법한 조직을 구체적 현실적인 방식으로 구상하는 단서로 되었다. 다시 그 위에 코뮌 및 노동 조합과 병립하여 개인적 관계로 맺어지는 집단 - 이를테면 온갖 종류의 목적을 충족시킬 필요에서 생기는 무한히 다양한 일 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무수한 집합체가 여기에 첨가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결사는 이미 현금의 사회에서도 정치적 또는 직업적 집단과 별도로 술하게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 종류의 결사는 그 물 눈처럼 서로 얹혀서 가지각색의 사회적 요구를 - 소비, 생산, 분배, 교통, 위생 조치, 교육, 침략에 대한 상호 방어, 상호 부조, 지역 방위, 나아가서는 또 과학상, 예술상, 문학상의 요구와 오락의

요구등등모든것을충족시킬것이다. 이들은모두활기에차서사회적, 지적환경의새로운요구와새로운영향에 응답하면서재빨리이에적응할수있을것이다.

가령이와같은사회가다양한기호와요구가발전할수있을만큼충분히광범위하게다수의주민을가진지역에자라나발달한다면, 여하한권위주의적강제도벌써무용지물에불과하다는것은머지않아만인의눈에명백하게될것이다. 권력에의한이러한강제는사회의경제생활을유지하는데에무용지물일뿐더러대부분의반사회적행위를저지하는데도쓸모가없을것이다.

실제로현금의국가에서사회생활에필요불가결한도덕적수준을향상, 유지하는데가장큰장애물이되고있는것은무엇보다도사회적평등의결여이다. 평등없이 1793년에표현된말로하면‘사실상의평등’없이 - 정의의감정의일반화는절대로불가능하다. 정의는평등주의적인것이아니면안된다. 헌데우리들의계급사회에서 는평등의감정이한걸음마다, 한순간마다패배를맛보고있는것이다. 만인에대한정의의감정이사회의풍속습관에침투하려면평등이실제로존재하지않으면안된다. 정의가가능케되는것은평등자의사회에서뿐이다.

이렇게되었을때강제의필요, 좀더정확히말해서강제력에호소하려는욕구는벌써발생하지않을것이다. 금일행하여지고있는것처럼법률상의또는신비적인형벌의공포에의하여, 혹은우월자로인정된인간에대한 복종에의하여혹은또공포심내지무지로말미암아창조된형이상학적존재에대한궤배에의하여개인의자유를 제한할필요가벌써전혀없다는것을만인이똑똑히알게될것이다. 헌데현금의사회에서는앞에서말한모든것은지적예종隸從으로, 개인적창의의억압으로, 도덕적수준의저하로, 또한진보의정체停滯로이끌고있는것이다.

평등주의의환경에서는인간이안심하고자기자신의이성에지침을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그이성은이 러한환경에서발달하는까닭에필연적으로주위의사회적습관의각인刻印을띨것이다. 인간은자기의전능력의완전한발달을 - 개성의충분하고완전한발달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이와반대로금일부르주아가‘우수한 천분天分을지닌자’에대하여인간성의완전한발전을달성하는수단을제공한다고떠들고있는개인주의란것은 자기기만自己欺瞞이외의아무것도아니다. 뿐만아니라그들이찬양하는이개인주의란것은독특한개성의발 달을저해하는것이다.

허구한나날을개인적이윤의추구에지새우며, 그결과전반적빈곤으로전락해있는사회에서는, 가장유능한사람도자기의생존을지탱하기에필요한제수단을획득하기위하여격렬한경쟁에종사하지않으면안된다. 개성의자유로운발달에필요한일정한여가를간신히얻게된극소수의사람들은어떠냐하면, 이여가를이용함에있어그들은현금사회에의하여다음과같은하나의조건이부과되고있는것이다. 즉부르주아적범속성凡俗性의법과관례와의속박에복종할것, 그리고너무지나치게신랄한비판또는반역의행위에의하여이범속성의 왕국을동요시키지않을것, 이것이그조건이다.

‘개인의충분하고완전한발달’이허락되는것은부르주아사회에아무런위협을안주는인간, 말하자면부르 주아사회에대하여흥미있는인물이기는하나위험하지않은인물뿐이다.

전술한바와같이아나키스트는관찰의결과로얻어진논거에기하여미래에관한예견을한다.

사실우리가 18세기말이후교육받은계층간에지배해온사조를분석할때부르주아간에도, 부르주아적교육을받고자기자신도부르주아에한축들기를바라고있는노동자들간에도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경향이극히강력하다는것을승인하지않으면안된다. 이와반대로반권위주의적, 반중앙집권적, 반군국주의및자유합의의이념은노동자간에도, 또한훌륭한교양을갖고다소라도자유로운정신을가진부르주아적지식인간에도 많은지지자를얻고있다.

사실다른저작 [『빵의정복이』나『상호부조론』]에서지적한것처럼, 금일에는국가와교회의테두리밖에서온갖종류 - 경제 [철도회사, 노동조합, 기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정치, 학술, 예술, 교육, 오락, 선전등 - 의요구를충족시킬목적으로기천, 기만의결사를자유로구성하려고하는강한경향이있다. 기왕에는의심할바없이국가와교회의의무였던것이금일은자유로운제조직의활동부문으로되고있다. 이경향은점점현저한것으로되어가고있다. 자유로운제조직이몇천개씩등장하기위해서는자유의입김이교회와국가의탐욕스런권력욕을숨죽이는것으로써충분하다. 자유에대한두개의노회老猶한적인교회와국가의권력이더욱제한되는날이면자유로운조직은보다광범하게그활동영역을확대할것이다.

미래와진보는이방향에있다. 그리고아나키는바로이양자를표현하고있는것이다.

## 국가의부정

아나키스트의경제관에는경제학이여태껏방황하고있던흔돈상태의영향이꼬리를물고있는것을인정하지않으면안된다. 국가사회주의자간에도그렇지만아나키스트간에도이문제를둘러싸고다양한견해의대립이있다.

사회주의자의테두리안에머물고있는모든사회주의적당파와마찬가지로아나키스트도현존토지사유제도및생산수단의사유제도는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동시에그결과이기도한금일의생산구조와함께, 악惡이라고보고있다. 그들은또현대사회가고대의제문명과같이붕괴하지않기를바란다면이러한제도를배제하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한다.

그렇지만이변혁을달성하는수단에관해서는아나키스트는국가사회주의의모든당파와완전히소매를나누고있다. 말하자면아나키스트는생산을, 적어도그주요부문을국가의수중에거두어들이는국가자본주의가지고는사회문제의해결이가능하다고보지않는다. 의회에의하여임명된대신들의지휘아래현금국가의손에다우편이나철도를넘겨주어운영케하는것은우리가품은이상은아니다. 우리의견지에서말한다면그것은새로운형식의임금노예이고새로운형식의착취일따름이다. 우리는이것이임금노예와착취의폐지로향하는길이라고믿지않으며이목표에이르는하나의과도적형태라고믿지도않는다.

자본에의한노동의착취를폐지한다고하는참되고넓은의미에서사회주의를이해하는한, 아나키스트는이러한사회주의와손잡고나왔다. 양자가다같이사회혁명을예상하고그도래를대망했다. 다만사회혁명의결과등장해야할사회의반권위주의적형태에대하여양자가의견을달리했을뿐이다.

그렇지만국가사회주의자의대부분이라고까지말할수는없으나그유력한한당파가자본주의의착취를폐지할필요는전혀없고우리의세대에대한, 그리고또금일우리가경과하고있는경제발달의단계에대한문제는착취를완화하는데있을뿐이고, 이를위해서는자본가에대하여약간의법적규제를강제하는것으로족하다고하는사상에물들때, 아나키스트는단연코그들과결별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

이러한사상에아나키스트는동의할수없었다. 우리는다음과같이주장하는자이다. 즉자본주의적착취의폐지를미래에바란다면, 우리는금일부터전력을기울여그배제에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고. 우리는벌써금일생산에필요한모든것 - 광산, 공장, 교통수단, 무엇보다도생산자의생존제수단 -을자본가의손에서생산자의집단의수중으로직접넘겨오도록힘쓰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나아가서또우리는생존수단을현금의부르주아국가의수중에넘겨주는일이없도록유의하지않으면안된다. 전유럽의사회주의제정당은금일있는그대로의부르주아국가에의한철도, 염鹽생산, 철광및석탄광, [스위스에서는] 은행, 알콜전매의국유화를요구하고있다. 헌데우리는부르주아국가에의한이러한공동재산의취득에서는근로자, 생산자및소비자의수중으로나라의부가인도되는것을방해하는최대의장애물의하나를발견하는것이다.

우리가보는바로는그것은자본가를강화하여반항하는노동자에대한투쟁에있어서자본가의힘을키워주는수단인것이다. 자본가중에서도현명한인사는이일을잘간파하고있다. 이를테면그들의철도자본은철도가일단국유재산으로되어국가의손에군대식으로운영되면훨씬안전한것으로된다는것이다. 사회현상을그총체에있어서전망하는데익숙한사람들에게는다음점에관하여의심할여지가없을것이다. 이것은사회적공리로서다음과같이표현된다. ‘바람직한방향으로한걸음내딛지않고서사회변혁을준비할수는없다. 이방향으로걸어가지않는다면목적지로부터멀어질뿐이다’라고.

그리고실제로, 만약생산과교환을의회, 각료, 현금의관료들의손에넘겨주는데서착수한다면, 그것은생산자와소비자가스스로생산의주인이되는시점에서떨어져나감을의미할것이다. 국가가대자본의종자從者인이상, 금일이들의무리는당연히대자본의도구다.

새로운독점을, 더욱이틀에박히듯이구독점자의이익이되도록신설하면서과거에성립한독점을파괴한다는것이도대체될법한말인가.

교회와국가는, 특권계급이대두하여자기의지위를확립하기시작할때, 일체의특권과잔여의민중에대한권리와의합법적소지자가되고자의거하는정치권력에지나지않다. 이것을잊어서는안된다. 국가란이들의특권을누리기위한지배자상호간의보증을확립하는제도인것이다. 국가는농민과노동자에대한특권계급의지배를강화할목적으로몇세기에걸쳐정비되어만들어내어진것이다. 그결과이제교회도국가도이들의특권을제거하는데유용한힘이될수는없다. 하물며이들의특권이제거된때에등장해야할사회조직의형태는더욱될수가없다. 역사는우리에게가르치고있다. 국민생활속에매양새로운경제형태가나타날때마다 - 이를테면노

예제가능노제로, 농노제가임금노예제로교체할때마다 - 새로운정치적결합의형태가나오지않으면아니되었다는것을.

교회가인간을옛적의미신의속박에서해방되기위하여, 또한인간에게자유로받아들여진새로운윤리를제공하기위하여일찍이한번도이용된예가없듯이, 또일체의인간의평등, 연대성, 통일의감정이, 입을벌리기만하면모든종교가가이구동성으로설교함에도불구하고교회에의하여주어진것과는전혀다른형식을취하고서야비로소인류간에널리전파되었듯이, 이와똑같이경제적해방이성립하는것도국가속에표현된낡은정치적형태가분쇄될때가아니고서는가망이없다. 금일국가가그관료간에분배하고있는사회적기능을대신수행할새로운조직형태를인간은찾아낼필요가있겠다. 이것이되지않는한아무일도할수없으리라. 아나키즘이노력하는것은이러한새로운사회생활형태가꽃피어나오도록하기위해서이다. 그리고이개화는근대적지식의도움을얻고민중의창조력이발휘되어, 위대한해방운동이성취된과거의어느시점에나항상그랬듯이금후도또한기필코달성되리라고본다.

그러니만큼아나키스트는입법자의역할도, 다른일체의국가적활동도거부한다. 우리는법률에의하여사회혁명을발생시킬수없음을알고있다. 왜냐하면법률은비록그것이헌법제정의회에의하여길거리의대중적압력아래채택되는것이라할지라도 [그렇지않고서는어떻게가결될수있을것인가, 의회에서는다종다양하게대립하는제이해를화해시키지않으면안되는것이고보니], 또한그것이이미채택된뒤의것이라하더라도, 요컨대일정한방향으로행동할것의승낙에불과한즉, 민중속에위치한활동가들이그에너지, 그창의, 그조직적?건설적재능을마음껏행사하도록부르는초대장에그치는것이다. 그런데그러기위해서는법률의정식定式과원망願望을현실생활의사실로전화시키는능력을가지고또한그용의가있는힘들이거기에존재하지않으면안된다.

이와같은이유에서다수의아나키스트들은인터넷서널의출현이래금일에이르기까지자본에대한노동의직접투쟁의목적으로산출된노동자의제조직에적극적으로참가해왔다. 이투쟁은일체의간접적행동보다도훨씬노동자의생활을얼마만큼이라도개선하는역할을해왔다. 그것은또자본주의기구와그것을지지하는국가가사회에초래하는해악에대하여노동자의눈을열어주었고동시에자본가와국가의개재를허락하지않고서관계자상호간의소비, 생산, 직접적교환을어떤식으로조직할것인가하는문제에대하여노동자의사고를일깨워주었다.

자본과국가의간섭에서해방된사회에서의노동생산물의분배형식에관해서는앞에서말한것처럼아나키스트의견해는분열해있다.

가령국가가금일에이미철도, 우편, 교육, 상호보험, 국토방위를그수중에넣고있는것과같이생산과교환수단까지도소유하게된다면, 그때출현할새로운형태의임금제도에반대하는점에서는모든아나키스트가일치한다. 이미국가가장악한힘 [조세, 영토방위, 국교회國敎會등] 에다이러한새로운힘, 즉산업의힘까지첨가한다면거기서나올것은압제의새로운무서운도구일것이다.

그러므로금일아나키스트의대부분은아나르코코뮤니즘의해결책에결집하고있다. 문명사회에서가능한코뮌주의의형태는단하나아나르코코뮌주의의형태라는견해가점차받아들여지기시작하고있다. 코뮌주의는본질적으로평등주의이고, 더욱이일체의특권의부정을의미한다. 다른한편으로어느정도의규모를가진무지배사회가가능키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만인에대하여공동으로생산된최소한의생활물자를보장하지않으면안된다고보는것이다.

이리하여코뮌주의와아나키즘은필연적으로상호보완하는두개의이념이다.

그러나코뮤니즘이란큰조류와나란히아나키즘속에개인주의의복권復權을발견하는또하나의조류도여전히존재한다. 끝으로이조류에대하여약간부언하겠다.

## 개인주의적조류

아나키즘에있어서의개인주의적경향이란지나간시대의유물처럼생각된다. 말하자면이왕에는생산방법이금일과학과기술의진보로말미암아가능케된그러한능률을전혀달성하지못했고, 그런시대에코뮌주의라하면일반적인궁핍및예속화와같은것으로보이고있었다.

60년이전에는미상불사소한여유도, 약간의여가도, 남의노동력을착취하는극소수의인간에게만허락되었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경제적독립을존중하는사람들은자기네가소수의특권자에속하지못하게될날을일종의공포심을갖고내다보았다. 당시푸르동이프랑스의전생산을1인당1일5스으라고계산하고있었음을잊어서는안된다.

그러나 금일은 벌써 이장애는 없어졌다. 농업에서도 공업에서도 인간 노동력의 거대한 생산성이 달성된 결과 [줄지 『전원, 공장, 작업장』 참조], 만인에 대한 고도의 복지 수준을, 현명하게 조직된 코뮌주의적 노동으로 극히 용이하게, 더욱이 단시간 내에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벌써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더욱이 이 때에 각인은 하루 4,5 시간의 노동이 요구될 뿐이고 적어도 하루 5 시간의 아주 자유로운 여가의 시간을 만인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코뮌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반대론은 벌써 근거가 박약한 것으로 되고 있다.

그건 그렇고, 개인주의적 조류는 금일 두 개의 주요한 지맥으로 갈려져 있다. 첫째는, 슈티르너의 의미에서의 순개인주의자이다, 이 경향은 최근에 와서 예술적 향기가 높은 니체의 저작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여상세히 논하지 않겠다. 이미 앞에서 나온 한장에서 말했듯이, 이 '개인의 학립'이란 것은 형이상학적이어서 실생활에서 거리가 멀다. 또한 그것은 일체의 해방의 기초를 이루는 평등의 감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끌어간다. 어째서 그려냐하면, 남을 지배하려고 욕망하면서 자기를 해방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뿐더러 그것은 '개인주의자'라자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족, 승려, 부르주아, 관료 등 그들 자신을 대중보다 '우월한' 자라고 자부하는 소수자에게 접근케 하며 국가, 교회, 법률, 경찰, 군부 기타의 오랜 세월에 걸친 온갖 압제는 다름 아닌 그들 특권적 소수자의 존재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의 지맥은 푸르동의 의미에서의 상호주의자들로 형성된다. 이들의 아나키스트는 사회문제에 해결을 구하여 노동권에 의한 생산물의 교환을 도입하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조직을 형성하려고 했다. 노동권은 주어진 공업적 수준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 수 또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개인이 소비한 시간 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그러나 사실 인증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동주의 [코뮤니즘] 와 개인주의 간의 타협을 표현한다. 말하자면 생산자에 대한 보수에는 개인주의가, 반면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해서는 공동주의가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이중성은 우리가 보는 바로는, 이런 형식의 제도가 운영될 적에 극복이 안될 장애물일 것이다. 두 개의 대립하는 원리, 즉 한편으로는 일정한 날짜까지 생산된 모든 것을 공유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된 것에 대하여 개인주의를 보존한다. 게다가 그때 이러한 개인주의 원리는 취미도 수요도 무한히 다양한 사치품 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평가가 한결 같이 정해져 있는 생활 필수 물자의 생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원리로 사회가 조직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다음과 같은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즉 거대 사회에서 산업이 발달해 있는 경우 지방에 따라 기계와 생산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정 말이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까닭으로 어떤 기계를 갖고 같은 양의 노동을 투하한 결과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2 배나 3 배의 생산량을 올릴 것이다. 이를테면 금일의 직물 산업의 경우 직기·織機의 성능에 대단한 차이가 있으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관리할 수 있는 직기의 수는 3 대에서 20 대 [노오스로프식 직기] 까지로 차이가 난다. 다른 한편으로 또, 상이한 생산부문에서 개개 노동자가 소비하는 근육 노동과 두뇌 노동과의 힘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한다면 과연 노동 시간이 생산물의 매매 교환상의 척도로서 쓸모가 있는지 어려워 하는 문제 가나 올 것이다.

현금의 상업적 교환이라면 이야기는 알만하다. 그러나 노동력이 매매되는 상품이기를 그쳐서 벌써 거래 대상이 아닌 노동 시간이란 것에 평가의 기초를 두는 매매 교환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 시간이 생산물의 등가 [오히려 근사치적 평가액]를 산정하는데에 쓸모가 있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생활 필수 품에 공동주의적 원칙이 승인되고 있는 사회에서 뿐일 것이다.

만약에 개인적 보수란이념에 대한 양보로서 '단순' 노동 시간에 대한 보수 외에 미리 수업修業의 연한을 요하는 '숙련' 노동에 대한 특별의 보수를 도입하거나 직원의 계층 제도에 있어서의 '승급의 기회'를 설정하거나 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 폐단을 제거하는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는 현금의 임금 제도의 특징을 부활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상호주의자의 이념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농업에서 다소간의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 거기서는 약간의 대농장 조직에서 작용을 계속하고 있는 듯하다. 이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하겠다.

상호주의자에 접근하는 것은 아메리카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이니 그들은 19 세기 50 년대에 S.P. 앤드류스, W. 그린, 후에는 리산다 '스푸너', 그리고 금일에는 여러 해에 걸쳐 『자유』지를 발행하고 있는 벤자민 터커에 의하여 대표된다.

그들의 이념은 푸르동에서 유래하고 있으나 동시에 허버트 스펜서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들은 아나키스트를 구속하는 단 하나의 법이 있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일에 스스로 종사한다는 것이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개개인 및 개개 집단은 제각기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으며, 가령 그렇게 할 힘이 있기만 하다면 전

인류를 복종시켜도 상관없다. 만약에 이들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면 하등 위험할 것은 없다고 터커는 말한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힘은 다른 모든 개인의 마찬가지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견으로서는 형이 상학에 과대한 경의를 갖고 공상적 억측을 함부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자가 그렇게 할 힘이 있기만 하다면 전인류를 복종시킬 권리가 있고, 더욱이 이 권리라는 타인이 가지는 평등한 권리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말투는 그야말로 변증법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실제 생활의 영역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원의 한 사람의 일이다 성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고 그다수에게 무관계한 그런 사회 또는 다소간의 공통한 사항을 가지는 사람들의 단순한 집합체를 상상해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물며 성원간의 부단의 상호 관계가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각인의 관심을 조금도 환기하지 않고 사회에 대하여 자기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행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생각해보려고 해도 그 것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겠다.

그런 까닭으로 터커는 스펜서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국가 비판론을 전개하고 개인의 권리의 강력한 변호론을 펴는 일방, 타면으로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승인하면서 결국은 개인주의자의 시민들이 서로 동류간의 싸움을 연출하지 않도록 한답시고 국가를 재건하기에 이른 것이다. 허기야 터커는 국가에 대하여 그 성원을 옹호할 권리만을 승인했다. 하지만 금일 보이는 바와 같은 막대한 권리를 갖춘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권리와 기능이 승인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다.

미상 불국가제도의 역사를 검토해본다면, 개인의 권리의 옹호라는 이 구실 아래 세워지지 않은 국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법률, 침해된 개인을 보호할 권한을 받은 관리들, 법률의 적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세워진 계총제, 법률의 원류를 연구하기 위하여 개설된 대학, 법의 이념을 신성화하는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급제도, 병역의 의무, 그 전매권, 끝으로 그 해악과 그 압제 - 이 모든 것은 타인에 의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 보호한다고 하는 이제 일의 구실에서 발전해나온 것이다.

이상 간략하게 개관한 것만 가지고 도어째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체계가 부르주아적 '지식인' 간에 신봉자를 가졌다 뿐 근로자 대중간에 거의 보급되지 못했던가 그이유가 판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가 그동지인 공동주의자에 대하여 퍼붓는 비판의 중요성을 승인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그들은 아나르코코뮌주의자가 중앙집권주의나 관료주의의 편으로 빠져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체의 자유 사회의 제일의 원천인 자유로운 개인에 항상 정신을 쓰도록 설득한다. 낡은 미신에 빠져버리는 경향은 진보적 혁명가들 간에서 조차 너무도 많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아는 바이다.

금일 아나르코코뮌주의는 노동자간에 - 특히 라틴계 제국의 노동자간에 - 확고한 지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들 노동자는 다소간에 목전에 박두한 혁명 행동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벌써 국가의 혁택에 신뢰를 두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제정당의 무익한 선동의 권외에 노동자의 전투력을 단결시키고 선거라는 허황한 기구와는 별개의 유효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헤아릴 수 있도록 된 노동 운동은 아나르코코뮌주의의 제이념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예상하더라도 이는 필시 과대한 희망적 관측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도시와 농촌과의 근로 대중간에 진지한 운동이 전개되기 비롯할 때, 아나키즘의 방향을 향하여 무엇인지가 기도될 것이다. 그리고 이기도는 1793년 및 1794년의 프랑스 인민에 의한 그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 14. 아나키즘의 약간의 결론

아나키즘의 기원과 그 원리를 서술한 후, 이번에는 우리의 이념이 현대의 과학과 사회 운동 가운데서 차지하는 지위를 좀 더 정확히 결정하는 두 서너 본보기를 제시하겠다.

예컨대 사람들이 대문자를 쓴 법에 관하여 '법이란 진리의 객체화이다'라느니, '법의 발전 법칙은 인간 정신의 발전 법칙이다'라느니, 혹은 또 '법과 도덕은 동일하다. 다만 형식에 있어서 다른 뿐이다'라고 언명할 때, 우리는 이런 따위의 듣기 좋은 문구에 대하여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가 그랬듯이 마이동풍으로 흘려버린다. 이와 같은 문구를 써놓은 사람들은 그것을 심원한 진리라고 확신하고 이러한 사상에 생각이 미치기 까지 많은 정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상가는 사도 邪道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처럼 그럴듯하게 들리는 문구가 표현하는 것은 아주 황당무계한 기초 위에 구성된 무자각적인 일반화의 시도에 불과 할 뿐 더러 사람들을 최면술에 걸려고 명문구로 흐려놓은 일반화에 불과하다.

기왕에는 법률에다 신적 神의 기원을 부여하려고 노력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짓물 織物의 진화나 벌이 꿀을 만드는 방식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법관념의 기원과 그 발달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학자들의 노작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미개인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습속과 법관념을 연구하고 역사상의 각 시대의 법전을 통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의 법률의 점차적 발달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 나온 한 장에서 말한 결론에도 달한다. 즉 일체의 법률은 이 중의 기원을 갖고 있으니 이 접이 바로 관례에 의하여 세워져 어떤 시대의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적 규칙을 표시하는 관습에서 법률을 구별하는 것이다. 법률은 이들의 관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결정 결집 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소수 지배자와 군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새로운 문제도를 슬쩍도 입하려고 항상 이 관습에 편승한다. 이를테면 법률은 노예제도를, 또한 계급 분화를, 그리고 가장家長, 승려, 군인의 권력을 도입하거나 신성화하거나 한다. 또한 그것은 농노 제도를, 후에는 국가에 의 예종을 슬쩍 끌고 들어온다.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를 쓰게 되어, 벌써 유혈의 혁명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명예를 벗어 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어느 시대나 사태는 이렇게 진행해 왔고, 그리하여 현대에 이르고 있다. 같은 사정은 금일의 소위 노동 입법에 대해서도 말하여 진다. 이 입법은 '노동자의 보호'를 공인된 목적으로 국가하면서 실상은 연중에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때 국가에 의한 강제적 중재 [강제적 중재란 - 이무슨 모순이랴] 란 관념을 집어 넣고, 혹은 일일 죄 저몇 시간이라는식으로 강제 노동 시간의 원칙을 삽입한다. 이리하여 스트라이크에 있어서 절도의 군대식 착취의 길이 열리고 또는 이전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빼앗긴 아일랜드의 농민의 소유권 상실에 법적인 가를 부여한다. 혹은 또 질병이나 노령 보험이나 실업 보험의 제도마저도 도입되나, 이것으로써 국가는 노동자의 매일 매일을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손에 넣어 국가와 관료의 인가 없이는 노동자가 제 맘대로 휴가를 할 수 조차 없게끔 할 권리 를 확보한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사회의 일부가 사회 전체에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한, 금후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자본주의의 주요한 지주인 국가 권력을 향상 증대시켜간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은 이 사정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만큼 고드윈이래 아나키스트는 일체의 성문법을 부인하는데 일관했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누구나 어느 입법자보다도 몇 갑절이나 정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나키스트에게 정의란 평등과 같고 평등 없이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반론이 우리들 앞에 제출될 것이다. 즉 법률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일체의 도덕을 또한 부인하게 된다. 칸트의 이른바 '정언적 定言의 명령'을 우리 가인 정안하기 때문이라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러한 반대론의 어법 자체가 우리 이해를 초월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그것은 도덕성을 연구하는 자연 과학자가 그것을 불가능하고 기이한 것으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논쟁에 들어 가기 전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것이다. '이정언명령이란 말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의 미하려 하는가. 당신은 자기의 주장을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라프라스가 고등 수학의 공식을 만인에게 알려지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했던 것처럼. 대학자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던 것이다. 어째서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실제로 '보편법칙'인 '정언명령'이니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의미는 '남이 너에게 대하여 하여지고 싶지 않은 것을 너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관념이 만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단히 좋다. 우리도 [허치슨이나 아담스미스가 한 것처럼] 어디로부터 이도덕적 관념이 인간에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발달해왔는지 연구하자.

다음으로 정의의 관념이 얼마나 평등의 관념을 함축하고 있는지 연구하자. 이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다. 왜 그 런고 하니, 타인을 자기와 평등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남이 너에게 하여지고 싶지 않은 것을 너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에 따를 수 있겠기 때문이다. 농노 소유자나 노예상인들이 '보편법칙'이나 '정언명령'을 농노나 흑인에 대하여 승인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노나 흑인을 평등자라고 인정 안 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 의이 말이 옳다면 불평등의 관념이 주입되어 있는 곳에도 덕성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지 검토해보지 않으려는가.

끝으로 우리도 퀴이요처럼 '자기희생'이란 무엇인가 분석해보자.

그런 뒤에 인간의 도덕적 감정 - 예컨대 이웃 사람에 대한 평등사상에 표현된 감정이 발달하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인 무엇인지 검토해보자. 이 세 가지 연구를 하고 나서 야비로 소어 떠한 사회 조건과 어떠한 사회제도가 미래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를 약속하는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종교가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경제? 정치적 불평등이, 나아가 서도 법률, 형벌, 감옥, 재판관, 옥리 獄吏, 사형집행인이 도덕 감정의 발달에 얼마 만큼 기여하는 것인가를 이해할 것이다.

이 모두를 하나 하나씩 상세히 연구하자. 그래서 야비로 소우리는 도덕에 대하여, 그리고 법률, 재판, 경찰관의 도덕적 감화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중간한 지식의 천박하고 피상적 임을 은폐하는데 소용이 있을 뿐인 거창한 말들은 쓰지 않는 편이 좋겠다. 이들의 과대한 망언도 어떤 특정의 시기에는 불가피 했을 지 모르겠다. 그것이 일찍이 유익했던지 어떤지는 의문이지만, 그러나 금일은 우리가 정원사나 식물학자가 식물의 생성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연구하는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현하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의 연구에 착수 할 수 있는 정세에 있으니 그와 같이 해보지 않으려는가.

경제학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완전히 개방된 시장에 있어서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의하여 계산된다" [리카도, 푸르동, 마르크스 기타 참조] 고 경제학자가 말할 때도 이 주장이 이리한 권위자들에 의하여 말해졌으니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계산하는 참된 척도이다라고 주장하면 '아주 사회주의적'으로 들리니까라든지, 하는 이유로 이 주장은 우리 자신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명제가 올바를 수도 있다. 그러나 제군이 그렇게 언명함에 의하여 제군은 가치와 노동량이 필연적으로 비례하는 것이고 그것은 꼭 낙하하는 물체의 가도價度와 낙하의 계속하는 초수秒數가 비례하는 것과 완전히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생각이 미치지 않는가. 이와 같이 하여 제군은 이 두 가지 크기 사이에 특정한 양적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군은 양에 관한 단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한 가지 길인 계량을, 다시 말하면 양적으로 계산된 관찰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환 가치는 필요 노동의 양이 증대할 때에 증대한다" 고 제군도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담스미스도 이미 결론 했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이들 두 개의 양은 정비례하여 한 편은 다른 편의 척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것은 비유하면 명일의 강우량은 청우 계晴雨計가 일정한 계절에 특정의 장소에서 설정된 평균점이 하로 몇 밀리 내려갔는가, 그 양에 비례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큰 잘못이다.

청우계의 강하와 강우량과의 사이에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최초에 주목한 사람, 그리고 매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돌은 겨우 1 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돌보다 훨씬 큰 속력을 얻는다는 것을 처음 인정한 사람은 과학적 발견을 한 사람이다 [아담스미스는 이것과 같은 일을 가치에 관하여 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리한 발견자의 뒤에 나타나 강우량은 청우계가 평균점에서 내려간 저울 눈의 양에 따라 계량된다느니, 낙하하는 돌이 통과하는 공간은 낙하의 시간에 비례하고 그것에 의하여 계량된다느니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지껄이고 있을 뿐이다. 뿐더러 이런 사람은 과학적 탐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저작은 과학적인 것이 아님을 - 비록 그 책이 과학적은 어隱語에서 빌려온 용어로 장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상품의 가치와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양을 정밀한 척도로 확정하는데는 정확한 데이터가 결여되어 있다는 핑계를 한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구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자연 과학에서는 두 개의 양이 상호의 존하여 한 편이 불어나면 다른 편도 불어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허다한 상관 관계의 사례가 있다. 예컨대 식물의 성장 속도는 무엇보다도 그 식물이 받는 열과 광의 양에 의존한다. 또한 총포의 반동은 탄약통의 화약의 양을 증가하면 증대한다.

그러나 무릇 학자 라이를 만한 학자라면 - 양자의 양적 관계를 계량함이 없이 - 이상의 결과로서 식물 발육의 속도와 그것이 받는 열량, 그리고 총 포의 반동과 탄약 통彈藥筒의 화약 양은 정비례한다고 하는 기묘하기 짝이 없는 사상을 주장하겠는가. 만약에 한 편이 2 배, 3 배, 10 배로 증가한다면 다른 편도 같은 비율로 증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바꿔 말하면 가치와 노동량에 관하여 리카도가 이후 주장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자는 한 편이다른 편에 의하여 계량된다고 논하는 그런 과학자가 있겠는가.

이러한 종류의 관계가 두 개의 양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는 가설을, 즉 가정을 만들어 놓고 서대답 무쌍하게도 이 가설을 법칙이라고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단정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오직 경제학자나 법학자들 즉 자연과학에서 '법칙'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편의 지식도 안 가진 사람들 뿐이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양 사이의 관계는 극히 복잡한 것이니, 이는 가치와 노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교환 가치와 노동량은 서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한 편이다른 편에 의하여 계량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한 것은 아담스미스였다. 그는 각 물품의 교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하여 계량된다고 말한 뒤에 [상품의 가치를 연구한 후] 즉시 이렇게 부언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즉 원시적 교환제도 아래서는 그러했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제도 아래서는 벌써 그렇지 않게 되었다고. 이는 완전히 옳다. 강제 노동과 이윤 추구의 교환이란 자본주의 제도는 이와 같이 단순한 관계를 파괴하여 노동과 교환 가치 사이의 관계를 변경시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원인을 도입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경제학에 종사하는 일이 못된다. 그것은 관념을 혼란시켜 경제학의 발달을 방해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가치에 관하여 앞에서 지적한 바는 거의 모든 경제학적 명제에도 들어맞을 것이다. 이들의 명제는, 금일에는 확고부동한 진리로서 - 특히 과학적 사회주의자라고 즐겨 자처하는 사회주의자들 간에 - 받아들여져, 애깃거리로도 안 될 만큼 나이브 (소박)하게 자연 법칙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현대인들의 소위 법칙의 대부분이 옳지 못한 것일 뿐더러 이들의 법칙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저 만약에 그들의 수량적 명제를 마찬가지로 수량적 연구에의 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된다면 곧이들이 법칙이 그릇된 것임을 스스로 납득하리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들 아나키스트에 대하여 경제학은, 경제학자들 - 부르주아 진영에 속하건 사회민주주의 입장에서 있건 - 에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본래 과학적, 귀납적 방법은 이들 양쪽 경제학자의 관여하는 바 아니므로 그들은 '자연 법칙'이란 표현을 함부로 쓰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무릇 자연 법칙은 조건부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자연 법칙은 항상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리이러한 조건이 자연 속에 발견된다면, 결과는 이리이러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교차하는 점의 양면에 등각 等角을 짓게끔 한 직선이다른 직선과 엇갈린다면, 그 결과는 이리이러한 것으로 될 것이다. 만약에 성좌 星座 간에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운동만이 두 개의 물체에 작용하고 그리고 무한이 아닌 거리에서 이들의 두 개 물체에 작용하는 다른 물체가 없다면, 이들 두 개 물체의 중심重心은 이리이러한 속도로 서로 접근할 것이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러한 식이다. 항상 여기에 '만약에'가 달려 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다.

결국 경제학의 이른 바 법칙이나 이론이란 것은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명제에 불과하다. 즉 '만약에 어딘나라에 국가가 [조세의 형식으로] 강요하려는 조건, 그리고 국가가 토지, 공장, 철도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1 개월도, 아니 반 개월 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다수의 인간이 항상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이리이러한 것으로 되리라'.

지금 까지에는 언제나 경제학은 이와 같은 조건 아래 일어나는 일의 열거로 끝났던 조건 그것을 열거하거나 분석하는 일은 없었다. 경제학은 이들의 조건이 개개의 경우,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이들의 조건을 버티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설사이들의 조건이 어디에선가 언급된 경우에도 곧장 잊혀버리고 말았다.

경제학자는 그러나 이리한 조건을 깨끗이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들의 조건의 결과로서 유래하는 제사실을 숙명적으로 확고부동한 법칙으로서 제시했던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학에 관해서 말하면, 그야 물론 이들의 결론을 약간 비판하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약간의 결론을 해석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학도 또한 예에 빠지지 않고 앞에서 말한 조건을 망각하고 항상 자기 자신의 길을 계속 걷지 않았다. 그것도 역시 전철을 끊어 구태의 연한 상태에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학이 [마르크스에 있어서] 달성한 최대의 성과도 요컨대 형이상학적 부르주아적 경제학의 정의를 섭취하여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보라, 제군의 정의를 받아들여도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이와 같은 얘기라면 펌플릿 같은데서는 기분 좋게 들리겠지만 과학으로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

일반으로 학學으로서의 경제학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그것은 자연과학으로서 다루어져 새로운 목적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리학이 동식물에 대하여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지위를 경제학은 인간 사회에 대하여 차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사회 생리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목적으로서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사회의 부단히 성장하는 수요와 그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쓰이는 각종의 수단의 연구가 아니면 안된다. 그리고 이들의 수단을 분석하여 그것이 어느 정도로 과거 및 현재에 이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베론이 오래전에 지적한 것처럼] 모든 과학의 최종 목적은 예보와 실제 생활에의 적용에 있는 이상, 경제학도 금일의 모든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수단, 말하자면 최소의 에너지 소비 [경제]에 의하여 인류 일반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단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 하여다음의 것이 명백할 것이다. 즉 우리는 부르주아 경제학 및 사회 민주주의 입장에서 있는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의 결론과는 몇 가지 점에서 아주 다른 결론에도 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들에 의하여 지적된 몇 가지 상관 관계를 '법칙'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사회주의론은 그네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 우리 가현실의 경제 생활 가운데 관찰하는 발전 경향의 연구에서도 출한 결론은 원망願望과 가능성에 관하는 그들의 결론과 크게 차이를 가진다는 것, 바꿔 말하면 그들이 도달하는 귀결이 국가 자본주의 및 집산주의 적임금 노동제임에 반하여 우리의 그 것은 자유 공동주의라는 것 등이다.

우리가 잘못이고 그들 편이 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지는 모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릇되었나를 검토코자 하면 그것은 어떤 저술가의 논설에 대한 또는 설說하려고 한 것에 대한, 비산친식 주해註解에 의하여 할 수도 없으려니와 헤겔의 3 부작을 원용함에 의해서도, 하물며 저변증법적 방법에 호소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자연 과학의 제사실을 연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 관계의 연구에 착수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아나키즘은 언제나 이동 일한 방법에 의하여 사회의 정치 형태 특히 국가에 관한 아나키즘 독특한 결론에도 달한다. 아나키스트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형이상학적 명제에 굴복할 수 없다. '국가란 사회에 있어서의 최고의 정의는 관념의 확증이라'느니, '국가는 진보의 도구이고 그 담당자라'느니, '국가 없이는 사회가 없다'는 따위의 주장 말이다. 아나키스트는 자기의 방법론에 충실히 따라, 흡사히 자연 과학자가 개미나 벌이나 북국의 호반에 집을 지으려고 날아오는 새들의 사회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국가의 연구에 대처한다. 우리는 이미 10 장과 12 장에서 된 짧은 요약과 거의 정치 형태 및 미래의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바람직한 진보에 관한 연구 성과를 말했다.

부언하면 우리들의 유럽 문명 [우리가 속하고 있는 과거 15 세기 간의 문명]에 있어서 국가는 16 세기 이르러 발생한 사회 생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그 것은 일련의 원인의 영향 아래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줄지 『국가와 그 역사적 역할』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국가는 - 로마적 형태로는 -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가가 역사의 교과서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것은 역사가들의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고 이들의 역사가는 프랑스 왕조의 계보를 메로빙거가의 수장 首長에 까지, 러시아의 그것을 류리크까지 소급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참 역사의 빛에 비춰보면 근대 국가는 중세제도 시의 폐허 위에 구축되었을 뿐이다.

다른 한 편으로 정치? 군사적 권력으로서의 국가 및 근대 정부의 사법과 교회 및 자본주의는 서로 분리 할 수 없는 제제도라는 것이 밝혀진다. 역사상이들 네 개의 제도는 상호 보강하면서 발달해 왔다.

그것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서가 아니라 서로 굳게 결합되어 있다. 그것들 사이에는 인과의 연결이 있다.

국가란 요컨대 인민에 대한 지배 권력과 빈민의 착취를 각자 가보장하기 위하여 지주, 군부, 재판관 및 목사 간에 맺어진 상호 보험 회사와 같은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원이고 그 역사다. 그리고 금일에 와서는 그 본질을 이룬다.

국가를 유지 시켜 그 원조를 받아 가지고 동시에 자본주의를 배제할 것을 꿈꾼다는 것은, 국가란 것이 본래 자본주의의 발달을 조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언제나 자본주의와 더불어 성장하고 강화되어 온 이상,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노동자의 해방을 교회나 시저주의의 도움을 얻어 성취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邪道이다. 하기는 19 세기의 30 년대, 40 년대, 심지어 50 년대 까지도 사회주의적, 시저주의적으로 공상한 술한 몽상가들이 있었다. 더욱이 이전통은 바부프의 시기로부터 금일 까지 계속되고 있다. 허나 20 세기에 들어와서 아직 까지도 이와 같은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도 소박하다고 하겠다.

경제 조직의 새로운 형태에는 정치 조직의 새로운 형태가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변혁이 혁명을 통하여 급격히 발생하거나, 아니면 점차적 진화에 의하여 완만히 생기거나, 여하튼 경제와 정치의 양면의 변혁은 서로 손잡고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적 해방을 향한 일보, 일보, 즉 자본에 대한 진정한 승리의 하나님 나는 동시에 권력에 대한 승리 - 정치적 해방을 향한 일보일 것이다. 그것은 당사자 전원의 지역적, 직업적 및 기능적인 자유로운 협정의 방식으로 되는 국가의 명에로부터 풀려 놓임이라 하겠다.

## 15. 행동의수단

아나키즘이 그 연구 방법이란 점에서나 그 근본 원리 한 점에서나 강단 講壇 과학뿐 아니라 사회 민주주의의 동 배 同輩 와도 큰 차이를 가지는 만큼 행동의 수단에 있어 서도 또한 이들 양자와 다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법? 법률? 국가관에서 보면 국가에 대한 개인의 점점 증대하는 종속 속에 진보의 보증을 찾아 낼 수도 없겠거니와 하물며 사회 혁명에로의 접근을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기원은 '생산의 무질서 상태'에, 즉 이른바 '국가의 무간섭의 이론'에 있고, 국가는 '자유방임'의 정식을 실시한 것이다, 라는 따위의 천박하고 피상적인 사회 평론가들의 입버릇을 우리가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지 않으니 말이다. 정부는 적빈赤貧 상태로 몰아세워 진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추구할 자유를 자본가들에게 제공한 반면, 19 세기의 과정의 어디서도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를 준 일이 없었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유방임'의 정식을 일찍이 한번도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어째서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

프랑스에서는 저사나운 '혁명적' 자코뱅의 회마저 스트라이크에 대하여, 조합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나폴레옹 제국이나, 되살아난 왕조나, 부르주아 공화제 하의 사정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영국에서는 1813년에 스트라이크를 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하여지는 형편이었는데, 1831년에는 노동자가 대담하게도 버트 오언의 노동 조합을 만들려고 한 탓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형되었다. 60년대가 되어서도 '노동의 자유옹호'라는 주지의 구실 아래 스트라이크 참가자는 강제 노동에 보내어지는 형편이었다. 금일에 와서도 1903년에 영국의 어떤 회사는, 노동 조합이 스트라이크에 즈음하여 노동자가 공장에 들어가 취업하는 것을 그만두게 했다는 혐의로 [이른 바 피켓팅] 회사 층에 127만 5천 프랑의 손해액의 징벌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리옹에서의 아나키스트의 소요와 몬소광산에서의 노동자들의 운동의 결과 겨우 1884년에 노동 조합의 설립이 허가 되도록 된 프랑스에 대해서는 불문가지다. 벨기에, 스위스 [아이로로에서의 학살을 상기해보라!], 더군다나 독일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새삼 부언할 필요도 없겠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그 조세에 의하여, 또한 그 손으로 만들어 놓은 독점에 의하여, 얼마나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를 꼼짝 달싹도 못하게 손발을 뚫어 공장주에게 인도하고, 그들을 빙궁의 밑바닥으로 밀어 넣었던가를 상기해야겠다. 영국에서는 지방의 귀족들 [그들은 단지 재판관에 불과 했고 지주는 결코 아니었다] 이 공유지를 횡취하여 그들의 영유로 귀속 시킴으로써 공유지를 파괴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현재도 역시 니콜라이 2세의 정부의 손으로 농민의 공동체에서 토지를 갈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새삼 재언할 것도 없으리라.

끝으로 이집트, 통킹, 트란스발과 같은 정복된 나라는 말 할 것도 없고, 여태껏 모든 국가는 예외 없이 온갖 종류의 거대한 독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매년 각국의 회가 새로 운 독점을 철도, 전차, 가스, 수도, 전기, 학교, 기타 만반의 영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마르크스가 과거의 조건으로서 말한 본원적 축적을 새삼 꼬집어 낼 필요도 없을 게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찍이 한번도 어느 국가에도 1년이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자유방임'의 체제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항상 국가는 자본의 지주이고 지지자이고, 또한 직접 간접의 창조자이기도 했고, 금일도 여전히 그러하다. 따라서 '무간섭'의 체제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은 대중의 빈곤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논증 코자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에 대해서나 허용될 일이지 사회주의자가 노동자를 보고 이동일한 문구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착취에 저항하는 자유는 여태껏 일찍이 한번도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도처에서 이 자유를 싸워서 얻기 위하여 일보, 일보, 미증유의 희생자로 싸움터를 메우면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간섭'과 그리고 단순한 '무간섭' 이상의 것이 - 원조, 지지, 비호의 손이, 항상 착취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내밀어져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는 달리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주의가 역사 속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코뮌주의로 접근하기 위하여 정치 관계에 있어서 사회주의 독자의 형태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회주의가 뭔은 정치적 형태를 이용할 수 없음은 그것이 종교적 계층제도와 그 교설을, 또한 제정 내지 독재적 통치 형태와 그 이론을 이용할 수 없음과 꼭 마찬가지다. 무슨 방식으로든지 사회주의는 대의 정치 체제보다 훨씬 민중적으로 되어고대로 마식의 포럼으로 일종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대의제에의 존함이 좀 더 적게 되고 자치제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 1871년에 파리의 프롤레타리아가 꾀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1793?94년에 파리 코뮌의 각 구를 비롯해서 기타의 여러 군소 코뮌도 또한 이것을 시도한 것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의 정치 생활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도시 및 농촌의 독립 자주의 코뮌이 형성되어 이것들이 가지각색의 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각기 특수하고 특정한 목적으로 체결된 연합적 협약에 의하여 결합하는 아주 뚜렷한 경향이 짹트고 있다. 이들의 코뮌은 전주민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 물자의 생산자로 점점 전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코뮌의 경영으로 운영되는 전차 외에도 원거리에서 몇 개의 도시의 연합체에 의하여 부설되는 수도가 있고, 다시 가스, 전등, 공장의 동력도 코뮌의 손으로 운영되도록 되었다. 나아가서는 코뮌의 탄광炭坑이나 유제품 공장, [토케이에 있어서의] 결핵환자를 위한 산양방 목장 또는 온수 배급과 채소 밭의 경영 등이 있다.

물론 독일황제도, 스위스에서 권좌에 오른 자 코뱅당원도, 이 목표로 전진하는 자는 아니다. 그들은 반대로 과거로 눈을 돌려 국가의 손에 모든 것을 집중시켜 지역적 및 직능적 독립의 일체의 흔적을 파괴하려고 애쓴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사회에 있는 진보적 부분이다. 거기에는 국가의 테두리 밖에서 조직되어 점점 국가에 대신하여, 한편으로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장악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여전히 자기의 직무로 자인하고는 있으나 여태껏 한번도 적당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가 없었던 제기능까지도 장악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보인다.

교회의 사명은 민중을 지적 예속 상태에 불 들어매어 두는데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사명은 민중을 반기 아상태로 경제적 예속 속에 가두어 두는데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 두 개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안 뒤에는 벌써 우리 가정에 점점 증대하는 국가에 의 종속을 진보의 보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제도는 이론 가의 희망 대로그 성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개인의 최대한의 완전한 해방 속에, 개인과 집단과의 일총광범한 창의의 발달 속에, 동시에 또 한국가의 직권의 제한 속에 - 그 확대가 아니라 - 진보를 구한다.

우리가 전진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선 첫째로 16세기 이래 사회를 깔아뭉개고 계속 자기의 직권을 증대시켜 온 정부 권력의 배제로 향하는 운동이고 둘째로는 협약과 일시적 계약의 요소의 최대한의 발달 및 특정의 목적에 따라 발생하여 각자의 연합에 의해서 사회 전체에 번져 있는 다종다양한 집단의 독립성의 일총광범 위한 발달로 향하는 운동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구조는 결코 최종적 형태를 취하는 일이 없이 부단히 생명에 넘쳐 있고, 따라서 순간마다의 필요에 따라 그 형태를 변해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진보관, 또는 미래에 대하여 바람직한 것 [만인의 행복의 총량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에 관한 우리 의관념은 필연적으로 투쟁을 위한 전술의 형성으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그 전술이란 모든 집단에 있어서, 또 모든 개인에 있어서 최대한의 개인적이니 셔티브를 발달시키는데 있고, 그律적 행동의 통일은 목적의 동일성에 의하여, 그리고 또 모든 이념이 자유로 표현되고 진지하게 토의되어 그 결과 올바른 것으로 인정된 때 필시가 지게 될 신념의 힘에 의하여 달성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나키스트의 모든 전술 위에, 또한 그들이 결성하는 일체의 서클의 내적 생활 위에 자기의 각인을 눌러 찍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정부의 수중에 중앙 집권화 하여, 그 결과 전능으로 될 국가가 자본주의가 닥쳐 오도록 일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국가의 테두리 밖에서 사회의 새로운 조직 형태를 희구하는 진보의 조류에 역행해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회주의의 참된 역사적 과제를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그들의 심각한 사상적 혼미 - 절대주의적, 종교적 편견의 유물이 있다고 우리는 보며,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싸운다. 노동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국가 기구를 말짱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권력자를 바꿀 뿐으로 사회주의의 기구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한 노동자의 지성을 도와서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생활 형태의 탐구로 향하게 하는 대신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범죄이며 하나의 역사적 과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혁명의 당파이고, 따라서 우리 가역사 속에서 연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과거의 혁명의 발생과 발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지금 까지 끊임 없이 역사에 부여 해온 그릇된 국가주의 적 해석에서 역사를 해방하려고 한다. 지금 까지 기록된 각종의 혁명사 속에서 우리는 아직 민중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 하며 혁명의 기원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아는 바 없다. 봉기 전야의 민중의 절망적 상태에 관한 서론에서 보통 되풀이 되는 관용어는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서 개선 가능성이 희망과 신시대의 등불이 나타났고, 반역 정신이 어디로부터 발생하고 어떻게 해서 퍼져나갔는가에 대하여 아무 것도 말 하여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책을 내버리고 우리는 원자료로 대결하여 민중 속에 일어난 각성의 경로에 대하여, 또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행된 민중의 역할에 대하여 그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무엇보다도 자코뱅 클라브에 의하여 지도된 거대한 정치 운동이라고 내다본 루이 블랑과는 달리 이 혁명을 이해한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 속에 무엇보다도 우선 위대한 민중적 운동을 발견한다. 그리고 특히 농촌에서의 농민 운동의 역할을 [농민 반란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자 그리고 아르목사가 역사가 시로 세르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촌락이 자기 자신의 로베스피에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 말하자면 봉건적 농노 제의 유물의 배제와 각종의 욕심 많은 돈 놀이꾼이나 주들의 손으로 농촌 공동체에서 약탈한 토지의 농민에 의한 수탈 - 예컨대 농민들은 특히 프랑스 동부에서 이 일에 성공했다 - 과를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던 운동의 의의를 인정한다.

4년간에 걸쳐 계속된 농민 봉기의 결과 혁명적 상황이 출현했고 도시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코뮌주의 적폐 등으로의 경향이 발전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지는 왕과 귀족의 권력을 착실히 무너뜨려 이 대신 이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수립하려고 고묘하게 활동하여 권력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이 목적으로 부르주아는 완강하게 사정 없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만들어내려고 서둘러 이 국가에 다일체를 병탄併吞시킴과 함께 부르주아지에게 재산권 [혁명 때에 그들이 약탈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까지 포함시켜] 을 보증시키고, 동시에 또 빈민을 착취할 완전한 자유와 국부를 법률적인 제한 없이 마음대로 투기할 자유를 그들을 위하여 인정해 주었다.

이 권력, 이 착취의 권리 - 이 일방적 자유방임 - 를 부르주아는 실제로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정치 형태 - 중앙 집권 국가에 있어서의 대의정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자코뱅 당원에 의하여 산출된 이 국가주의적 중앙 집권 속에 저나 폴레옹 1세는 제정 수립의 알맞은지 반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0년 지나 꼭 같은 방식으로 이번은 나폴레옹 3세가 1848년 경 프랑스에 발전하고 있던 민주주의 적 중앙 집권적 공화제의 이상 속에 있는 제 2 제정 수립을 위한 제요소가 완전히 마련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실제로 70년에 걸쳐 모든 지방 생활을 깔아뭉개고 도시와 농촌에서의 일체의 이니셔티브 뿐만 아니라 국가의 테두리 밖에서의 이니셔티브 [조합 운동, 노동 조합, 사적私的 회사, 코뮌 등] 도 압살한 이 중앙 집권적 세력에 의하여 프랑스는 금일 까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 국가적 약속을 타파하려는 최초의 기도 -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상의 제 1 기를 개척한 기도 - 는 1871년에 가서 파리의 프롤레타리아의 손으로 비로소 행하여졌을 뿐이다.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이렇게 주장한다. 즉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중앙 집권 국가의 수중에 노동 수단의 사회화를 꾀한다고 하는 망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가 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립에 향해 진 그들의 기도가 필연적으로 물고 갈 결말은 곧 공상의 파산이요, 또한 군사 독재일 것이라고.

여기서는 우리의 견지를 확증하는 각종의 혁명 운동을 분석하기를 할애하고 다음과 같이 언명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장래의 사회 혁명은 자코뱅 독재도 아니려니와 국민 공회나의 회내 지독재자의 손으로 행하는 사회제도의 변혁도 아니다. 혁명은 일찍이 한번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 예가 없다. 만약에 노동자의 봉기가 실제로 이러한 방향을 더듬어 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지속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파멸이 약속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혁명은 광범하게 확대하는 혁명이고, 그 사이에 대중이 봉기하는 지방의 모든 도시, 모든 농촌에서 민중이 스스로 사회의 재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중 - 즉 농민과 도시의 근로자 - 이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지령을 기다리지 않고 다소간에 광범한 코뮌주의 적원칙에 입각하여 스스로 건설적, 계몽적 활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만인에게 먹을 것과 집을 주도록 수배하고, 다음으로 만인의 식량, 주택, 의복의 공급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폭력에 의하거나 또는 선거의 결과로 수립된 정부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40년대의 프랑스에서 이름 붙여지고 아직까지도 독일에서 호칭되고 있는 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이건, 혹은 또 환호성으로 영접되고 또 선출되어 성립한 '임시 정부' 이건, 그리고 또 '국민 공회' 이건, 우리는 일체 그런 것에 다희망을 걸지 않는다. 그러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미리부터 단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개인적 기호에서가 아니다. 혁명의 물결에 변통? 弄되어 정부의 자리에 밀어 올리어 진 사람들은 결국 충분히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 자체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저히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원리 위에 사회를 재건하는 일에 당하여 고립한 인간은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헌신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필경 무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이을 위해서는 경작지, 주택, 운전 중의 공장, 철도, 선로를 달리는 객차, 기선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대중의 집단적 정신이 없으면 안된다.

고립한 개인도 묵은 사회 형태의 파괴가 성취되기 시작할 때, 이러한 파괴를 위한 정당한 표현 내지 정식을 발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 파괴의 작업을 다소라도 넓혀서 나라의 일부에서 생긴 사태를 전 지역에 확대하는 일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이 파괴의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특히 1789?94년의 혁명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다.

새로운 생활 형태는 혁명 후 묵은 생활 형태의 폐허 위에 탄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신 형태가 민중의 건설 작업 속에서, 한꺼번에 수천 군데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속에서, 스스로 형태를 갖추지 않는 한,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그것들의 표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라서 1789?94년의 혁명의 제사건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와 파리 코뮌 및 그 제지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를 추측했을 것인가. 또한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인가. 미래를 법에 복종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능한 것은 그 주요한 경향을 추측하여 그 길을 말끔히 닦아놓는 일이다. 우리가 하고자 애쓰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회 혁명의 과제를 이와 같이 파악하는 이상이나 키즘이 '현존 국가에서의 권력 장악'을 목표로 내거는 강령에 동조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 권력 장악이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싸우지 않고서 자기네의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저항도 않고 서순순히 몰수를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편으로 사회주의자가 정부의 일부로 들어가 부르주아지와 권력을 나누게 된다면, 이에 따라 그들 사회주의자는 불가피하게 퇴색한 자가 되어갈 것이다. 그러지 않을 라치면 사회주의자의 기관지 *機關紙* 상에서도 인정하다시피, 수로 보나지식으로 보나 훨씬 강력한 부르주아지가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사회주의자에게 인정할리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프랑스 영국 또는 독일에 봉기가 일어나 사회주의의 임시 정권의 등장이 가능케 되었다 하더라도, 민중 자신의 건설 활동을 결할 것 같으면 그려 한 정권은 전혀 무력하고, 얼마 안 가서 혁명의 방해 물 즉 브레이크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반동의 대표자 즉 독재자의 발판될 것이다.

혁명의 준비기를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어떠한 혁명도 회기 티어 데의 집회의 저항이나 공세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혁명은 민중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더군다나 미상 불어 떤 혁명도, 주피터의 두뇌에서 튀어 나오는 미네르바와 같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무릇 혁명은 어느 것이나 부화 기 *孵化器* 외에도 진화 기 *進化期*를 갖고 있었고, 그 기간에 민중은 당초에는 극히 조심성 있는 요구를 내어 놓다가 극히 완만한 걸음걸이로 차차 혁명 정신에 침투되어 간다. 이리하여 그들은 점점 대담무쌍하게 되어가서 자기네의 힘에 자신을 얻고 절망의 정지 상태를 벗어나 점차 자기네의 강령을 확대해간다. 당초의 '온건한 건의'가 마침내 혁명적 요구로 전화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실, 수중에 권력을 장악할 만큼 강력한 공화주의의 소수파가 탄생되는데는 1789년에서 1793년에 이르는 4년간이 프랑스에 필요했다. 부화기에 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즉 당초는 개개인이 자기들의 주의에 발견하는 사태에 깊이 마음이 동요하여 개별적으로 반역한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라진다. 그러나 사회의 무관심을 이들의 전초의 덕택으로 흔들어놓인 것이다.

현상에 만족한 자도, 마음이 좀은 사람들도, 이제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게 되었다 - 도대체 무슨 까닭에 이들의 젊은, 성실한, 힘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자기네의 생명을 내어 던졌을까, 라고. 벌써 무관심한 채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찬부 *贊否* 간에 태도를 밝혀야 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사상은 각성했다.

조금씩, 사람들의 소집단도 마찬가지로 혁명 정신에 침투되어 갔다. 그들도 때로는 부분적 성공을 획득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테면 스트라이크에 승리하여 자식들에게 빵을 사다 줄 수 있다거나 가증可憎스런 관리를 추방한다거나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반역하고 나선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극히 빈번히 아무런 성공의 기대도 갖지 않고서 반역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벌써 그 이상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혁명에 선행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반역 행위, 더욱이 1회나 2회나 10회의 반역이 아니라 몇 백 번이란 봉기인 것이다. 어떤 인내에도 한도라는 게 있다. 이는 금일의 아메리카 합중국에서도 보이는 바다.

러시아에 있어서의 농노제도의 평화적 폐지에 대하여 종종 지적들 한다. 허나 그럴 때, 일련의 긴 농민 폭동의 역사가 그것에 선행하여 있고, 이것이 바로 농노제 폐지를 이끌어 왔다는 것은 전혀 잊히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의 반란은 50년대에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1848년 혁명의 반향이거나 아니면 1846년의 가리시아에서의 농민 반란의 반향이었다. 그리고 해마다 점점 러시아 전토에 확대하여 점점 심각한 것으로 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나운 성격을 띠기야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는 1857년 알렉산드르 2세가, 드디어 리투아니아의 귀족들에게서 간을 보내어, 농민의 해방을 약속하기까지 계속했다. '앉아서 밀으로 부터의 해방을 기다리기보다는 위로부터 해방을 주는 편이 낫다'고 하는 저게르첸의 명언 - 그것은, 알렉산드르 2세에 의하여, 모스크바의 농노 제지지에 고루한 귀족들의 면전에서 되풀이 되게 끔된 말이다 - 은 단순한 위협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혁명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이것과 같은 일이 좀 더 큰 정도로 발생했다.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어느 혁명의 성격도 그것에 선행하는 폭동의 성격과 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니 오히려 그 뿐만 아니라, 역사의 사실로서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겠다. 즉 아무리 심각한 정치 혁명도 만약에 혁명이 시작된 후에 일련의 지방적

폭동의 형태로 계속하지를 않고, 또한 만약에 인심의 동요가 1906년과 1907년의 러시아의 경우처럼 개인적 복수의 성격을 취하는 대신에 폭동의 성격을 띠는 일이 없었다면 결코 성취하지를 못할 것이라고.

따라서 장래 올 혁명의 성격을 결정하는 폭동의 선구先驅 없이 협회이 사회 혁명을 대망하고 이러한 희망적 관측에 빠지는 것은 유치하고 어리석다. 전반적 봉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호언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들의 폭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범죄라 할 수밖에 없다. 현데 선거의 선동 운동에 만정력을 쏟으면서 노동자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 혁명의 모든 혜택을 입게 되리라고 애써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 혁명 정신이 역사적으로 고조된 국민 속에 발생하는 개개의 폭동 적 행동에 대하여 악의에 찬 온갖 유탸설을 퍼붓는 것은 스스로 혁명과 일체의 진보에 대한 방해물 - 언제나 변치 않고 그리스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과 조금도 다름 없이 혐오해야 할 방해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 16. 결론

이이상아나키즘의제원리와아나키즘의행동강령의전개에들어가지않더라도현금의인간지식속에서아나키즘이차지하는지위를제시하는데는앞에서논술한바로서충분하겠다.

아나키즘이란자연과학의귀납? 연역방법에의하여얻어진종합을인간의제제도의평가에적용하려고하는기도이다. 그것은또한평가에입각하면서인간사회의각단위에대하여최대량의행복을확보하기위하여자유,평등, 우애로향하여나가는인류의걸음을예지豫知하려고하는기도이다.

아나키즘은자연과학에서의지적운동의불가피한결론이다. 이지적운동은 18 세기에비롯하여프랑스혁명의좌절후에유럽에승리의함성을올린반동으로말미암아침체한후, 50 년대말에이르러다시금전면적으로떨치고일어섰다. 이처럼아나키즘의근원은 18 세기의자연과학적철학속에있다. 그러나아나키즘이자기자신의완전한터전을닦은것은 19 세기후반의초두에일어나인간의제제도화사회의자연과학적기초에의한연구에새로운생명을불어넣은과학의부흥이후의일이었다.

1820 년대와 30 년대의독일의형이상학적철학자의득의만면으로자랑삼던소위‘과학적법칙’이란것은자연과학의방법이외의여하한방법도승인아니하는아나키즘의세계관속에들어설여지가없다. 아나키즘은일반으로인문과학이란이름으로불리어지고있는모든과학에도이러한방법을적용하려고한다.

이방법에의거하고, 또한이방법론의영향아래최근에이루어진일체의연구를이용함으로써, 아나키즘은인간에관한모든과학의종합을구성하려고힘쓰는동시에최근의민족학적연구에의하여전하여진자료를기초로또한그것들을일총화대하면서, 법이나정의와같은것에대한통설적관념을재검토하려고한다. 아나키즘은18 세기의선구자들의노작에의거하면서국가에대립하여개인을옹호하는편에서고, 또한역사적제조건에의하여사회를지배하고있는권력에대항하여사회의편을들려고한다. 아나키즘은또한, 근대과학의손으로수집된역사적자료를이용함으로써금일점점그압박을증대시키고있는국가권력이우리들유럽인에대해서는 15 세기와 16 세기이래비로소대두한유해무익한상부구조에불과하다는것, 그것은또한자본주의의이익을위해서만들어내어진상부구조이고, 이미고대에는로마와그리스멸망의원인을이루고, 다시동양파이집트에서의제문명의모든중심지의붕괴의근본원인이기도했다는것을입증했다.

역사의경과속에서지주, 재판관, 군인, 승려를공통의이익속에통합함목적으로형성된권력, 그리고또한역사속에서다소라도보장된자유의생활을만들어내려고하는인간의시도를매양방해해온권력 - 이권력은시저주의, 제국주의내지교회가사회혁명의도구로되지못함과마찬가지로해방의무기로될수는없는것이다.

경제학에서아나키즘이도달한결론은다음과같다. 정작해악은자본가가‘잉여가치’또는순이익을자기네의손에넣는데있다기보다오히려이와같은순이익또는‘잉여가치’가가능케된다는사실그것에있는것이다. ‘잉여가치’가존재하는것은다만몇백만의인간이그노동력과지식을이것의존재를가능케할만큼의저렴한값으로라도팔지않고서는생활을해나갈아무것도가진것이없기때문일따름이다. 그렇기때문에경제학에서우리가첫째로연구하지않으면안될것은소비에관한장장이고, 또한혁명에있어서해야할최초의의무는의식주가만인에게보장될방식으로소비를재편성하는일이아니면안된다. 1793?94 년에우리의선배들은이것을분명히이해하고있었다.

‘생산’에관해서는무엇보다먼저전사회의제일의필수품이가급적빨리충족되게끔조직되지않으면안된다. 그런까닭에아나키즘은장래을혁명을단지금화대신에‘노동권’을사용하거나또는금일의자본가들자리에자본주의국가를갖다놓는방식으로생각할수는없는것이다. 아나키즘은혁명속에국가없는자유코뮌주의의로의제일보를찾는다.

아나키즘의이러한결론은과연정당한것일까. 그해답은, 한편으로는아나키즘의기초의과학적비판이, 다른한편으로는실제생활이우리에게명시할것이다. 허나, 아나키즘이의심할여지없이전혀올바른한가지점이있다. 아나키즘이사회제제도의연구를자연과학의한부문으로보고형이상학과는영원히웃깃을나누고, 현대과학과금일의유물론철학과의구성에유용한방법을자기의사유방법으로서채용한것, 바로이것이다. 그결과, 가령아나키즘이그결론에있어서어떤오류에빠져있다하더라도그것을깨닫기는아주용이하다. 그러나우리의결론을검증하려고하면, 그것은모든과학이거기에기초를두고있고또한일체의과학적세계관의발달이거기에의거하고있는과학적귀납? 연역적방법을쓰고서야비로소가능케될것이다.

※ 이논문은 1909 년런던프리덤사에서출판되고그후 1916 년미국의마서아스사에서출판되었다. 그런데이양쪽이서로대차大差가없다. 그외에볼드원이편찬한 『혁명논문집』 에도이논문이합본되어있으나대단히생략되어있다. 이역서에는이들 3 자가참조되었다.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현대과학과아나키즘  
1930년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